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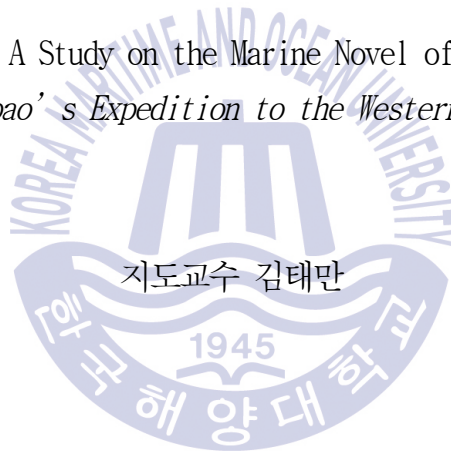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國際地域學博士學位論文

해양소설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Novel of  
*Sanbao's Expedition to the Western Ocean*



2018 년 2 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문화콘텐츠융복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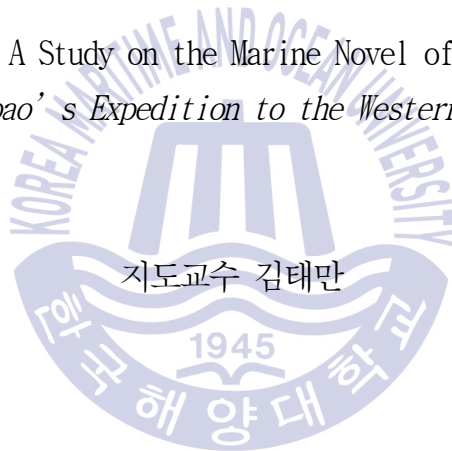
尹正華



國際地域學博士學位論文

해양소설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Novel of  
*Sanbao's Expedition to the Western Oc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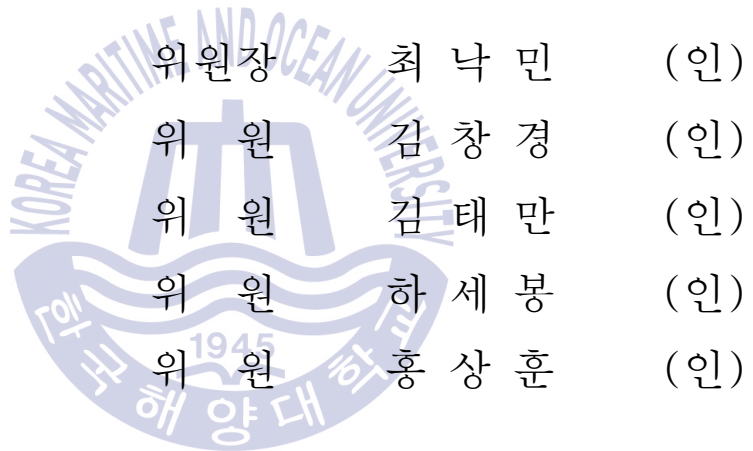
2018 년 2 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문화콘텐츠융복합과정

尹正華

본 논문을 尹正華의  
국제지역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2월 21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목차 .....	i
초록 .....	iii
Abstract .....	v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목적 .....	1
1.2 선행연구 .....	5
1.3 해양문학의 범주 .....	8
1.3.1 해양문학의 범주설정 논의 .....	8
1.3.2 해양성의 범주와 내용 .....	13
1.4 논문의 구성 .....	15
제 2 장 『西洋記』의 작가와 작품 .....	18
2.1 작품의 시대적 배경 .....	18
2.2 작가의 생애와 시대의식 .....	23
2.2.1 생애 .....	23
2.2.1 시대의식 .....	25
2.3 인물 분석 .....	29
2.2.1 鄭和 .....	30
2.2.2 張天師 .....	40
2.2.3 金碧峰 .....	44
제 3 장 『西洋記』에 나타난 세계 인식 .....	51
3.1 서양의 의미와 서양 인식 .....	51

3.2 천조대국 明의 이미지 .....	54
3.3 서양을 향한 경로와 신마전쟁의 의미 .....	58
<b>제 4 장 『西洋記』에 나타난 해양성 .....</b>	<b>67</b>
4.1 해양출정 동인 .....	71
4.2 출항 준비와 선박 건조 .....	74
4.3 다양한 바다 체험 .....	80
4.4 모험과 전쟁 .....	85
4.5 해양 물산 : 조공물 .....	91
<b>제 5 장 결론 .....</b>	<b>97</b>
<b>참고문헌 .....</b>	<b>102</b>
<표1> 明 ~ 中華民國 시기의 주요 판본 .....	18
<표2> 羅懋登의 생애 .....	25
<표3> 작품 속 주인공 성격 대비 .....	49
<표4> 鄭和의 함대가 서양 제국을 경과한 과정 .....	59
<표5> 『西洋記』속 선박 구성도 .....	75
<표6> 서양으로 출항할 인원수 .....	76
<표7> 선박건조 과정 및 일정 .....	78
<표8> 함대가 淡水를 지나는 과정 .....	83
<표9> 서양의 해양성 진상품과 明의 답례품 일람 .....	91
<표10> 해양과 연관된 진상품 .....	94

## <국문초록>

# 해양소설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연구

尹正華

해양문화콘텐츠융복합과정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초록

明末, 羅懋登의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이하 『西洋記』로 표기)는 鄭和의 서양원정을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역사 속 鄭和는 외교가이자 항해가이다. 永樂帝 시기 鄭和는 근 3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서양 30여 나라를 탐방했다. 그러나 작품 속 鄭和는 金碧峰과 張天師의 조력 하에 서양 40여 나라를 탐방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보면 『西洋記』를 신마소설의 범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西洋記』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문구에 대한 연구도 있다. 최근 『西洋記』 속에 들어있는 해양의식과 해양체험담에 대한 연구도 나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西洋記』를 해양소설의 범주로 가정하여 작품 속에 들어있는 ‘해양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양성’의 특징으로는 접해성, 복사성(교류성), 모험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양성’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 이 작품 속에 들어있



는 모험, 서양에 대한 인식, 출항 준비와 선박건조, 조공물과 다양한 바다 체험 등을 통해 해양과 연관된 요소들을 도출해 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西洋記』를 해양소설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작가는 『西洋記』 속 여러 나라들을 실존 공간과 만들어진 가상 공간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함대가 실존 공간을 거의 순조롭게 경과한 반면 만들어진 공간에서는 오랫동안의 전쟁을 진행했다. 만들어진 공간에서 신과 신 사이의 전쟁 또는 신과 요괴 사이에서 진행되는 황당한 전쟁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작품은 신마소설이면서 동시에 판타지 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 해양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추출할 수 있다.

**키워드 :** 『西洋記』; 鄭和; 해양소설; 해양성; 서양.



<영문초록>

A Study on the Marine Novel of  
*Sanbao' s Expedition to the Western Ocean*

YIN, ZHENGHUA

Department of Oceanic Cultural Content Convergenc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At the end of the Ming dynasty, the theme of *The Three Treasures of the Western Worl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estern Memory*) was created with the complexity of the story of Zheng He. Historically, Zheng He was a notorious significant diplomat and navigator. During the period of Yongle, Zheng He practically led a large number of fleets, nearly 30,000 people, and went to more than 30 western countries for a visit. However in the novel, it described that Zheng He visited more than 40 countries with the help of Jin Bifeng and Zhang Tianshi.

From the previous results of research, it is the most common identity of views to regard *The Western Memory*as the category of the magic novel. Definitely, many researchers also have studied *The Western Memory*from its syntactic structures. While in the recent research, the novelistic genre of ocean consciousness and ocean

experience that embodied in this novel has emerged.

This dissertation is unlikely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research, obviously it is ingeniously classified *The Western Memory* as the genre of marine novel. Therefore, the clue of "maritime" is clearly extracted from this novel. In one word, the features of maritime are mentioned here the tremendous nature and property of ocean, included the characters of communication, adventure and aesthetics. The author of this dissertation is not only in line accordance with the four characteristics as the basic framework, but also excavate in the adventure background of this novel and the intensively consideration of western society, including casting of vessels, preparation of the tribute, and navigation experience of ocean, and other related marine contents. Through such a process, it can be proved that *The Western Memory* would be placed in the category of marine novel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he author of *The Western Memory* actively divides the western countries into the reality countries and the imaginary space. In the novel, Zheng He's fleet on the one hand sails through the real world; on the other hand, he toughly wages a harsh but long fight in unreal space. Continually, the author evidently describes the absurd warlike scenes between gods and devils in the imaginary space. It can be found that *The Western Memory* not only embodies in the category of the novels of gods and spirits, but also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ction and illusory. This dissertation would further study and explore whether it can be feasibly classified with the marine novelistic features.

**KEY WORDS:** *The Three Treasures of the Western World*, Zheng He, Marine Fiction, Maritime, Western.

# 제 1 장 서론

## 1.1 연구목적

明末 羅懋登(1571-?)의 작품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이하『西洋記』로 표기함)는 鄭和(1371-1433)의 서양원정을 소재로 쓴 소설이다. 역사에서 鄭和는 외교가이자 항해가이다. 15세기 초, 거의 30년 동안 2만 7000여명의 병사와 방대한 함대를 이끌고 서양을 일곱 차례 왕복하는 동안 30여 나라를 방문했다. 당시 鄭和가 대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동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항해사 속에서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

『明史』<sup>1)</sup>의 기록에 의하면 “洪武, 永樂, 洪熙, 宣德 시기에는 백성의 생활이 충실하고 창고에 물자가 차 넘친다.(洪, 永, 熙, 宣之際, 百姓充實, 府藏衍溢.)”<sup>2)</sup> “창고가 충족하고 천하가 태평(倉廩充積, 天下太平)”<sup>3)</sup> 하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鄭和가 그 시기 서양으로 일곱 차례 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가의 경제가 활발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풍족했기 때문이었다. 명은 안으로 안정한 상태였기에 밖으로의 외교활동에 눈을 돌리 수 있었다.

鄭和의 서양 원정에 대한 연구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鄭和의 서양원정에 대한 기록 자료를 많이 찾아 볼 수는 없다. 『明史』에서는 鄭和의 출신에 관한 내용과 永樂帝의 명을 받고 서양 여러 나라를 왕복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sup>4)</sup>. 때문에 鄭和에 대해서는 당시 鄭和를 수행했던 통역관의 地理기록인 『瀛涯勝覽』<sup>5)</sup>, 『星槎勝覽』<sup>6)</sup> 그리고 『西洋番國志』<sup>7)</sup>를

1) 『明史』는 淸나라의 張廷玉 등이 칙령을 받들어 편찬한 紀傳體 역사서로 明 태조 朱元璋의 洪武 원년(1368년)부터 思宗 朱由檢, 崇禎 17년(1664년)까지 2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本紀 24권, 列傳 220권, 表 13권, 志 75권, 目錄 4권 총 33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淸]張廷玉, 『明史』, 卷七八, 『食貨誌·賦役』.

3) [明]蹇義, 『明仁宗實錄』, 卷五·下.

4) 『明史·鄭和傳』에서는 鄭和가 서양을 일곱 번 원정한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明史』의 列傳, 第一百九十二 宦官一 참고.

5) [明]馬歡의 『瀛涯勝覽』은 景泰 2년(1451)에 완성됐다. 馬歡의 자는 宗道, 汝欽이고 호는 會稽山樵이며 고향은 浙江會稽(오늘의 紹興)이고 回族이다. 明 나라 시기 통역관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鄭和가 방문했던 서양 제국의 풍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2005년, ‘鄭和下西洋600周年’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거대한 행사를 기점으로 鄭和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졌다. 동시에 작품 『西洋記』에 대한 관심도 보이기 시작했다. 일찍이 魯迅은 『中國小說史略』에서 『西洋記』를 ‘神魔小說’로 분류했고 “侈談怪異, 專尙荒唐”<sup>8)</sup>이라 평가했다. 즉, “논담이 이상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다. 魯迅은 명나라 시기의 문학작품을 크게 장르소설과 신마소설로 분류했다. 신마소설 작품을 설명할 때 『西洋記』도 함께 소개했다. 魯迅이 거론했다는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역설이다.

또 조선 英祖 38년(1762년) 完山 李氏가 『中國小說繪模本』의 서문<sup>9)</sup>에서 『西洋記』를 언급했고, 尹德熙는 1744년의 『字學歲月』<sup>10)</sup>과 1762년의 『小說經覽者』<sup>11)</sup>에서 『西洋記』를 신마소설로 분류하고 언급한 바 있다.

『西洋記』의 내용 구성을 통해 작가가 여러 종류의 작품을 열람했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작품이 鄭和의 서양원정을 소재로 구성하고 있지만, 다른 작품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西游記』<sup>12)</sup>에서 ‘吸魂瓶’과 女人國의 ‘子母河’에 관한 이야기를 『西洋記』의 제28회

---

으로 아랍어에 능통하다. 鄭和를 수행하여 永樂 12년(1413년), 永樂 19년(1421년)과 宣德 6년(1431년)에 서양을 세 번 왕복했다.

6) [明]費信의 『星差勝覽』은 正統 원년(1436년)에 완성됐다. 費信, 자는 公曉이고 통역관이다. 鄭和를 수행하여 永樂 7년(1409년), 永樂 10년(1413년), 永樂 13년(1415년)과 宣德 6년(1431)에 서양을 네 번 왕복했다. 20여 년 동안 서양을 왕복하면서 기록한 자료를 통해 44개국의 인문풍토를 묘사한 책이다.

7) 明·鞏珍의 『西洋番國志』는 明 宣德 9년(1434년)에 완성됐다. 鞏珍의 호는 養素生이고 명나라 應天府 사람이다. 明 宣德 6년(1431년)부터 宣德 8년(1433년)까지 鄭和를 수행하여 서양을 왕복했다. 이 책은 일곱 번째의 항해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서양의 풍토와 인정을 기술하고 있다.

8) 魯迅, 『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2005, 北京, p.179.

9) 민관동·김명신 편저,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 학고방, 2003, 경기도, p.319.

10) 민관동·김명신 위의 책, p.322.

11) 민관동·김명신 위의 책, p.323.

12) 吳承恩의 『西游記』는 중국 4대 고전문학작품 중의 하나다. 또 『西遊釋厄傳』이라고도 한다. 16세기 명나라 중엽에 완성된 작품이다. 작품은 사부 唐玄奘과 제자인 孫

와 제46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예다.

그리고, 강에서 풍랑을 만나 만두로 사람 머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도 『三國演義』<sup>13)</sup>의 내용을 참고로 묘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여러 장군들에 대한 묘사는 『水滸傳』의 주인공을 참고했다. 또한 여러 서양 제국의 인물, 건축물, 풍습, 조공에 대한 묘사는 『瀛涯勝覽』과 『星槎勝覽』의 기록을 많이 참고하고 변용해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趙景深은 “『瀛涯勝覽』에 20여 나라가 기록되고 있고 『星槎勝覽』에는 40여 지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瀛涯勝覽』보다 배나 많다. 『西洋記』에서 다루고 있는 靈山, 崑崙山, 重迦羅, 吉里地悶, 麻逸凍, 彭坑, 東西竺, 龍牙加貌, 九州山, 卜刺哇, 竹步, 木骨都速 등 지역의 내용은 모두 『星槎勝覽』을 참고 했다.”<sup>14)</sup>고 지적했다. 그리고 趙景深은 『西洋記』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을 『瀛涯勝覽』과 『星槎勝覽』의 기록과 대조하여 정리했다.<sup>15)</sup>

이렇게 작품의 제목으로부터 보면 鄭和의 원정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 작품의 내용을 참고하고 변용해 『西洋記』 속에 녹여 넣었음을 알 수 있다. 『西洋記』는 ‘神魔小說’ 즉, 황당하고 문학적성이 떨어지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오히려 작품을 통해 인용된 문헌들의 校勘에 거꾸로 활용하기도 하고, 명나라의 실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의 내용과 비교하기도 하여<sup>16)</sup> 자료의 보존과 연계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작품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

悟空, 豬八戒, 沙悟淨이 81개의 고난을 겪고 서쪽으로 경서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이다.

- 13) 羅貫中의 『三國演義』는 중국 4대 고전문학작품 중의 하나다. 元 나라 말, 明 나라 초기인 洪武 시기에 완성했다. 중국에서 최초 장편장회체로 다룬 역사 演義 작품이다. 전체의 명칭은 『三國志通俗演義』 또는 『三國志演義』라고 한다. 東漢 말 시기부터 西晉 초반의 근 105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전쟁 묘사를 위주로 하고 東漢 말년 魏, 蜀, 吳 삼국의 정치와 군사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 14) [明]羅懋登 저, 陸樹崙, 竺少華 교정,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上海古籍出版社, 1985, 上海, p.1299.
- 15) 羅懋登, 위의 책, pp.1300-1320.
- 16) 홍상훈,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의 詩文引用 및 變容樣相」, 『中國文學』, 제79집, 2014.05, 서울, p.54.



져 있다. 첫째,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연구로는, 魯迅이 『中國小說史略』에서 『西洋記』를 “논담이 이상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작품이라 평한 것과 趙景深<sup>17)</sup>이 『中國小說叢古』에서 『西洋記』를 예술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아니라고 평가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작품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문구를 통해 작가의 출신지역에 대한 추정과 당시 사회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黃文暘은 『曲海總目提要』에서 ‘二南’<sup>18)</sup>이라는 단어를 지역과 연계시켜 羅懋登을 陝西 사람으로 추정<sup>19)</sup>하고 있다. 셋째, 일부 연구자는 작품을 역사와 연계시켜 연구하기도 한다. 尹正華·김태만의 『『삼보태감西洋記』통속연의(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에 투영된 역사와 시대 의식(『동북아문화학회』 제47집, 2016)은 역사와 작품을 연계시킨 예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보면 대부분 연구자들은 작품의 예술 가치에 대한 평가와 작품 자체의 구성에 대한 연구에 국한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西洋記』를 앞서 연구자와 달리 해양문학과 해양소설의 시각으로 접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러한 시도가 전혀 무의미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연구성과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성과 중 唐琰의 「海洋迷思 -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와 『鏡花緣』해양觀念의 比較研究」(『明清小說研究』79期, 2006)에서는 두 작품이 해양과 연관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통사상의 영향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다와 서양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海禁 정책이 엄격히 시행됐던 明·淸 시기 두 작품의 작가가 모두 국가를 넘어 바다로 눈을 돌려 새로운 출로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包遵彭은 “이 책의 창작 동기는 단순한 괴담으로 독자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해양발전의 숭고한 사명감을 격려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此書的寫作動機, 原不止以光怪陸離取

17) 趙景深(1902-1995), 필명은 鄒嘯이고 祖籍은 四川 宜賓이고 浙江의 麗水에서 태어났다. 중국의 戲劇研究家, 文學史家, 教育가이자 작가다.

18) 羅懋登은 『西洋記』의 서문 끝에 ‘二南里人羅懋登’라 적었다. 黃文暘은 ‘二南’을 『詩經』 중의 周南과 召南의 병칭으로 생각했고, 마침 周南은 현재의 陝西와 河南의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羅懋登을 陝西사람으로 봤던 것이다. 劉香玉, 『『西洋記』研究』, 首都師範大學, 석사논문, 2009, 北京, p.10.

19) [淸]黃文暘, 『曲海總目提要』卷十八, 人民文學出版社, 1959, 北京, p.856.

悅讀者，而是寄有鼓舞海洋發展的崇高使命。)”<sup>20)</sup>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西洋記』를 해양문학 특히 해양소설이라는 시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의미로운 관점을 제시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차감해, 본 논문에서는 『西洋記』에 나타난 작가의 해양인식, 해양체험과 서양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작품을 해양소설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작품 속 金碧峰 장로에 대한 묘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항해를 전반적으로 통솔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鄭和이다. 이를 증명하듯, 吳花의 「한·중 고전소설의 해양체험담 비교 연구 - 『太原誌』와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sup>21)</sup>에서는 鄭和를 통솔자로 하고 金碧峰을 조력자로 보고 있다. 만약 鄭和라는 통솔자가 없었다면 이 항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록 작품 속에 묘사된 鄭和의 성격은 多重적이긴 하나, 단계 별로 변화해 점차 긍정적인 쪽으로 다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역사 사실과 작품적 사실이 상이한 것 역시 역사 속 鄭和가 서양을 일곱 차례 왕복한 사실을 작품에서는 단 한 번으로 구성하려는 작가의 의도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西洋記』 속에서는 鄭和가 한 번의 원정을 통해 서양의 40여 지역을 모두 탐방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 착안해 보다 본격적으로 해양소설의 범주로 가정하여 연구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해양소설의 범주를 큰 틀로 하고 작품 속 신마적 요소, 판타지와 모험 등의 부분들을 함께 접목한 분석도 결들이기로 한다.

## 1.2 선행연구

연구자들은 『西洋記』의 문학성에 대해 대체로 2, 3류의 저급한 작품이라고

20) 包遵彭, 「論三寶太監下西洋記演義與天后古事的影響」, 『幼獅學報』, 1981, 臺灣國家圖書館藏, p.53.

21) 吳花, 「한·중 고전소설의 해양체험담 비교 연구 - 『太原誌』와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7, 경기도.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西洋記』는 문학작품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료를 교감하거나 유실된 역사적 사료를 보충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西洋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魯迅은 『中國小說史略』에서 『西洋記』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제18장 「明之神魔小說下」에서 『西洋記』를 ‘神魔小說’로 분류했다. 魯迅은 명시기의 소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장르소설이고 다른 하나는 신마소설이다. 魯迅은 “당시의 사상은 아주 모호하여 작품 속 사악함과 정의로운 것에 대한 서술은 유교와 불교, 도교와 불교, 儒道釋(유가, 도가, 석가)과 白蓮教가 아니라 단순하고도 모호한 양쪽의 전쟁으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신마소설이라고 한다. 비록 『西洋記』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중국을 거의 신으로, 오랑캐를 악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마소설로 분류한다.(當時的思想, 是極模糊的, 在小說中所寫的邪正, 並非儒和佛, 或道和佛, 或儒道釋和白蓮教, 單不過是含糊的彼此之爭, 我就總括起來給他們一個名目, 叫做神魔小說. 在這書中, 雖然說的是國與國之戰, 但中國近於神, 而外夷卻居於魔的地位, 所以仍然是神魔小說之流.)”<sup>22)</sup>라고 했다. 이를 수용한 劉紅林의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神魔化淺談」(『明清作品研究』 제77기, 2005)과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의 主角談」(『明清作品研究』 제81기, 2006)에서는 불교의 상징인물인 金碧峰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당시의 사회배경 하에서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서양의 원정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金碧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西洋記』의 문학성보다 언어 영역의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王飛華의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의 語氣詞研究」(四川師範大學, 석사논문, 2002)에서는 어조사와 역사적 기원과 발전 상황 그리고 16세기에서 17세기의 어조사의 사용양상을 연구하고 있고, 張麗의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程度副詞研究」(四川師範大學, 석사논문, 2009)에서는 『西洋記』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부사의 특징을 통해 근대한어에서 정도부사의 사용과 발전을 연구하고 있으며, 鄧珊의 「『三寶太監西洋記通俗

22) 魯迅, 위의 책, pp.269-270 참고.

演義』稱謂詞研究」(浙江財經大學, 석사논문, 2014)에서는 작품 속 社會稱謂詞를 社會交際稱謂과 도덕품성 명칭 그리고 生理특징 명칭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당시 사회의 특징과 반영하고 있는 문화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歐陽文의 「『西洋記』의 形式研究」(江西師範大學, 석사논문, 2005)에서는 작품형식의 형성원인을 연구하면서 아울러 중국 장편작품 발전단계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蔣麗娟의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研究」(蘇州大學, 석사논문, 2008)에서는 작품 속 鄭和가 서양을 왕복했던 몇몇 지역을 지정하여 사료와 비교해 연구하고 있다. 劉香玉의 「『西洋記』研究」(首都師範大學, 석사논문, 2009)에서는 비교분석적 연구방법을 통해 『西洋記』의 서문과 작품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과거를 비롯하여 현실상황을 풍자하는 창작동기의 진실성을 규명하고 있다. 唐琰의 「海洋迷思 -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與『鏡花緣』海洋觀念比較研究」(『明清小說研究』, 제79기, 2006)에서는 두 작품이 해양과 연관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통사상의 영향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다와 서양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西洋記』에 대한 한국의 연구 성과로는 홍상훈의 「중화(中華)의 자족적 나들이」(『중국작품연구회보』 제92호, 2014)와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의 詩文引用 및 變容樣相」(『중국문학』 제79집, 2014)이 주목할 만하다. 홍상훈은 앞의 논문을 통해 『西洋記』의 구성과 내용 분석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뒷 논문에서는 고전작품의 계승, 공연문학의 활용, 고전 명작시의 인용과 변용, 고전 산문의 인용과 변용 등의 분류를 통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태만의 「동방 오디세이, 정화(鄭和)의 바다」(『해양과 문학』 제19호, 2016)에서는 작품 속 시구(詩句)를 통해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첫 출항의 당황스러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바다에 대한 지배의 야심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鄭和의 위대한 원정을 오늘날 중국의 아젠다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결부시켜 중국이 다시 바다에 접목할 계기를 설명하면서 작품을 재조명해야 할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尹正華·김태만의 「삼보태감서양기통속연의(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에 투영된 역사와 시대 의식」(『동북아문화학회』 제47집, 2016)에서는 萬曆년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통해 작가가 작품을 역사와 달리 다루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吳花의 「한·중 고전소설의 해양체험담 비교 연구 - 『太原志』와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를 대상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7)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소설에 나타난 해양체험담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 두 나라 고전작품에 등장하는 해양체험담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해양체험담에 담긴 두 나라 사람들의 인식 지향을 규명<sup>23)</sup>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해양문학과 연계성에 입각한 『西洋記』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매우 다양한 연구의 여지가 남아있는 미개척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3 해양 문학의 범주

이상에서는 『西洋記』를 둘러싼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금부터 『西洋記』를 해양문학이라는 범주에 넣고 연구하기 위한 근거로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해양문학 범주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3.1 해양문학의 범주설정 논의

처음으로 한국 해양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崔康賢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바다가 작품 가운데에서 주제를 이루어 쓰여진 문학작품’이라는 개념으로 해양문학에 대한 논의<sup>24)</sup>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치부는 해양문학의 개념에 대한 崔康賢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양문학의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바다가 작품 중에서 주제로 한 문학이고, ② 바다를 주요 대상과 배경으로 하는 문학이고, ③ 바다에서 직접 취재한 문학 작품이고, ④ 바다 그 자체의 자연미가 대상이 되는 문학이고, ⑤ 인간이 바다에 대한 동경이나 모험적 본능이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정의<sup>25)</sup>했다.

23) 吳花, 위의 논문, p.1.

24)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 주로 표해가(漂海歌)를 중심으로」, 『省谷論叢』第12輯, 省谷學術文化財團, 1981, 서울, p.236. (尹致富, 「韓國海洋文學研究 - 漂海類 작품을 중심으로 - 」,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1992, 서울, p.4 재인용)

25) 尹致富, 「韓國海洋文學研究 - 漂海類 작품을 중심으로 - 」,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그 후 조규익·최영호의 『해양문학을 찾아서』(집문당, 1994)에서는 해양문학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바다가 작품의 주제가 된 문학, ② 바다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거나 배경으로 한 문학이라 함은 직접적인 바다 체험이 들어 있는 문학, ③ 자연미에 도취되어 바다 그 자체를 노래한 문학, ④ 바다를 통한 인간의 절실한 체험-동경, 희망, 모험심, 등을 자극하고 담아낸 문학, ⑤ 어촌을 포함해 도서 지방의 생활을 다룬 문학, ⑥ 그 지방의 토속적인 문화와 결부된 문학<sup>26)</sup>을 토대로 해양문학의 범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최영호는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에서 해양문학을 12종류로 분류하였고, 이중 해양소설을 해양 설화계 소설과 창작 해양 소설로 나누었다. 여기서 해양 설화계 소설은 구전 설화나 문헌 설화 중에서 바다와 관련된 설화가 이후 누군가에 의해 소설화된 것<sup>27)</sup>을 말하고 있다. 작품의 특징에 따라 창작 해양 소설을 ① 바다를 작품의 주제, 소재, 배경으로 하나 체험의 관점이 아닌 관조적 관점으로 그린 작품들, ② 가난한 어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 ③ 어민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이며 근원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 ④ 어민들의 고된 생활과 일품을 덜어주고, 풍어제로 만선을 기원하며, 바다를 공공의 한풀이 장소로 책임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즉 당골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 독특한 삶을 그린 작품들, ⑤ 어민과 선주 간에 놓인 인권, 노동문제에 집중한 작품들, ⑥ 바다를 민족적인 문제와 결부시킨 작품들, ⑦ 근해선이나 원양선의 선원생활 자체를 실감나게 소개한 작품들, ⑧ 섬을 작품의 주요 매개로 삼은 작품들<sup>28)</sup>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모룡은 이러한 유형들은 해양문학이라는 넓은 범주에 의한 것인 만큼 장르로서의 해양소설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이 모두 포괄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문학의 경우 가장 중요한 미학적 준거는 체험의 문학화이다.

---

1992, 서울, p.5.

26) 조규익·최영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서울, p.15.

27) 조규익·최영호, 위의 책, p.19.

28) 조규익·최영호, 위의 책, p.20.

따라서 장르의 관점에서 해양체험이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되는 시와 소설이라는 관점<sup>29)</sup>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구모룡이 해양체험을 전제로 한 문학을 해양문학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모룡은 바다문학(Sea Literature)과 해양문학(Ocean Literature)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지만 전자를 범박하게 바다를 중요한 배경이나 주제로 하는 문학 전체를 말한다면 후자는 대양체험을 중요 구성원리로 하는 문학을 지칭한다고 제시<sup>30)</sup>하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자 남송우는 現 단계에서 해양문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해양체험도 중요하지만, 해양이 지닌 원형적 이미지를 문학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sup>31)</sup>고 제시했다.

한국의 해양문학은 해양체험뿐만 아니라 바다를 체험하지 않은 관조의 대상으로도 그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보이고 있다. 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해양문학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문학을 다원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두 가지를 포함해 해양문학을 다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밝힌다.

다음은 중국의 해양문학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해양문학은 유구하고 찬란한 중국문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수 천 년에 걸친 중국 문학의 전체적인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 신화전설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특출한 성취를 이룩한 계승과 혁신의 과정에 있다.<sup>32)</sup> 중국의 해양문학은 先秦시기의 해양문학, 秦漢魏晉南北朝의 해양문학, 唐宋시기의 해양문학, 元明清 시기의 해양문학, 現當대의 해양문학으로 분류하고 논의<sup>33)</sup> 할 수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漢朝 東方朔의 『海內十洲記』, 班彪의 『覽海賦』, 晉朝 木華의 『海賦』, 番岳의 『滄海賦』, 唐朝 李白의 『橫江詞六首』, 韓愈의 『南海神廣朝碑』, 宋대의 燕肅의 『海潮論』, 元朝 戴良의 『渡黑水洋』, 明朝 羅懋登의 『三寶太監西

29) 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부산, p.18.

30) 구모룡, 『해양풍경』, 산지니, 2005, 부산, p.266.

31) 남송우, 「한·중 해양문학론 논의의 현황과 방향성 모색」, 『동북아문화연구』, 제4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부산, p.22.

32)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부산, p.301

33)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p.301-345 참고.



洋記通俗演義』, 清朝 李汝珍의 『鏡花緣』, 劉大樾의 『海船』등이 있다. 그동안 중국의 해양문학은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왔다. 先秦시기의 해양문학은 신화전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秦始皇이 육국을 통일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남연해지역도 통일된 판도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중국의 해양문화는 더욱 발전하고 풍부해지게 되었다.<sup>34)</sup> 唐宋시기의 문학은 최고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했다. 해양문학에서 해양인물, 해양사건, 해양생활, 해외교통, 해외 각국과 이민족<sup>35)</sup>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다. 元明清시기의 해양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설이나 희극과 같은 서사문학의 발전과 번영<sup>36)</sup>이다. 1949년 이후의 現當代문학에서 해양문학창작은 바다에서 느끼는 감정을 詩·詞·歌·賦의 형식을 빌려 노래한 작품들이 더욱 많아졌다. 80년대 이전의 소설, 희극, 영화창작은 海戰, 해양 방어 및 어촌의 계급투쟁을 소재<sup>37)</sup>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서 現當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해양문학 작품은 다양하고 풍부하게 연계되어 왔지만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중국의 해양문학 연구는 급격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어쩌면 정치, 사회, 외교,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려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그 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sup>38)</sup>

현 단계에서 중국해양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고대 해양문학을 연구할 때 반드시 『山海經』을 거론하고, 둘째, 鄭和의 서양원정에 대한 연구, 셋째, 갈수록 많은 학자들이 본토지역의 해양문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39)</sup>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만의 林耀德은 시선집 『海是地球的第一個名字』<sup>40)</sup>에서 해양문학의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의 대표적인 해양문학 연구자인 陳

34)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308.

35)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326.

36)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336.

37)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346.

38) 남송우, 위의 논문, p.14.

39) 宋文娟, 「中國海洋文學研究概貌與趨向」, 『語文學刊』, 2012, 寧波, p.41.

40) 林耀德, 『海是地球的第一個名字』, 號角出版社, 1987, 臺灣.

慶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문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 고대 해양문학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것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방면이 있다.

- ① 대 자연의 해양 경치, 바닷가와 섬의 자연 경치
- ② 변해(邊海) 사람들과 섬 사람들의 생존을 의지하는 해양 환경
- ③ 해양의 신화 전설과 해양의 민간 신앙
- ④ 해상 노동과 해상 상품 교역, 대외 무역 활동
- ⑤ 역내(域內)에서의 해상 교통과 바닷길의 이민 활동
- ⑥ 역외(域外)에서의 항해 외교·종교 이외의 문화교류 및 해외로의 이민 활동
- ⑦ 해상을 거치는 각종 종교 활동
- ⑧ 해상 전쟁, 역내의 전쟁, 외부에서 온 세력의 해상 침입과 침략에 반대하는 전쟁
- ⑨ 해상과 변해에서 발생한 각종 이야기
- ⑩ 감정 토로 대상으로서의 해양<sup>41)</sup>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국대륙에서의 해양문학에 대한 범주 논의 속에는 한국의 해양문학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역내에서의 해상 교통과 바닷길의 이민 활동, 역외에서의 항해 외교·종교 이외의 문화교류 및 해외로의 이민 활동, 해상을 거치는 각종 종교 활동, 해상 전쟁, 역내의 전쟁, 외부에서 온 세력의 해상 침입과 침략에 반대하는 전쟁 등이 있다. 한국 해양문학과 중국 해양문학의 범주나 정의에 대해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해양문학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필자 나름으로 해양문학을 범주화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해양문학을 바다를 중요한 배경이나 주제로 하는 문학과 대양체험을 중요 구성원리로 하는 문학을 다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양문학을 역내에서의 해상 교통과 바닷길의 이민 활

41) 陳慶元, 「序一」, 『天問警世-中國古代海洋文學』(趙君堯著), 海洋出版社, 2009, 北京, pp.2-3. (신정호, 「한중 해양문학 비교연구 서설 - 시론적 접근」, 『도서문화』, 제40호, 2012, p.297 재인용, 목포)

동, 해상 전쟁, 역내의 전쟁, 외부에서 온 세력의 해상 침입과 침략에 반대하는 전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관점을 아울러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견지했을 때 『西洋記』를 해양문학의 범주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1.3.2 해양성의 범주와 내용

이상에서 검토한 한국과 중국의 ‘해양문학’을 둘러싼 논쟁과 주장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해양문학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요소로 ‘해양성’의 유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에 대한 주체적 체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해양체험의 핵심이 여하히 해양성을 드러내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해양문학 작품에 나타난 해양성을 분석해내려면,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가 ‘해양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로 김태만은 『철학이 있는 도시, 영혼이 있는 기업』(호밀밭, 2016)에서 전통적인 기업경영 형태만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시장이나 전 지구적 경제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없다. 때문에 기업은 혁신을 위한 고체형 사고에서 액체형 사고로 또는 대륙형 사고에서 해양형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양성’의 특징으로 모험성, 유동성, 자유, 경쟁, 낭만, 자극, 사유와 희생<sup>42)</sup> 등을 포함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통상인 중 하나인 儒商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 변용이라 할 화교를 설명하는 가운데 福建화교나 홍콩화교를 예를 들어 해양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대륙지향형 기업발전을 벗어나 과감하게 개방성과 모험성을 결합해 ‘走出去’ 주의의 실천으로 해양으로 나갔고, 이는 문헌경쟁 시대의 무한도전 성공기의 토대가 되었다”<sup>43)</sup>고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성’의 규명이 핵심적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해양성’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는 해양문학을 탄생하게 하는 토대인 해

42) 김태만·장현정, 『철학이 있는 도시, 영혼이 있는 기업』, 호밀밭, 2016, 부산, p.294.

43) 김태만·장현정, 위의 책, p.295.



양문화 범주 속에서 추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해양문화란 한마디로 해양과 유  
관한 문화이고 해양으로부터 탄생된 문화이다. 즉, 인류가 해양 자체에 대한 인  
식과 이용 및 해양으로 말미암아 창조해낸 정신적·행위적·사회적·물질적 문명생  
활의 함의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이러한 해양문화의 범주 속에서 우리가 추출해  
낼 수 있는 ‘해양성’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범주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양문화의 내질구조로부터 보자면 涉海性을 들 수 있다. 인류가  
해양에 의거해 창조한 문화, 즉 涉海性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특징  
이다. 여기서 말하는 涉海性이란 해양의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류의 인식  
과 파악을 포함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류가 해양으로부터 생성시킨 문명의  
속성도 포함한다. 해양의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파악은 인류  
해양문명 속성의 기초이자 전제로, 이를 떠나 해양문화는 탄생할 수 없을  
뿐더러 해양문화가 될 수도 없다. 해양문명이란 인류와 해양의 상호관계  
중 인류가 행한 해양에 대한 인식, 반응, 이용 및 그 결과이다. 따라서 해  
양에 대한 인류의 감지와 인식과 탐색 과정 및 그 성과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해양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둘째, 해양문화의 운동 메카니즘 측면에서 볼 때, 대외 輻射性과 교류성  
을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곧 異質 문화 간 해양을 뛰어넘는 聯動性  
과 互動性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해양문화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다. 해양문화의 자연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해양에 대한 인류의 인  
식과 이용으로 말미암아, 해양문화란 총체적으로 한 지역에 국한된 한 지  
역의 문화일 수 없다. 문화의 전파와 재전파의 과정은 지역의 토종문화에  
각기 다른 영향을 끼쳐 적건 많건 지역의 이질적 문화의 요소를 수용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聯動性이다. 동시에 사통팔달의 이역에서 토종문화  
가 해양문화와의 연동으로 인해 ‘잡종(Hybrid)’이 탄생한다. 이 ‘잡종  
문화’도 또한 사통팔달한 이역의 ‘토종’으로부터 해류와 선박을 타고  
되돌아 전파되어 와 이 곳의 ‘토종’ (혹은 이미 원래 의미의 ‘토종’ 과  
는 상이해 진)에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잡종’ 또는 새로운 ‘잡종’의  
탄생을 일컬어 互動性이라 한다.

44)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50.

셋째, 해양문화의 역사적 형태로부터 개방성과 모험성(Venturism)을 들 수 있다. 해양은 6대주의 육지와 크고 작은 섬들과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대다수 민족과 국가와 지역은 해양에 면해 있다. 해양은 인류를 향해 남김없이 개방되어 있다. 해양을 향한 개방은 필연적으로 외연확장을 가져 오고 아울러 그러한 확장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여긴다. 그 확장성은 경제 활동 범위의 확장, 생활자료 소스의 확장, 상업무역 시장의 확장, 인문정신 영향력의 확장 및 인류 거주 공간 환경의 확장 등을 포함한다. 45)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해양문화론의 논의들은 대부분 엄밀하거나 완벽하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양문화의 본질에 천착해 들어가고 있어, 한 단계 높은 논의를 위해 대단히 유의미한 참조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서, 해양문화의 특징 속에 함의된 ‘해양성’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문화는 인류와 해양의 상호관계 중 인류가 행한 해양에 대한 인식, 반응과 이용을 통한 산물이다. 해양문화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을 통해 문화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했다. 해양문화와 토종문화의 연동과 호동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이질적인 문화가 상호 보완하고 해양문화가 변화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해양문화의 개방성과 모험성을 통한 외연확장에는 경제활동 범위의 확장, 생활자료 소스의 확장, 상업무역 시장의 확장, 인문정신 영향력의 확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차원의 해양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西洋記』속 항해의 이동경로, 세계관, 모험, 조공품, 다양한 바다체험 등을 ‘해양성’의 특징으로 포함해 함께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필자가 설정한 범주에서 ‘해양성’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 1.4 논문의 구성

『西洋記』는 100회의 장회 소설로 明·萬曆 26 戊戌(1598)년에 출판되었다. 작품은 鄭和의 전반적 통솔 하에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의 조력 하에 서양 異國과

---

45)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p.53-58 참고.

교류와 교역을 하며 전국옥새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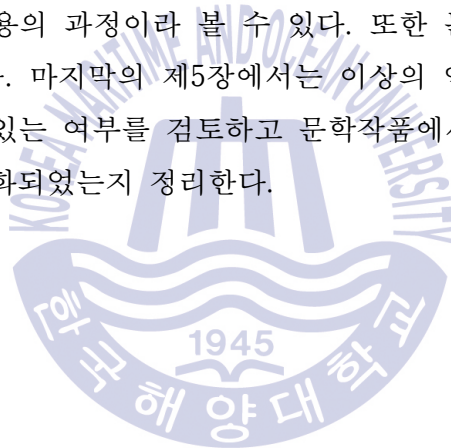
작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西洋記』의 제1회부터 7회까지는 金碧峰장로의 등장, 제8회부터 14회까지는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의 신통력 겨루기, 제15회부터 18회까지는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과 병사를 모집하여 출항을 준비하는 과정, 19회부터 98회까지는 鄭和가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의 법력과 신통력에 의존하여 서양 이국과 교류하며 전국옥새를 찾으러 가는 과정, 99회부터 100회까지는 鄭和가 明 나라로 귀향하는 것과 서양 제국에서 조공한 토산품과 보물을 황제께 바치고 황제가 진상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주요인물의 등장과 출항 전후, 항해하는 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작품 속 40여 개 서양 제국으로 항해하는 과정과 사건들을 통해 ‘해양성’의 요소들을 추출해 본다.

본고는 작품의 내용을 제1자료로 하고, 기타 『明史』와 몇 가지의 기행문을 제2자료로 활용하고 기존의 연구논문들을 참고자료로 삼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 논문의 연구 목적을 명시하고 한국과 중국의 해양문화 개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해양성’의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西洋記』를 ‘해양성’의 특징으로 섭해성, 교류성, 모험성 등의 범주에서 해양소설로 가정하여 연구를 시도해 본다. 제2장에서 작가의 생애와 작품 완성의 시대배경을 통해 작품 속 작가의 우환의식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서양항해를 전반적으로 통술하고 있는 鄭和와 원정의 진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조력자로 등장한 金碧峰과 張天師에 대한 인물분석을 한다. 주인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바다의 영향을 받고 일어난 심리변화와 처신술에 대해 알아보고 인간이 처음으로 해양과 접하면서 바다와 익숙해가는 과정에서 조화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西洋記』에서 작가의 인식 속 서양에 대한 범주와 서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양을 향한 이동항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에서 나타난 ‘해양성’을 도출해 본다. 그리고 작품 속 작가는 서양 제국을 실존공간과 가상공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작가의 서술의도를 연구해 본다. 제4장에서는 서양으로

의 출정 동인을 제시하고 옥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서양 출정을 위한 출항전의 준비와 선박의 건조에서 인류가 바다를 통해 이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 배의 중요성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涉海性을 통한 새로운 해양문화의 탄생과 파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개방된 바다를 개척하는 것과 모험을 통한 성공이야기를 논하는 것으로 처음 바다를 접해본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의 모순된 심리를 살펴본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공한 바다 공간은 사람들의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을 자극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성공과 희열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바다에 대한 탐험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해상의 조공교역과 교류를 통해 明이 서양의 제국에서 바쳐온 진상품의 의미나 생산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문물교환의 과정은 일종의 문화전파와 수용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한 互動이라 볼 수도 있다. 마지막의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西洋記』를 해양소설로 볼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고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해양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형상화되었는지 정리한다.



## 제 2 장 『西洋記』의 작가와 작품

### 2.1 작품의 시대적 배경

『西洋記』는 明 萬曆26 戊戌인 1597년에 처음으로 출판됐다. 그 후 民國시기 까지 여러 차례 판각되었는데 각 시기별 출판 상황을 홍상훈의 서술<sup>46)</sup>에 근거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明 ~ 中華民國 시기의 주요 판본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참고사항
『新刻全像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南京, 富春堂?	萬曆25(1597)	二南里人序(1598)
『新繡全像三寶開港西洋記』	廈門, 文德堂	咸豐9(1859)	120회
『全像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步月樓	?	萬曆本 復刻本
『新刻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申報館	光緒7(1881)	鉛印
『新刻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申報館	光緒17(1891)	鉛印
『圖像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上海書局	光緒22(1896)	石印
『圖像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上海, 文宜書局	光緒27(1901)	石印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上海, 中原書局	?	石印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商務印書館	?	鉛印

위의 도표에 나와 있듯이 『西洋記』는 明나라 시기부터 中華民國까지 끊임없이 출판했다. 본 논문에서는 光緒 7(1881)년 申報館에서 출판된 판본을 底本<sup>47)</sup>으로 하며 1985년 中華書局에서 다시 교감해서 출판한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를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기로 한다.

明 나라 이전 조정에서의 인쇄와 민간에서의 인쇄와 출판이 주요 형식이었

46) 홍상훈, 「중화(中華)의 자족적 나들이」, 『中國小說研究會報』,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순천, pp.95-96.

47) 羅懋登, 위의 책, p.18.

다. 그러나 민간인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제와 제압을 받았다. 嘉靖 이전 민간출판업은 아주 처참했지만 嘉靖 시기에 『西遊記』와 『封神演義』 등 通俗小說의 출판과 함께 민간의 神魔通俗小說은 사람들의 열광을 받았다.<sup>48)</sup>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西洋記』에서 다루고 있는 神魔 부분에 대한 과장된 묘사수법은 당시 사회의 수요와 영리의 영향 하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는 明 神宗 朱翊鈞이 재위하던 시기다. 神宗(1563-1620년)은 明 나라의 13번째 황제이다. 隆慶六年(1572년), 선황 穆宗이 귀천하여 10살의 神宗이 왕위를 물려받고 국호를 萬曆으로 정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모친인 李太后에 의존했다. 또한 明 나라 宣德 시기부터 內閣과 司禮監 두 기관이 함께 조정을 보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알고 있는 李太后는 스스로의 心腹을 이 두 기관에 안배했다. 이는 江山을 지키기 위한 것과 황제의 보좌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李太后는 환관인 馮保<sup>49)</sup>를 司禮監掌印太監으로 임명하고, 顧命大臣 張居正<sup>50)</sup>을 內閣首府로 임명했다. 조정을 집권하고 있는 張居正은 李太后의 지지 하에 일련의 개혁방안을 실시했고 이로써 萬曆 초기, 나라의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張居正은 새로운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神宗에 대한 교육도 소홀하지 않았다. 과거 멸망한 나라들의 역사를 교훈으로 神宗에게 ‘富國強兵’의 치권사상을 주입시켰다.

1580년 神宗이 18세 되던 해에 혼례와 耕藉를 치렀다. 이러한 의례를 진행했다는 것은 神宗이 스스로 조정을 장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때문에 張居正은 神宗을 보좌하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으로 귀향하려 했다. 그러나 李太后가 그를 만류했다.

48) 劉香玉, 『『西洋記』研究』, 首都師範大學 석사논문, 2009, 北京, p.37.

49) 馮保(1543-1583년)의 號는 雙林, 眞定府深州(오늘날의 河北省) 출신, 거문고와 독서를 즐기고 유가를 숭배했다.

50) 張居正(1525-1582년)의 號는 太岳, 湖北江陵 출신, 隆慶六年(1572년)에 內閣首府에 임명되고 10년 동안 집권했다.



“그대(神宗)가 장 선생(張居正)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각종 典禮를 거행하긴 했지만 안팎의 모든 政務를 그대가 아직 결정할 능력이 없고, 변방의 일은 더욱 중요하오. 장 선생께서는 先皇의 위탁을 몸소 받으셨거늘 어찌 차마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소! 그러니 그대가 서른 살까지 보좌한 연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이후로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오.(與張先生說, 各大典禮雖是修舉, 內外一應政務, 爾(指神宗) 尙未能裁扶, 邊事尤爲緊要. 張先生親受先帝托付, 豈忍言去! 待輔爾到三十歲, 那時再作商量. 先生今後不必興此念.)” 51)

여기서 李太后가 張居正을 아주 신임하는 반면 神宗이 스스로 조정을 다스리는 것에 아직 우려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張居正의 개혁방안이 순차적으로 일일이 실행되면서 萬曆 초기의 경제는 큰 활력을 띠었다.

1582년 6월 張居正이 사망한 후 明나라는 커다란 변동을 겪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조정의 실권이 張居正과 李太后의 손안에 쥐어 있었고, 神宗은 황제의 명분만 있지 실권이 없는 꼭두각시로 계속 이어왔다. 天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일에 제한을 받아온 神宗은 쌓인 불만이 끝내 폭발했다. 군주의 權威 회복과 실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관료들을 파면하기 시작했다. 우선 司禮監掌印 太監 馮保의 관직을 파면하고 南京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張居正의 죄를 만들고 천하에 알리는 한편 생전의 관직을 파면하고 재산을 압수하는 동시에, 추진해온 모든 개혁방안들을 금지시켰다. 考成法<sup>52)</sup>이 취소됐고, ‘官員이 임의로 公文을 전달하는 말을 탈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과거에 파면된 관원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등등이 있었다.<sup>53)</sup> 神宗은 張居正이 생전에 개혁해온 조정의 모든 新政들을 뒤엎으면서 일련의 폭행을 진행했다. 그의 난폭함으로 활기찬 萬曆년 초기의 광경이 점점 사라지고 국정과 백성이 苦海에

51) 張廷玉, 위의 책, 本世紀第二十一 神宗一.

52) 考成法: 관료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萬曆 원년(1573)부터 실시되었다. 관료가 上奏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은 사안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여 일의 완급, 거리의 원근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집행여부를 책으로 만들어 매달 보고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총결을 지어 지연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하여 책임 추궁할 뿐만 아니라 근무평가에 반영하였다.

53) 林延濤, 「李太后與張居正改革」, 『南開學報』 第五期, 2005, 天津, p.59.

빠져들었다. 『明史』에 기재된 몇 가지 기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해 보자.

① 萬曆14년(1586), 萬曆帝는 酒色에 빠졌다. 萬曆 10년(1582), 민간에서 妃嬪의 선출을 거대하게 진행했다. 神宗은 여색에 빠져드는 동시에 어린 환관을 희롱했다. 당시 宮 중에서 인물이 말쑥한 10명의 환관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황제 앞에서 시중을 들거나 성은을 입어 황제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 이들을 ‘十俊’이라 불렀다(萬曆十四年(1586), 萬曆帝開始沈湎於酒色之中. 萬曆十年(1582), 在民間大選嬪妃, 神宗沈湎於女色的同時, 還玩弄小太監. 當時宮中有十個長得很俊的太監, 就是專門“給事禦前, 或承恩與上同臥起”, 號稱‘十俊’.)<sup>54)</sup>

② 神宗은 재물에 욕심이 아주 많았고, 스스로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馮保와 張居正의 재산을 압수하고 태감 張誠을 시켜 모든 재물을 자신의 宮殿으로 옮겨 스스로 지배했다. 萬曆 24년(1596), 神宗은 처음으로 환관에게 通州에서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각 省에 모두 세금을 징수하는 稅使를 두었다(神宗十分貪財, 自他親政以後, 查抄了馮保, 張居正的家產, 就命太監張誠全部搬入宮中, 歸自己支配. 萬曆二十四年(1596), 神宗始命中官權稅通州. 是後, 各省皆設稅使.)<sup>55)</sup>

③ 그는 재물을 강탈하기 위하여 환관을 광산으로 파견하여 감시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다(爲了掠奪錢材, 他派出宦官擔任礦監稅使, 四處收刮民材.)<sup>56)</sup>

④ (『明史』에 따르면) 萬曆 40년(1612)에 황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政務에 태만하여 내각에서는 “인재가 관직에 정채되고”, “하위 부서에 담당자가 빈 곳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 해에는 三省을 비롯한 중앙 부서가 텅 비어서 여러 업무들이 지체되거나 무산되었지만, 황제는 20년이 넘게 內宮에 틀어박힌 채 대신과 한 번도 接見하지 않으니, 천하는 장차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萬曆四十年(1612), 萬曆帝怠政已許多年, 於是內閣出現了“人滯於官”, “曹署多空”的現象. 萬曆四十年, 臺省空虛, 諸務廢墮, 上深居二十餘年, 未嘗一接見大臣, 天下將有陸沈之憂.)<sup>57)</sup>

54) 閻崇年, 『明亡清興十六年』第二講: ‘萬曆怠政’, 央視網, 2006.

55) 張廷玉, 위의 책, 本世紀第二十一 神宗一.

56) 孫景峰·李金玉, 『正說明朝三百年』, 明神宗朱翊鈞51,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5, 北京.

57) 張廷玉, 위의 책, 本世紀第二十一 神宗二.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萬曆 초년에 張居正이 조정에서 집권하면서 일련의 새로운 개혁을 진행할 때는 나라는 안정됐고 경제가 한 때 활기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張居正이 사망하자 神宗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모든 개혁을 중지시키고, 스스로를 중심으로 임의로 구조 조정을 하여 나라를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했다. 그리고 자료①은 과거 억압에 대한 ‘反抗’으로 초기에는 酒色을 탐하다가 나중에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자료④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20년이 넘게 조정의 일에 손을 놓고 있었다. 자료②와 ③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심한 해에 대신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환관들을 사방으로 흩어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징수하라고 시켰다. 조정에 대한 방치와 백성들에게 가혹한 강제 세금 징수는 대신들의 신임을 접어버렸고 민심을 잃게 되었다. 때문에 神宗은 명나라의 망국을 자초한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神宗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江陵(張居正의 고향으로 곧 張居正을 가리킨다)이 朝政의 일을 맡으면서 명분과 실질을 잘 살피서 나라가 거의 富強 해졌다. 그런데 이후에 (神宗이) 경솔하게 견제하고 深宮에 편안히 틀어박혀 있음으로 인해 기강이 피폐하고 해이해지고 군주와 신하 사이의 소통이 끊어졌다. 이에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소인배가 설치면서 명예와 절의가 있는 人士들과 원수가 되어 여러 파벌로 나뉘어 대립했다. 점차적으로 熹宗과 思宗에 이르게 되자 간사한 당파가 만연했다. 조정의 정직한 부류들은 深謀遠慮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주요 인물들을 휘방하여 없애고자 하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비방했다. 이로 인해 황제의 마음에 의심이 쌓여 현량한 인재와 간신을 뒤섞어 등용함으로써 조정이 무너지고 분열되어 구제불능의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들은 명나라가 망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종 때라고 하니,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神宗沖齡踐阼, 江陵秉政, 綜核名實, 國勢幾於富強. 繼乃因循牽制, 晏處深宮, 綱紀廢弛, 君臣否隔. 於是小人好權趨利者馳騫追逐, 與名節之士爲仇讎, 門護紛然角立. 馴至愆愆, 邪黨滋蔓. 在廷正類無深識遠慮以折其機牙, 而不勝忿激, 交相攻訐. 以致人主蓄疑, 賢奸雜用, 潰敗抉裂, 不可振救. 故論者謂明之亡, 實亡於神宗, 豈不諒歟.)<sup>58)</sup>

58) 張廷玉, 위의 책, 本世紀第二十一 神宗二.

현실을 통찰하고 있는 작가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작품에 담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다. 이러한 사회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작가가 작품 속 인물의 설정과 서양에 대한 상황이나 사정을 실제 상황과 다르게 묘사한 원인을 알 수 있다.

## 2.2 작가의 생애 및 시대의식

### 2.2.1 생애

작품의 작가 羅懋登의 생애와 출생지에 대한 연구는 上海古籍出版社에서 1985년에 간행한 『西洋記』의 서문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서문에 기재된 ‘二南里人羅懋登’이라는 서명을 근거로, ‘二南里人’은 작가의 號이고 자는 登之이며, 萬曆 연간에 활동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59)</sup> 黃文暘은 『曲海總目提要』에서 ‘二南’이라는 지역성을 띄고 있는 단어를 통해 작가가 山西사람이라 추정하고 있지만, 向達<sup>60)</sup>은 『西洋記』 속의 방언 분석을 통해 작가가 南京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sup>61)</sup> 그러나 최근 上海海事大學 鄭和研究中心<sup>62)</sup>의 鄭閏은 道光 丙午(1846)년에 재판한 豫章堂 羅氏의 『羅氏宗譜』 제4권에서 작가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다. 이 족보에는 작가가 江西 東部 撫河上游의 南城縣 南城村의 사람이고 號는 ‘行隱四郎’으로 明 正德 丁丑 正月 14일 午時, 즉 1517년 2월 4일에 태어났다(該宗譜稱其為江西省東部撫河上游的南城縣南源村人, 另有一個號為‘行隱四郎’, 出生於‘明正德丁丑正月十四午時’, 即1517年2月4日.)<sup>63)</sup>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작가가 『西洋記』의 서문에서 사용한 號 ‘二南里人’이 그의 고향 이름에서 나타난 두 개의 ‘南’자와 맞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羅懋登, 위의 책, p.6.

60) 向達(1900-1966)은 湖南 溆浦 사람이다. 字는 覺明이고 필명은 方回, 佛陀耶舍이며 민족은 土家族이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燉煌학자, 中外交通史 전문가다.

61) 劉香玉, 「‘西洋記’研究」, 首都師範大學校 석사논문, 2009, 北京, p.10.

62) 上海海事大學, 上海交通大學, 華東師範大學, 上海大學과 上海政法學院 등 다섯 대학이 함께 2006년 7월 10일에 上海海事大學에 “上海鄭和研究中心”을 설립했음.

63) 道光丙午年(1846年)重修『羅氏宗譜』, 姚吉福堂刊本(鄒振環, 「‘西洋記’的刊刻與明清海防危機中的‘鄭和記憶’」, 安徽大學學報第3期, 2011, 安徽, p.12 재인용)

그리고, 羅懋登은 戲劇 『搜神記』 서문의 끝에 “登之甫羅懋登” 라고 서명을 했고 “二南里人” 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서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4)</sup> 서문에서 작가의 생활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인다.

나는 못나서 먹고살기 위해 북쪽으로는 燕關까지 올라가고 동쪽으로 趨魯를 탐방하고, 서쪽으로는 齊梁을 다녀왔으며, 남쪽으로 吳楚와 甌越까지 내려갔다. 그 사이에 신령한 지역들의 성대하고 험준한 기세를 모두 느껴서 빠짐없이 헤아린다. 萬曆 癸巳(1953)에 陪京(즉 南京)으로 와서 책을 읽고 수정하는 일을 하다가 三山富春堂에서 『搜神記』를 얻었다.

(登不肖, 走衣食嘗溯燕關, 探鄒魯, 遊齊梁, 下吳楚甌越之區, 中間靈疆神界磅礪谿衲, 靡不領略, 而悉數之, 歲萬曆紀元之癸巳, 來止陪京爲批閱書記, 得『搜神記』於三山富春堂.)<sup>65)</sup>

여기서 羅懋登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쪽으로는 燕關<sup>66)</sup>, 남쪽으로는 吳楚<sup>67)</sup>와 甌越<sup>68)</sup>, 동쪽으로는 鄒魯<sup>69)</sup>, 서쪽으로는 齊梁<sup>70)</sup>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본다. 또한 사방을 다니면서 현지의 풍모와 민간이야기를 많이 수집했다. 이 모든 경험은 후에 『西洋記』를 저술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작가는 萬曆 21년, 즉 1593년에 南京으로 갔다는 서술에서 『西洋記』를 萬曆 21년에서 萬曆 25사이에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작가는 萬曆 丁酉歲(1597년)에 『西洋記』의 서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여든 세였다. 일부 학자는 연로한 작가 한 사람이 이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공

64) 張火慶, 「三寶太監下西洋記研究」, 東吳大學中研所 박사논문, 1992, 臺灣, p.387. (劉香玉, 「『西洋記』研究」, 首都師範大學 석사논문, 2009, 北京, p.11 재인용)

65) 金陵唐氏富春堂六卷本 『新刻出像增補搜神記』, 國家圖書館文獻縮微中心藏, 1986.

66) 燕關: 오늘의 山海關을 가리킴.

67) 吳楚: 吳는 오늘의 江蘇 蘇州를 가리키고 楚는 오늘의 湖南과 湖北 일대를 가리킴.

68) 甌越: 오늘의 溫州, 臺州, 麗水 일대를 가리킴.

69) 鄒魯: 오늘의 濟寧의 鄒城市와 曲阜市의 통칭을 가리킴.

70) 齊梁: 오늘의 江蘇 常州 서북과 江蘇 丹陽 동북 일대를 가리킴.

동저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sup>71)</sup>도 있다.

작가는 『香山記』의 서문을 적었고 『投筆記』에 注釋을 붙였으며, 『西廂記』, 『拜月庭』, 『琵琶記』에 音釋을 달았다. 작품 『西洋記』는 작가의 가장 저명한 작품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작가의 출생과 원적에 대한 연구는 보다 구체화 되었고 『搜神記』의 서문을 통해 작가는 사방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사방을 떠돌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분석한다. 이러한 소재들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려는 글을 적으려 했다. 그러나 작품 속 실제 상황은 이러한 생각과 거리가 너무 멀다. 이는 작가도 현실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현실을 폭로할 수 없었던 한계라고 본다. 하지만 작품의 구석구석에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 수법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일깨우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본다.

羅懋登의 생애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2> 羅懋登의 생애

년도(년)	나이(만/세)	사건
1517.2.4	출생	江西 東部 撫河上游의 南城縣 南城村에서 태어남
1593	76	南京으로 와서 三山富春堂에서 『搜神記』를 받음
1593-1597	76-80	『西洋記』 집필
1597	80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서문 작성
1598	81	『香山記』의 서문을 적음

羅懋登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단, 羅懋登이 南京으로 간 후에 남겨놓은 작품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다.

## 2.2.2 시대의식

71) 홍상훈은 『西洋記』를 번역하면서 내용으로 보아 공동저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羅懋登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방의 여러 지역을 떠돌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가는 각 지역의 사람과 접촉하면서 현지의 풍속, 민간의 생활환경과 민간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소재들이 후에 작가가 『西洋記』를 만들 수 있었던 기반이라 본다.

작가가 살던 시기는 萬曆 시기, 神宗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고 內閣首府 張居正에 의지해 조정을 다스렸다. 張居正의 도움으로 萬曆 초기에 경제가 활력을 띄었고 국가도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張居正이 죽자마자, 神宗은 張居正이 생전에 실시해 왔던 모든 정책을 중단시키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갖 심혈을 쏟았다. 그렇지만 文官들의 반대와 방해로 저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날로 심해져 가자 神宗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점점 흥미를 잃고 조정에 손을 놓기 시작했다. “萬曆 40년(1612년), 황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政務에 태만하여 내각에서는 ‘인재가 관직에 정채되고’, ‘하위 부서에 담당자가 빈 곳이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萬曆四十年萬曆帝怠政已許多年, 於是內閣出現了“人滯於官”“曹署多空”的現象).”<sup>72)</sup> 또한 밖으로는 상황이 아래와 같다.

“萬曆 20년(1592년)은 일본의 야심가 豐臣秀吉이 조선 원정에 나선 해였다. 豐臣秀吉은 ‘곧바로 大明國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4백여 주에 바꾸어 놓고, 帝都의 정치교화를 억만년토록 시행하고자’ 했다. 21년(1593년) 정월 李如松은 碧蹄館에서 패배했고, 23년(1595년) 3월에는 楊鎬가 조선의 군무를 관리했다. 조선이 함락되면 北京이 뒤흔들리게 되기에 평소 빈둥빈둥 놀고먹고, 방관자처럼 무책임한 말을 즐겨하던 관료들도 의론을 시작했다…… 당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당국의 관리들 대부분이 나약하고 무능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품어온 속마음을 털어 놓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드러내고자’ 이 책을 짓고 당국자를 풍자했다.”

(萬曆二十年的時候, 正是那日本大野心家豐臣秀吉遠征朝鮮, 想“一超直入大明國, 易吾朝風俗於四百余州, 施帝都政化於億萬斯年”. 二十一年正月李如松敗於碧蹄館; 二十三年三月以楊鎬經略朝鮮軍務. 朝鮮有失, 則北京震動,

72) 張廷玉, 위의 책, 本世紀第二十一 神宗二.



一般吃閑飯而愛說風涼話的官兒們，便議論起來了……大約也是眼見當時國事危急，而當局的人又多是柔弱無能。於是“攄懷古之蓄念，發思古之幽情”，作爲此書，以諷喻當局。)<sup>73)</sup>

羅懋登은 심각한 倭患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꼈고, 집권당국이 倭患에 대응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鄭和의 서양원정을 연의의 형식으로 만든 것은 집권자가 과거의 영웅업적을 통해 자아격려하고 나라의 권위를 다시 일으킬 것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鄭和나 王景弘과 같은 장수가 다시 나타나 바다를 정복하고 倭患을 소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 분노와 희망은 어느 정도 당시 사람들의 사상정서와 염원을 반영했고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sup>74)</sup> 萬曆 시기에는 안으로 조정은 혼란 상태에 있었고 밖으로 이민족의 침범으로 內憂外患의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러한 나라의 실제 상황을 통찰하고 있는 작가는 작품의 서문에서 “오늘날 동쪽의 일이 촉박하니 어찌 서역의 이적들이 곧장 귀순했던 것과 같겠는가? 서역의 이적들이 귀순했던 때에 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王景弘과 鄭和 두 분께서 지금 일을 담당한 이들을 보셨을 때 오히려 오래도록 하는 일 없이 안일하게 지낸 것을 개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今日東事倥傯，何如西戎即序，不得比西戎即序，何可令王，鄭二公見，當事者尚興撫髀之思乎!)”<sup>75)</sup>라고 나라의 現 상황에 대한 근심과 문제점들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야 할 희망을 강조하는 애국사상이 들어 있다.

俞樾<sup>76)</sup>은 “嘉靖 이후 오랑캐의 침범이 심각하여 이 책을 지어서 옛날을 그리고 현재를 상심하는 뜻을 담고, 시대에 현재의 상황을 염려하는 마음을 토로했다(蓋以嘉靖以後，倭患方殷，故作此書，寓思古傷今之意，抒憂時感事之忱。)”<sup>77)</sup>고 평가했다. 向達은 “당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당국의 관리들

73) 羅懋登, 위의 책, p.1294.

74) 羅懋登, 위의 책, p.12.

75) 羅懋登, 위위 책, pp.19-20.

76) 俞樾(1821-1907)의 字는 蔭甫이고 浙江 德清城關鄉 南埭村 (현재 : 乾元鎮 金火村이다.)에서 태어났다. 淸 말 저명한 학자로 문학자, 경제학자, 고문자학자, 서예가이다.

77) 羅懋登, 위의 책, 부록1, p.1289.

대부분이 나약하고 무능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품어온 속마음을 털어 놓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드러내고자’ 이 책을 짓고 당국자를 풍자했다.(眼見當時國事危急，而當局的人又多是柔弱無能，於是‘攄懷舊之蓄念，發思古之幽情，作爲此書，以諷諭當局。’) 78)고 평가했다. 趙景沈은 “魯迅과 向覺明(즉 向達)은 모두 羅懋登의 서문을 근거로 오랑캐의 침범이 심각한 당시 나약하고 무능한 당국을 보았기 때문에 『西洋記』를 지어서 당국을 풍자했다고 단정했는데, 이 말은 당연히 믿을 만하다.(魯迅和向覺明都是據羅懋登的序文，斷定他是眼見倭患甚殷，當局柔弱無能，才寫出『西洋記』來，以諷諭當局：這話當然可信。)” 79)고 평가를 했다.

작가는 明 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인 永樂帝 시기에 鄭和의 서양원정을 작품의 줄거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작가가 처해있던 시기와 다소 대비가 된다. 작가가 처해있던 시기는 이미 內憂外患으로 나라가 아주 쇠약했고, 永樂帝 시기는 경제가 활발하고 군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서양과의 교류와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다. 작가가 시기, 인물과 작품 줄거리를 역사와 엮으며 변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생각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 鄭和의 영웅적인 사실을 들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현실에 직면하여 구국운동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데 있다. 둘째, 永樂帝 시기의 강대함을 현실상황과 대조하면서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민족에 저항하려면 우선 明의 내부를 재정비하여 강대하게 부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이 완성된 시기는 鄭和의 서양원정과 200년 가까이 시간차를 두고 있고 이때는 해양정책이 날로 보수화되어 가는 시기이다. 成化 연간에는 해양 관념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鄭和의 항해자료를 모두 소멸했다.<sup>80)</sup> 이러한 상황에서 羅懋登이 演義의 형식으로 바다를 다시 언급한 것은 중화민족의 바다를 정복하려는 용감한 정신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외탐험을 인정하고 이역과 異物을 이해하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sup>81)</sup> 셋째, 바다는 明 나라와 세계를 연결하

78) 羅懋登, 위의 책, 부록2, p.1294.

79) 羅懋登, 위의 책, 부록3, p.1299.

80) [明]嚴從簡, 『殊域周咨錄』, 中華書局, 2000, 北京, p.307 참조.

81) 唐琰, 「海洋迷思—‘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與‘鏡花園’海洋觀念的比較研究」, 『

는 통로이고 해금은 세계와 격리되는 상황이므로 바다로 눈을 돌리려는 시도에서 해양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작가는 일개 문인이지만 나라의 현실 상황을 통찰하고 있다. 작품은 허구이긴 하나 당시 사회의 거울이기도 하다. 羅懋登은 풍부한 내용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현실 상황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작가는 한동안 잊고 있던 鄭和의 업적을 작품으로 재구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鄭和에 대한 추억을 되찾게 하고 있다. 나라가 內憂外患의 시점에서 鄭和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강대했던 시기를 現 상황에 대비시켜 나라를 다시 바로세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다.

## 2.3 인물 분석

작품 속 鄭和는 서양원정을 전반적으로 통솔하고 있고, 張天師와 金碧峰 장로는 조력자의 역할로 등장한다. 주인공을 포함한 서양을 향한 모든 사람들은 바다루트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한다. 사람과 바다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따라서 바다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며, 결국 바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가 해양과의 교섭에 의거해 창조한 문화, 즉 涉海性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涉海性이란 해양의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파악을 포함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류가 해양으로부터 생성시킨 문명의 속성도 포함한다. 해양의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파악은 인류해양문명 속성의 기초이자 전제로, 이를 떠나 해양문화는 탄생할 수 없을뿐더러 해양문화가 될 수 없다. 해양문명이란 인류와 해양의 상호관계 중 인류가 행한 해양에 대한 인식, 반응, 이용 및 그 결과이다.<sup>82)</sup> 즉 인류를 배제한 바다는 홀로 문화와 문명이 탄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 작품 속 주인공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서양원정의 과정에서 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타당성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주인공들의 심리적 변화와 처신술을 통해 항해 과정

『明清小説研究』, 第1期, 2006, 江蘇, p.172.

82)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53.



에서 반영된 ‘해양성’을 함께 살펴본다.

### 2.3.1 鄭和

明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明史』에서는 鄭和에 대한 묘사가 아주 소략해 단지 ‘雲南人’이라는 기록만 적혀 있다. 이외의 역사 史籍에서도 鄭和의 가족과 출생에 관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초, 袁嘉谷은 永樂 3년(1405)에 禮部尙書左春坊大學士 李至剛이 편저한 『故馬公墓志銘』이라는 鄭和 부친의 묘비를 발굴하여 전편을 『滇釋』에 수록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鄭和와 그의 가문에 대해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묘지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公(鄭和의 아버지를 가리킨다)의 字는 哈只이고 성은 馬씨이며 雲南 昆明 楊州출신이다. 할아버지는 拜顏이고 할머니는 馬氏이다. 아버지는 哈只이고 어머니는 溫氏이다. 公은 장대한 기골을 타고났고 위풍당당하며 자신을 굽혀 남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았다. 누가 잘못하면 면전에서 즉시 훈계하여 숨기지 않는다. 마음씨가 착하여 빈곤에 처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노인들을 늘 보호하고 나눠주면서도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長者라고 칭송했다. 溫氏와 결혼했고, 溫氏는 婦德을 갖추었다.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장남은 文銘이고 차남은 和이다. 그 외에 네 명의 딸도 있다. 和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는데 지금의 황제를 모시면서 鄭氏라는 성을 하사받고 內官監太監이 되었다. 공정하고 부지런하며 겸손하고 치밀하면서 힘든 일을 피하지 않아 관리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다. 아! 자식을 통해 보건대 公이 평소 쌓은 인덕과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친 훌륭한 가정교육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公은 甲申(1344) 12월 9일에 태어나 洪武 壬戌(1382) 7월 3일에 39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장남 文銘은 公의 관을 寶山 響和代村의 들에 안치하여 효도를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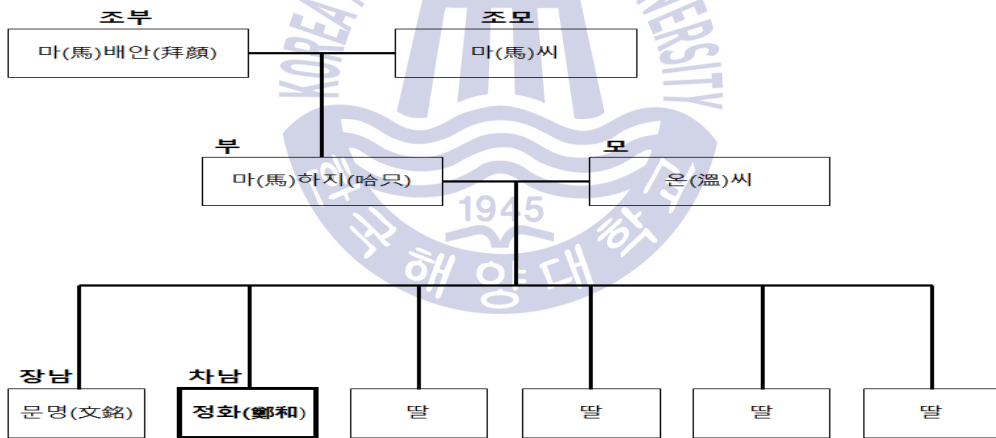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록하노라. 몸은 변방에 있지만 의연히 예의를 배우고 지키며, 평민의 신분이지만 본분을 지키고 德惠를 많이 베풀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아버지가 쌓은 풍성한 덕행 덕분에 아들이 당시에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永樂3年(1405) 端陽日, 資善大夫禮部尙書 겸 左春坊大學士 李至剛 저술.

(公字哈只, 姓馬氏, 是爲雲南昆明揚州人. 祖拜顔, 妣馬氏, 父哈只, 母溫氏, 公生而魁岸奇偉, 風裁凜凜可畏, 不肯枉己附人. 人有過, 輒面斥無隱. 性尤好善, 遇貧困及鰥寡無依者, 恒保護賙給, 未嘗有倦容. 以故, 鄉黨靡不稱公爲長者. 娶溫氏, 有婦德, 子男二人, 長文銘, 次和; 女四人. 和自幼有材智, 事今天子, 賜姓鄭, 爲內官監太監. 公勤明敏, 謙恭謹密, 不避勞勩, 縉紳鹹稱語焉. 嗚! 觀其子而公之積累於平日, 與義方之訓可見矣. 公生於甲申年十二月初九日, 卒於洪武壬戌七月初三日, 享年三十九歲. 長子文銘, 奉柩安昔於寶山鄉和代村之原, 禮也, 銘曰: 身處乎邊陲而服禮義之習, 分安乎民庶而存惠澤之施, 宜其餘慶深長而有子光顯於當時也.

永樂三年(1405年)端陽日, 資善大夫禮部尙書兼左春坊大學士李至剛撰.)<sup>83)</sup>

이상의 기록을 토대로 鄭和의 가계도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鄭和家系圖

이러한 묘사들로부터 鄭和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鄭和의 외모에 대해서 淸 傅維麟은 『明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3) 鄭鶴聲, 鄭一鈞, 『鄭和下西洋資料匯編』 上冊, 齊魯書社, 1980, 濟南, p.8.

鄭和는 洪武 연간에 入宮했다. 살집이 많고 키가 흰칠하며 말솜씨가 뛰어나고 영민하다. 太宗이 즉위하자 司禮太監으로 임명되어 총애를 남다르게 받았다. 두 차례 어명을 받들어 함대를 거느리고 서양으로 나가 여러 오랑캐 나라들을 제후국에 봉함으로써 서남 바닷길을 통하게 하여 조공을 하게 했다. 그의 공로가 혁혁하여 사람들이 그를 삼보태감이라 불렀다.

(鄭和, 洪武中入宮, 豐驅偉貌, 博辯機敏. 太宗即位, 爲司禮太監, 大見寵異. 兩奉敕駕海舶入西洋, 封諸夷國, 通西南海道朝貢, 著有勞績, 人稱爲三寶太監.)<sup>84)</sup>

또한 袁忠徹<sup>85)</sup>은 『古今識鑒』<sup>86)</sup>에서 鄭和의 외모를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내시 鄭和가 바로 三保로 雲南사람이다. 身長은 九尺이고, 허리는 十圍이고, 四岳<sup>87)</sup>이 불룩하고 코는 작았는데, 이와 반대로 생긴 이는 아주 고귀하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귓볼이 볼을 넘고, 치아는 가지런하고 걸음 걸이는 호랑이 같고 목소리는 아주 우렁찼다. 훗날 靖難에서 공을 세워 內官太監으로 승진했다. 永樂帝는 동남 오랑캐와 교통하기를 희망하며 물었다. “삼보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 어떠냐?” 忠徹이 아뢰었다. “삼보는 생김새가 뛰어나고 재능이 출중하며 내시 중에서 비할 사람이 없고, 제가 그 기질과 표정을 살펴보니 참으로 임무를 맡길 만하옵니다.” 마침내 어명을 받아 총독이 되어 길을 떠나니, 가는 곳마다 두려워 굴복했다.

(內侍鄭和, 即三保也, 雲南人. 身長九尺, 腰大十圍, 四嶽峻而鼻小, 法反此者極貴. 眉目分明, 耳白過面, 齒如編貝, 行如虎步, 聲音洪亮, 後以靖難功授內官太監. 永樂欲通東南夷, 上問: “以三保領兵如何?” 忠徹曰: “三保姿貌材智, 內侍中無與比者, 臣察其氣色, 誠可任.” 遂令統督以往. 所至畏服焉

84) 傅維麟, 『明書』, 「宦官·鄭和」, 卷一百五十八.

85) 袁忠徹(1377-1459)은 袁柳庄이라고도 한다. 자는 公達 혹은 靜思이다. 明 鄞縣(오늘의 寧波市 鄞州區)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서 面相을 보는 기술을 배웠다. 朱棣의 신임을 얻어 中書舍人으로 승진했다.

86) 『古今識鑒』은 永樂帝 시기 朱元璋 및 여러 대신을 포함한 사람의 면상에 대한 묘사를 기록한 서적이다. 이 중에 鄭和의 용모에 대한 묘사도 있다.

87) 四岳은 중국의 4대 聖山을 얼굴에 비유한 것으로 이마는 衡山에, 왼쪽 볼은 泰山에, 오른쪽 볼은 華山에, 턱은 恒山에 비유했다.

).88)

鄭和는 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능도 출중하여 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 때문에 사람들의 존중과 지지를 한 몸에 안고 총독을 맡아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 속에서 鄭和가 일곱 번이나 서양을 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항해 뿐만 아니라 외교에서의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 鄭和가 서양으로 가는 도중에 어려움에 당면할 때 취하는 태도와 해결방법은 역사 속의 鄭和와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는 역사가 문학이 아니듯 소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당한 결과이다. 『西洋記』는 鄭和를 모티프로 재구성된 허구의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 속의 인물로서 鄭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작품 속 鄭和를 분석함으로써 인물성격적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의 제15회에서부터 鄭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작중 인물중 하나인 誠意伯은 그의 용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저는 천문과 지리를 살필 줄 알아서 인간 세계의 복과 재앙, 과거와 미래를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관상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몸의 下停이 길어서 틀림없이 재상으로서 군왕을 보좌할 것이고, 서민으로 태어났다면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 관상이옵니다. 그리고 얼굴은 넓고 턱이 곱혔으니 石崇처럼 千乘의 부를 누릴 것이요. 호랑이 같은 頭狀에 제비 같은 볼을 가졌으니 班超처럼 만 리의 封土를 다스릴 제후에 봉해질 관상이옵니다. 또 눈동자는 위아래가 반듯하고 길며 입은 크고 깊으니 千鐘의 봉록을 받을 관상이요, 무쇠 같은 얼굴 피부에 칼날처럼 곧은 눈썹을 가졌으니 만 리의 兵權을 쥐고 흔들 관상이옵니다. 안색을 보건대 三陽 즉 눈에서 밧그레한 빛이 나니 평생 재산이 넉넉할 것이요. 高廣 즉, 이마에 누르스름한 기운이 피어나니 틀림없이 열흘 안에 벼슬길에서 승진할 운세이옵니다.” 89)

88) 袁忠徹, 『古今識鑒』, 卷八 太監.

89) 홍상훈, 위의 책, p.215.

(“臣觀天文，察地理，知人間禍福，通過去未來。臣觀此人，若論他的身材，正是下停短兮上停長，必爲宰相侍君王；若是庶人生得此，金珠財寶滿倉箱。若論他的面部，正是面闊風頤，石崇擅千乘之富；虎頭燕頤，班超封萬裏之候。又且是河目海口，食祿千鐘，鐵面劍眉，兵權萬裏。若論他的氣色，紅光橫自三陽，一生中須知財旺；黃氣發從高廣，旬日內必定遷官。”)<sup>90)</sup>

작품 속에서 鄭和가 서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도 아니고 永樂帝의 신임을 받아서 가게 된 것은 더구나 아니었다. 이는 흠찬감이 한밤중에 천문을 관측하여 서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황제의 측근에 있다고 보고를 했고 誠意伯의 추천 하에 鄭和는 정서대원수의 신분으로 서양으로 떠나도록 어명을 받았을 뿐이다.

작품 속 내용에 따르면 대신들이 황제에게 鄭和의 상황을 보고하기 전 황제는 鄭和에 대해 잘 알지 못할뿐더러 鄭和가 나이가 많다고 꺼려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왜 태감내시가 됐는지에 대해 의심하기조차 했다. 誠意伯의 설명 끝에 황제는 鄭和를 정서대원수로 임명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덜 들어서 국사인 金碧峰한테 鄭和를 서양으로 보내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물어볼 정도였다. 그러자 金碧峰은 鄭和는 하늘나라 은하수에 살던 두꺼비가 환생한 몸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높은 산이나 육로를 좋아하지 않지만 물만 보면 자기 집처럼 여기고 있어 바다 건너 서양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誠意伯과 金碧峰 장로는 모두 천문관측과 鄭和의 관상을 통해 정서대원수로 적합하다고 황제에게 추천을 한다. 이는 鄭和의 지략과 공적을 배제한 하늘의 뜻을 따른 天命追崇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작품 속 鄭和를 다중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서술하고 있다. 때로는 나약하고 겁이 많은 성격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鄭和 성격은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나게 서술되기도 했다.

鄭和가 작품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황제한테 “폐하의 크나큰 복에 힘입어 진정으로 바다에 나가 공을 세우고 만 리

90) 羅懋登, 위의 책, p.193.

천하에 위세를 떨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인은 대원수의 직책을 맡아서 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91)라고 다짐을 하고 서양으로 떠나게 된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선 겹부터 먹는다.

명을 떠나 처음으로 겪은 난관은 제19회 白龍江에 이르렀을 때였는데 거센 바람에 파도가 일어나서 배들이 뒤집힐 위험에 처해 있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鄭和는 겹부터 먹는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강이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극히 일상적인 일이지만 鄭和가 아주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본 경험이 없거나 상식의 결핍이라 할 수 있다.

출항하기 전 金碧峰은 황제께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사이에 軟水洋과 吸鐵嶺을 건너야만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軟水洋은 말 그대로 물은 연약하여 거위 깃털도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버리고 부평초 하나도 떠 있을 수 없다. 吸鐵嶺은 배에 있는 모든 철로 된 물건인 무기, 배에 사용한 못, 닻 등을 모두 빨아버려 함대를 침몰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르면 사람의 힘으로 이 두 지역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제21회 軟水洋에 도착했을 때 鄭和의 과장된 반응의 원인을 알 수 있다.

張天師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혹시 軟水洋에 도착한 게 아닐까요?”

삼보태감은 줄곧 이 軟水洋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터라, 그 말을 듣자 혼비백산 놀랐다.

“여기가 軟水洋이라면 이를 어찌지요?”

.....

삼보태감이 대답했다.

“..... 예전에 국사께서 폐하 앞에서 이곳을 지나는 일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일이 코앞에 닥쳤는지라 국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92)

91) 홍상훈, 위의 책, p.216.

92) 홍상훈, 위의 책, p.288.



(只有天師說道:“這莫非是軟水洋來了.”三寶老爺一向耽心的是這個軟水洋,一說起‘軟水洋’三個字,就嚇得他魂飛天外,魄散九霄,“來到此間,怎麼是好?”……三寶老爺道:“正是,當原日承國師親許萬歲爺,擔當渡過此水,今日事在眉睫,特來相求.”)93)

출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력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을 겪지만 鄭和는 천 척의 함대를 이끌고 서양으로 출항한 신분으로 차분하게 金碧峰 장로, 張天師 혹은 군사들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렇게 겁먹고 책임을 미루는 행동은 아주 무책임해 보인다.

게다가 곤란한 상황을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심지어 南朝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한탄한다.

“제가 임명장을 받던 날은 그저 폐하를 위해 힘쓰고 우리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공을 세워서 불후의 명성을 날리게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이렇게 풍랑이 심하고 위험하여, 날마다 놀라고 걱정하며 고생하게 될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제 늙은 몸뚱이를 이 만 리 밖의 험한 바다에 묻어야 할 지경이 아닙니까!” 94)

(“咱原日掛印之時,也只圖得爲朝廷出力,爲中國幹功,倘得寸勞,或者名垂不朽.哪曉得一路上有這些風浪,有這些崎嶇,耽這些驚憂,受這些虧苦,終不然咱這一束老觔骨,肯斷送在萬裏外障海之中.”)95)

제25회 서양의 나라인 ‘金蓮寶象國’에 도착하여 서양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삼보태감이 말했다.

“이런, 틀렸구나! 이런 조그마한 나라하고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하다니! 차라리 자리를 털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처사이겠소, 어려움을 알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소?” 96)

93) 羅懋登, 위의 책, pp.269-270.

94) 홍상훈, 위의 책, p.296.

95) 羅懋登, 위의 책, p.278.

(三寶老爺道: “罷了, 罷了! 似此一國, 左戰右戰, 戰不勝他; 左殺右殺, 殺不贏他. 不如傳下將令, 席卷回京, 還不失知難而退之智.” )97)

여기서 작가는 鄭和의 성격을 나약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늘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한탄만 하는 겁쟁이로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작으나마 공을 세우려고 했지만 가는 길이 험난하여 날마다 놀라고 걱정하며 고생을 하는 것에 후회하고 있는 마음도 보인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부족하여 걸핏하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작품 속에서 서양 제국과 전쟁을 벌일 때 鄭和가 책략을 세워 맞서는 상황은 아주 드물었던데 반해 일반적으로는 천사와 국사의 법력에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곤 했다. 이래서 鄭和는 천사와 법사의 법력에 많이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면 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지 원망까지 하는 성향이 보인다.

제29회에서는 서양의 나라인 ‘金蓮寶象國’에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鄭和가 金碧峰 장로를 원망한다.

“국사, 왜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까?”

……

“어허, 이렇게 전진하기 어려워서야 어느 세월에 이 일이 끝날까!” 98)

( “國師爲何不能取勝?” …… 老爺道: “似此征進之難, 何日是了!” )99)

함대가 서양의 ‘撒發國’에 도착해 현지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일반 병사의 힘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게 되자 삼보태감은 金碧峰 장로께 출전을 간청했고 장로의 신통력에 희망을 걸어본다.

또한 작품 속에서 鄭和가 전쟁에서 상대하고 있는 서양 내지 서양의 장군이

96) 홍상훈, 위의 책, p.336.

97) 羅懋登, 위의 책, p.322.

98) 홍상훈, 위의 책, p.386.

99) 羅懋登, 위의 책, p.281.

나 병사를 경멸하는 경향을 작품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24회와 제46회를 검토해 보자.

삼보태감은 오랑캐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걸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 나라 국왕은 글러먹은 작자로군!”

……

“婦人이 나왔으니 그렇다는 말씀이지요.”<sup>100)</sup>

(三寶老爺聽知夷女討戰， 笑了一笑， 說道：“這個番王是個朽木不可雕也。” …… 三寶老爺道：“有婦人焉， 朽人而已。”)<sup>101)</sup>

삼보태감이 말했다.

“천자의 사자는 천하에 적이 없는 법이다.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옛날 누군가 서양에 갔는데, 심지어 女人國도 정복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이다.”

……

“직접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사령관계서 영채를 벗어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sup>102)</sup>

(老爺道：“無敵於天下者， 天使也! 豈可輕自徑過去， 把後來人做個口實， 說道‘當時某個人下西洋， 連個女人國也不曾征服得.’” …… 王爺道：“老元帥親自前去， 雖然是好， 只一件來， 主帥離營， 恐有疏失。”)<sup>103)</sup>

제24회는 ‘金蓮寶象國’의 여장군이 명나라 진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내용이다. 鄭和는 코웃음을 치며 이 나라가 글러먹었다는 식으로 비웃었고, 제46회 ‘女人國’에서는 王尙書의 권유를 듣지 않고 스스로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또한 서양에 와서 女人國도 정복하지 못하면 중국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끝내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 일개 여인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내심 경멸하는 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100) 홍상훈, 위의 책, p.329.

101) 羅懋登, 위의 책, p.315.

102) 홍상훈, 위의 책, p.596.

103) 羅懋登, 위의 책, p.592.

위의 내용과는 조금 달리 작품에서 鄭和를 용감하고 지략이 있다고 묘사하는 내용도 가끔 볼 수 있다. 제33회 ‘羅斛國’에 도착했을 때 국왕이 항구로 영접 나오는 것이 속임수가 아닐까 생각해서 미리 병사들을 황궁근처에 잠입시켜 신호가 올리는 대로 그 지역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 또한 상대의 술법을 역이용하려는 계책이었다.

鄭和는 사사로운 감정에 억매이지 않고 병사들이 군법을 어길 때 엄하게 처벌한다. 王明<sup>104</sup>이 군법을 어기고 서양 사람과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鄭和는 “나라의 법은 사사로운 감정을 돌보지 않는 법이다!” 라고 王明을 당장 효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王良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 아버지의 죄를 갚으려고 간청했다. 그러자 鄭和는 목숨 걸고 서양으로 출정한 것은 공을 세워 높은 관직에 봉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측은지심이 생겨 王良의 청을 받아들이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도록 명령한다.

여기서 鄭和는 공정하고 사심이 없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다. 곧 출정하려는 장군들을 위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다독여 준다. 그러나 군법을 어긴 병사들에게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엄하게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까지 멀리 나온 병사들이 겪어온 고생을 고려하며 참수하기보다 공적으로 죄를 씻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통해 너그럽게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략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鄭和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鄭和를 겁이 많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천사와 법사의 법력에 의지하여 처리하려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되면, 원망하거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도주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갈수록 鄭和를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 날 뿐만 아니라 병사에 대한 賞罰이 철저한 통솔자인 긍정적인 인물로 다루고 있다.

작품의 초반부부터 황제는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에게 鄭和를 조력하여 서양의 원정을 동참하도록 간청을 한다. 이런 것으로 보아 작가는 출정 전 이미 鄭

---

104) 여기서 다루고 있는 王明은 모험을 통해 성공한 王明과는 다른 인물이다.

和를 서양원정의 통솔자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작품 속 鄭和를 다중인격의 캐릭터로 설정한 것은 작가의 의도라고 본다.

여기서 鄭和의 성격변화는 마치 미숙자가 성숙자로 성장하는 과정과 같다. 바다를 처음으로 경험한 초보자로 많은 돌발 상황에 대한 적응과 해결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했다. 초반부의 나약한 성격에서 갈수록 용감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서양 나라를 제압하는 서술로 鄭和의 성장과정을 다루고 있다. 鄭和의 성장은 바다와의 교감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초반에서 鄭和의 성격을 바다의 날씨와 같이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속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鄭和도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용감한 인물로 성장한다. 이는 신비로운 바다세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터득해낸 경험이다. 우선 바다를 이해하고, 다음은 바다를 이용하는 동시에 바다를 지배하는 단계로 들어선다. 이러한 과정에서 鄭和는 항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성공적인 통솔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3.2 張天師

『西洋記』속에서 鄭和는 통솔자로 등장하고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는 서양을 가는 도중에 일반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을 해결하는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다. 張天師는 작품의 제9회에서 첫 등장을 한다. 張天師는 龍虎山 正一嗣教道合無爲闡祖光範真人으로 도교의 일을 영도하는<sup>105)</sup> 인물이다. 張天師는 오랑캐 사신들이 명나라의 태평성세를 이룬 천자에게 진상품을 바치고 물러서자 이렇게 말을 꺼낸다.

“어제 여러 이웃나라에서 보물을 진상했사운데, 사실 그것들은 모두 별게 아니옵니다.”

……

“바로 傳國寶라고 하옵니다.”<sup>106)</sup>

(“昨日諸番進貢的寶貝，都是些不至緊的。”……“叫做個傳國寶。”)<sup>107)</sup>

105) 羅懋登, 위의 책, p.109.

106) 홍상훈, 위의 책, pp.134-135.

傳國寶는 張天師와 함께 작품 속에 처음으로 등장할 하게 된다. 이어 張天師는 傳國寶의 유래, 외형, 상징과 유실의 연유를 상세하게 황제에게 설명한다. 그러자 황제는 이 보물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자 결국 傳國寶를 찾으러 서양으로 출항명령을 결심한다. 이렇게 張天師는 鄭和를 조력하여 서양으로 출항하게 된다.

張天師가 타고 있는 배의 외형은 이러했다. 뱃머리에 커다란 패가 두 개 세워져 있는데 왼쪽 패에는 ‘天下諸神免見’ 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 패에는 ‘四海龍王免朝’ 라고 적혀 있으며 중간 패에는 ‘值日神將關元帥壇前廳令’<sup>108)</sup>이라 적혀 있다. 여기서 張天師는 천하의 신들과 사해의 용왕들의 지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신들을 필요한 상황에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직을 서고 있는 神將들은 신단 앞에서 늘 대기하고 분부를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서양의 일부 나라는 明과 대항했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明의 출전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明의 진영에서 장수들이 출전을 하고 연일 승전하지 못하면 張天師한테 도움을 청한다. 張天師가 오랑캐 쪽의 도사들과 신통력 겨루기에서 승전하지 못하면 金碧峰 장로를 찾아가 해결책을 구한다. 이러한 순서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즉 장수→張天師→金碧峰 장로의 순서로 출전한다.

張天師가 출전할 때의 준비가 아주 거창하다는 부분이 흥미롭다.

張天師는 곧 玉皇閣에서 내려와 출전을 준비했다. 좌우에 날아가는 용이 수놓여진 두 개의 깃발을 세우고, 왼쪽에는 스물네 명의 神樂觀 樂無生들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오른쪽에는 스물네 명의 조친궁 도사들로 하여금 칼과 부적을 들고 대기하게 했다. 또 중간에는 ‘江西 龍虎山 引化真人 張天師’ 라는 글귀가 커다랗게 수놓인 검푸른 깃발을 세웠다.<sup>109)</sup>

107) 羅懋登, 위의 책, p.109.

108) 羅懋登, 위의 책, p.289 참조.

109) 홍상훈, 위의 책, p.499.



(天師即時下了玉皇閣，收拾出馬。左右列著兩桿飛龍旗。左邊二十四名神樂觀樂舞生，細吹細打，右邊二十四名朝天宮道士，仗劍捧符。中間一面皂纛之上寫著‘江西龍虎山引化真人張天師’二十個大字。)<sup>110)</sup>

반면 金碧峰의 출전 전 준비에 대한 묘사와 현저히 대조가 된다. 제28회의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金碧峰 장로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張天師가 걸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진했겠지만, 속에 담긴 능력이야 어찌 내 불법의 힘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인마도 필요 없고 호위 장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마태감이 말했다.

“그렇다면 말이라도 한 필 타고 가지지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삼보태감이 말했다.

“다들 너무 자잘한 것에 신경을 쓰시는 구려. 국사님, 다녀오십시오! 부처님의 무한한 법력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저 개선하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sup>111)</sup>

(長老(金碧峰)低了頭，半晌不開口，心裏想到：“天師雖則是外面擺列的好看，內囊兒怎比得我的佛力。”過了半晌，說道：“貧僧也不用人馬，貧僧也不用將官。”馬公道：“國師可用一匹腳力?”長老道：“貧僧也不用腳力”。三寶老爺道：“妳們只管瑣瑣碎碎，國師，妳去罷! 全仗佛爺無量力，俺們專聽凱歌旋。”)<sup>112)</sup>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가 출정 전 준비에 대한 서술이 선명하게 비교되고 있다. 張天師는 매번 거창하게 준비하고 출전을 하지만 전쟁마다 승전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사는 홀가분한 차림으로 쉽게 상대편을 제압한다. 또한 제40회에서는 도사가 법사의 법력을 의지하여 위험에서 탈출하게 되고 마음속

110) 羅懋登, 위의 책, p.490.

111) 홍상훈, 위의 책, p.369.

112) 羅懋登, 위의 책, p.362.

으로부터 법사의 법력에 대해 탄복한다.

張天師가 말했다.

“과연 국사께서는 신통한 안목을 갖고 계시는구먼. 과연 내 사부님다  
위! 어서 저 요사한 계집을 포박하게!”

……

金碧峰 장로가 말했다.

“어찌 이리 어렵게 성공했소? 설마 내 보물이 영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지요?”

張天師가 金碧峰 장로에게 연신 허리 굽혀 절하며 말했다.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  
다.” 113)

(天師道: “國師神見, 真我師也! 妳們快把這個妖婢捆將起來.” …… 國師  
道: “天師, 妳怎麼今日成功之難, 敢是我的寶貝有些不靈驗麼?” 天師朝國師一  
連長了幾個諾, 一連打了幾個恭, 說道: “多承見愛! 怎奈我自家有些不是處,  
故此成功之難.” )114)

張天師는 삼보태감이 정말로 王神姑를 놓아줄까 걱정스러워 황급히 나  
서서 말했다.

“이 요사한 계집을 잡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렇게 쉽게 놓아주  
다니요? 국사님께서야 자비심을 바탕으로 삼고 계시지만, 그것도 베풀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께서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지만, 그 또한 상황을 고려해서 택해  
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가 사물을 낳아 살리려는 마음  
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죽여 거두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이 요  
사한 계집이 애걸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니, 저도 국사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15)

(天師看見國師苦苦的討饒, 誠恐輕放了這個妖婦, 連忙的走進前去, 說道:  
“擒此妖婦, 萬分之難, 放此妖婦, 一時之易. 雖是國師老爺慈悲爲本, 也有個  
不當慈悲處. 雖是國師老爺方便爲門, 也有個不當方便處. 譬如天地以生物爲

113) 홍상훈, 위의 책, p.520.

114) 羅懋登, 위의 책, p.514.

115) 홍상훈, 위의 책, pp.521-522.

心, 卻也不廢肅殺收藏之令. 這妖婦都是一段假意虛情, 誓不可聽.” )116)

張天師는 王神姑를 잡는데 많은 고난을 겪었고 결국 국사의 법력에 의존하여 王神姑를 잡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가 王神姑를 돌려보내려 하자 張天師는 계속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사의 간절한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뜻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아주 불편해했다. 張天師는 자신이 고생한 만큼 포로도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국사는 항상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정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교화한다. 張天師는 법력과 道가 국사한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국사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張天師는 도가를 관리하는 인물로 큰 신통력을 지니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여전히 碧峰 장로의 도움을 청해야 했다. 또한 서양의 골칫거리는 거의 도사들의 행위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金蓮寶象國’의 羊角禪師, ‘爪哇國’의 火母禪師, 金蓮道長, 銀蓮道長과 驪山老母, ‘撒發國’의 金毛道長 등이 모두 도가 출신이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소인배의 이간질로 그 나라와 백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출전하는 자도 있고 제자의 간청에 응해 출전한 자도 있다.

작가는 도가의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처신술이 경솔하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張天師는 사해의 용왕 내지 천하의 신들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저항세력을 물리치지는 못했다. 이는 도가가 바다탐험과 바다개척의 과정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불가를 더욱 선호하고 도가를 비하하고 있는 작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 2.3.3 金碧峰

金碧峰은 燃燈古佛이 인간 세상에 환생한 몸이다. 金碧峰은 부처와 사람의 합성체로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 속으로 뛰어드는 재주를 지니고 있어 작품 속에서 밝고, 문명적이고, 정의로운 힘을 갖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작품의 제1

116) 羅懋登, 위의 책, p.516.

회부터 燃燈古佛에 대한 소개가 시작된다. 燃燈古佛은 과거와 중간, 미래의 각기 천년동안 삼천 명의 옛 부처들 가운데 으뜸이었고 만 년, 십만 년, 백만 년, 천만 년, 일억 년 동안 수많은 보살들을 이끌던 인물<sup>117)</sup>이다. 그러나 盂蘭盆會에서 50년 뒤 남선부주의 衆生이 액운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대중들의 재난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다. 金碧峰은 杭州의 김 아무개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淨慈寺에서 수행을 하고 불경을 강설했다.

金碧峰에 대한 소개는 제1회에서 제8회까지의 분량을 통해 작품 속에서 가장 상세하게 소개한 인물이다. 이러한 서술 형식으로 보아 작가의 불교에 대한 추승과 편애를 엿볼 수 있다. 제9회부터 張天師와 傳國寶가 동시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서양에 잃어버린 傳國寶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자 황제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던 姚太師는 이 말을 꺼낸 張天師가 찾아와야 된다는 제의를 한다. 마침 姚太師는 충실한 불교도였다. 그러자 張天師는 불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황제에게 천하의 불교를 없애는 조건으로 서양으로 傳國寶를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을 한다. 황제는 오로지 傳國寶를 갖고 싶은 마음이라 청을 들어주고 전국의 승려들은 반드시 환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제한 시일에 환속하지 않은 승려 및 가족을 참수형에 처하라 했고 주위에 승려가 있는데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변방의 군대로 流放하라고 지시했다<sup>118)</sup>. 승려들은 어쩔 수 없이 하산하고 환속해야 했다. 전국 곳곳에서 승려들의 원한이 쌓여갔고 이러한 원한이 五臺山의 淸涼寺에서 불경을 강설하고 있던 金碧峰 장로의 귀에 들어갔다. 金碧峰 장로는 속사정을 알아챘고, 또한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것이다. 金碧峰 장로는 황궁으로 들어가 황제를 만나 법력으로 張天師를 제압하고 천하의 승려들을 구제했다. 金碧峰 장로의 신통력에 감탄을 금하지 못한 황제는 서양원정을 간청했고 張天師와 동반하여 출항하기로 한다. 金碧峰 장로는 황제에게 출항 전의 준비 사항과 서양의 지리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렇게 출항의 준비를 모두 마친 뒤 鄭和는 張天師와 金碧峰의 조력하에 서양을 향하게 된다. 碧峰 장로의 배를 보고 서양

117) 羅懋登, 위의 책, p.8 참고.

118) 羅懋登, 위의 책, p.126 참고.

사람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승려는 하늘을 가르고 땅을 붙이는 재주와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막는 손이 있어서 비바람을 부르고 귀신을 부리며, 소매 안에 하늘과 땅을 넣고 품안에 해와 달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가 절에서 나올 때 저 명나라 황제가 몸소 용상에서 내려와 여덟 번 절을 올리고 護國國師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려가 탄 배에는 세 개의 커다란 패가 세워져 있는데, 중간에 있는 패에는 ‘國師行臺’ 라고 적혀 있고, 좌우의 패에는 각각 ‘南無阿彌陀佛’ 과 ‘九天應元天尊’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sup>119)</sup>

(他有拆天補地之才，他有推山塞海之手，呼風喚雨，役鬼驅神，袖囤乾坤，懷揣日月。他前日出門之時，那南朝朱皇帝親下龍床，拜他八拜，拜爲護國師。故此他的寶船上有三面大牌，中間牌上寫著‘國師臺’，左邊牌上寫著‘南無阿彌陀佛’，右邊寫著‘九天應元天尊’。)<sup>120)</sup>

金碧峰의 범력에 탄복한 황제는 용상에서 내려와 절을 할 만큼 대단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내심으로 불가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武將과 천사조차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때 삼보태감은 金碧峰한테 도움을 청했고, 국사가 나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던 요괴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개과 천선하여 수행을 통해 정과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일련의 상황을 통해 불가의 자비로운 처신술을 보여주고 있다.

84회에서는 ‘銀眼國’ 과 치열한 전쟁 끝에 국왕과 대신들을 생포한다. 鄭和는 국왕과 대소 관리들을 모두 참수하라고 명령했다. 金碧峰장로는 ‘사령관, 내 체면을 봐서 저들을 용서해주시구려!’ 라고 간청을 올렸다. 金碧峰 장로는 항상 불법을 바탕으로 매사를 보는 격이기 때문에 국왕과 관료들을 불러놓고 다시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바르게 살도록 교화를 한다.

59회에서 묘사된 ‘撒發國’ 에서는 金毛道長과 碧水神魚가 술법을 사용하여

119) 홍상훈, 위의 책, p.305.

120) 羅懋登, 위의 책, p.288.

끝까지 저항한다. 金碧峰장로는 金毛道長의 사부인 玄天上帝의 眞聲을 빌려 金毛道長을 제압했다. 사부는 金毛道長을 陰山으로 보내 벌을 세우려 했으나 金碧峰장로는 용서하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碧水神魚는 金碧峰 장로한테서 글자를 하나 하사받고 제도를 받았다. 그리고 ‘撒發國’이 앞으로 큰 재앙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金碧峰 장로는 이 나라의 모든 생물을 봉황알에 넣어놓아 보호해 주었다.

金碧峰 장로는 악행이나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정과를 이루도록 깨우쳐 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불가의 무한한 법력과 중생을 제도하는 이념을 전달하고 있다.

38회의 ‘爪哇國’에서 張天師는 고생 끝에 王神姑를 생포하고 끝까지 효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金碧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찮은 벌레도 목숨을 아까워하는 법인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저 여인이 비록 오늘 張天師의 심기를 건드렸다고는 하나 무례한 짓을 하지는 않았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 나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소? 張天師, 어찌 그리 원한을 잊지 못하시오?<sup>121)</sup>

(螻蟻上然貪生, 爲人豈不惜命! 他今日雖然冒犯天師, 卻不曾加以無禮, 這也是他一段好處. 天師怎麼苦苦記懷?)<sup>122)</sup>

王神姑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張天師와 불법으로 용서하려는 金碧峰 장로의 상황 처리방법이 대조된다. 이는 도가의 한계와 불가의 무한한 법력이 대조되고 있다. 어쩌면 작가가 불가를 부추기고 도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서양의 나라를 통과하면서 明의 함대와 맞서는 몇몇 나라 중에서 金碧峰 장로는 거의 같은 태도로 중생을 제도하고 정과를 이루도록 제도를 했다.

작품 속에서 金碧峰 장로를 백전백승의 신으로 다루고 있지만 서양으로 가게 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결말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대해 陸樹崙과 竺少華는 『西洋記』의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121) 홍상훈, 위의 책, pp.521-522.

122) 羅懋登, 위의 책, p.516.



“金碧峰은 완전히 작가의 이상 속 캐릭터이긴 하지만 온전한 승리를 거둔 영웅은 아니다. 그는 서양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곤란과 좌절을 겪었다. 그의 ‘佛法’은 작가의 사상에 제약을 받았다. 鄭和가 서양으로 간 핵심적인 사명은 ‘오랑캐를 위무하고 보물을 구하는’ 것이지만, 金碧峰은 鄭和를 도와 ‘오랑캐를 위무’하는 사명만 수행했을 뿐 전국옥새를 찾아오지 못했다. 또한 豊都國에 이르러서는 閻邏에게 ‘도중에 포기했다’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다. …… 이렇듯 金碧峰은 실패한 영웅이다.

(金碧峰完全是作者理想中的人物, 然而他並非全勝的英雄. 在西征途中, 也時時遭難受挫. 他的“佛法”還受到作者思想的限制. 鄭和下西洋的中心使命是“撫夷取寶”. 金碧峰只是助鄭和完成“撫夷”的使命, 卻沒有取回傳國玉璽. 到了豐都國, 受到了閻邏的譏諷, 說他是“半途而廢”. …… 就此而言, 金碧峰是位失敗的英雄.)” 123)

또, 金碧峰이 ‘도중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한층 깊은 설명을 덧붙였다.

그가 ‘도중에 포기한’ 것은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고 있는 전국옥새를 찾아오지 못한 것을 가리키니, 이는 바로 ‘東土厄難’ 124)을 ‘해결’을 하지 못했음을,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은가? 이것은 羅懋登이 깨어 있는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는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현실상황이 허락하는 것에서 벗어나 망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었다. 그의 이상은 여전히 현실적 가능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他的“半途而廢”, 沒有取回象征國家權威和秩序的傳國璽, 不正是意味著“東土厄難”未能“解釋”嗎? 意味著要重建國家權威和秩序的不可能嗎? 這說明羅懋登畢竟是位清醒的現實主義者, 他對現實作過冷靜的觀察和理解分析, 沒有離開現實情況的允許和可能去想入非非. 他的理想還是受著現實的可能性制約的.)125)

작가는 작품 속 金碧峰의 캐릭터를 통해 明 왕조가 변방의 안정과 국가의 권

123) 羅懋登, 위의 책, p.15.

124) 동녘의 난리를 말하는 것으로 왜구에 의해 자행된 술한 전투를 의미한다.

125) 羅懋登, 위의 책, p.15.

위를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옥새를 구해오지 못한 것으로 이 모든 희망이 막연하고 현실에 어긋나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金碧峰 장로에 대한 서술이 시종일관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중생을 정과에 이루도록 제도하는 부분이다. 불가의 대표인물인 金碧峰 장로는 서양원정 탐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고약한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는 무력을 통한 제압이 아닌 불법을 통한 인간 내심의 진정한 승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金碧峰 장로는 明이 서양과 교류와 교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한 ‘분쟁 조절’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옥새를 찾지 못한 서양원정이라는 이유로 ‘실패의 영웅’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서양 40여 나라를 통과하고 교류와 교역의 면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의 성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작품 속 주인공 성격 대비

인물	鄭和	張天師	金碧峰
성격	- 항해 초기: 나약함, 겁이 많음. - 항해 중후기: 용감함과 지략 겸비.	- 항해 초기: 金碧峰 장로의 신통력에 不服. - 항해 중후기: 金碧峰 장로의 법력에 탄복하고 스승으로 여김.	시종일관 중생의 죄를 깨우치고 불법으로 정과에 이루도록 제도함.
역할	통술자	조력자	조력자
대표사상	충군사상	도가사상	불가사상

〈표3〉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鄭和는 겁이 많고 나약한 성격을 지닌 항해의 초보자로부터 용감함과 지략이 겸비된 인물로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鄭和의 다양한 성격을 묘사하는 동시에 통술자라는 당위성을 점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張天師에 대한 묘사도 초반부와 중후반부로 갈수록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金碧峰 장로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시종일관이다. 도가가 불가에 대한 불복에서 스승으로 여기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작자는 내심 불가에 더욱 치우쳐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에 작자는 불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중생을 제도

하고 정과에 이루도록 제도하는 표현수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張天師와 金碧峰 장로의 조력 하에 진행된 鄭和의 서양 원정은 미지세계인 바다를 향한 탐험이자 개척의 시도이다. 서양세계를 탐방하는 과정에서 鄭和는 진정한 개척자와 통솔자로 성장한다. 그러나 張天師의 신통력은 서양의 저항세력을 제압하는 데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金碧峰 장로가 시종일관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념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속세로 내려와 인간으로 환생하는 최초의 취지와 맞물린다. 金碧峰 장로는 중생을 제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물, 범행을 저지른 서양의 오랑캐와 저승에 있는 귀신까지 제도했다.



## 제 3 장 『西洋記』에 나타난 세계 인식

### 3.1 서양의 의미와 서양 인식

본 장에서는 작품이 서술하고 있는 세계인식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양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대륙적 사고에 파묻혀 있던 명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 건너의 세계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선박에 몸을 싣고 서양으로 향하는 과정 자체가 모험이자 해양성 탐구의 단초이기에 『西洋記』에 나타난 서양의 이미지나 서양에 대한 인식은 해양성을 추출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서양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는 이동 경로를 통해 『西洋記』의 세계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은 鄭和가 함대를 이끌고 옥새를 찾으러 서양 제국의 다양한 지역을 정벌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서양’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날 보통 서양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英美 문화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명나라 때 ‘서양’의 개념은 지금과 사뭇 다르다. ‘서양’의 구분은 宋代부터 등장하는데, 元代에서는 공통되는 ‘南’자를 생략하고 海를 洋으로 바꾸어 동남해를 동양, 서남해를 서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동양’에는 자바<sup>126)</sup>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明代’에 이르러 서양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방위의 관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며, 유럽 지리학의 영향을 받아 ‘廣東의 正南쪽’이 보르네오섬 북해안의 ‘文萊國’에 해당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廣東-文萊’를 잇는 선으로 ‘동서양을 구별하게 된 결과’<sup>127)</sup>이다. 명나라 시기의 ‘서양’은 文萊國 서쪽의 동남아와 인도 연해안 지역을 가리킨다.<sup>128)</sup> <지도1>을 통해 더욱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12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1220&cid=40942&categoryId=33136>

12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6%91>

128) 百度사전. <https://baike.baidu.com/item/%E8%A5%BF%E6%B4%8B/79893?fr=aladdin>



<지도1><sup>129)</sup>

사전에서 ‘서양’에 대한 정의로 보면, 明나라 초기 남양 범위에 대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元代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르네오(오늘의 칼리만탄 섬)의 文萊國을 기점으로 文萊의 동쪽을 동양이라 하고 文萊의 서쪽을 서양이라 한다. 그러나 鄭和의 항해를 기록하고 있는 『西洋番國志』와 『瀛涯勝覽』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西洋番國志』에서 南淳里國에 대한 소개에 따르면 “나라의 서북쪽 바다 중턱에 산봉우리가 평평한 높은 산이 있는데 帽山이라 한다. …… 산의 서쪽이 바로 서양이다. …… 서양을 왕래하는 모든 배는 이 산을 기준으로 한다.

(國之西北海中有一大平頂高山名帽山, …… 山西大海即西洋也 …… 凡西洋過來船俱收此山爲準)”<sup>130)</sup>

나라의 서북쪽의 바다 중턱에 산봉우리가 평평한 峻山이 있는데 帽山(오늘날 수마트라의 서북 바다에 있는 Weh Island)이라 한다. 산의 서쪽

129) [http://www.sohu.com/a/147755357\\_698472](http://www.sohu.com/a/147755357_698472)

130) [明] 鞏珍 저, 向達 교감, 『西洋番國志』, 中華書局, 2000, 北京, p.21.



바다가 바로 서양이다. 서양을 왕래하는 모든 배는 이 산을 기준으로 한다.

(國之北海內有一大平頂峻山，名帽山。山之西大海，正是西洋也。西來過洋船只俱投此山爲準)” 131)

상기 두 자료를 통해 보면 鄭和의 항해에서는 南淳里國의 서북쪽에 위치한 帽山의 서쪽 지역을 서양으로 보고 있다.

작품에 따르면 鄭和의 함대는 長江의 어귀로 내려가 金山(지금의 상해上海市 서남쪽의 杭州灣 기슭에 해당하는 항구도시)을 지나 孟河(지금 江蘇省의 武進를 지나는 장강의 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가 나오고 여기를 지나서 계속 나가면 바다이다.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면 오른쪽은 浙江과 福建 일대이고, 왼쪽은 일본 扶桑國이고 앞쪽은 流球國이다. 일본과 流球國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면 오른쪽은 廣東과 廣西, 雲南, 貴州이고 왼쪽은 交趾國이다. 여기를 지나 앞쪽이 바로 軟水洋이고, 거기를 지나면 吸鐵嶺이 나타난다. 여기를 지나야 서양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sup>132)</sup> <지도2>를 통해서 보면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다시 서양바다로 들어가는 이동경로를 더욱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지도2><sup>133)</sup>

131) [明]馬歡 著, 萬明 校, 『明鈔本『瀛涯勝覽』校注』, 海洋出版社, 2005, 北京, p.50.

132) 羅懋登, 위의 책, p.183 참고.



작품 속에서 軟水洋과 吸鐵嶺을 지나서야 서양바다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은 실존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작품 속 交趾國을 분기점으로 북쪽은 동양이고 남쪽은 서양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는 文萊國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의 구분했고, 『西洋番國志』와 『瀛涯勝覽』에서는 南淳里國의 서북쪽을 서양으로 보고 있다. 서양의 지역 구분에 대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기준으로 갈려졌다. 하지만 鄭和의 항해를 기록하고 있는 서양은 『西洋番國志』와 『瀛涯勝覽』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와중에 羅懋登이 지역 구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인지 일부러 이렇게 구분한 건지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 작가는 交趾國의 남쪽 지역에서부터 서인도양까지의 여러 국가를 서양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지도2>를 참고해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文萊, 南淳里國과 交趾國을 기준으로 서양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작품이 사실에 기초하고는 있다하더라도 허구의 산물이므로 작품 내용을 실제적 지도와 무리하게 일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적 공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 가고 있는 작품적 구성만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3.2 천조대국 명의 이미지

羅懋登은 서양 제국을 지나면서 각 나라의 특징을 사람의 복장, 외모, 토산품과 문자사용 여부의 서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서양의 문물에 대한 서술을 통해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서양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전개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서양을 미개와 야만의 대상으로 서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서양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명의 문명을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위한다 있다. 이는 또한 명이 인문정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다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때 또 오문 안쪽에 특이한 모습을 한 이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알고 보니 그들은 고상한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사

133) [http://www.gucn.com/Info\\_KnowLedgeList\\_Show.asp?Id=75801](http://www.gucn.com/Info_KnowLedgeList_Show.asp?Id=75801)

람의 형상을 한 이들일 뿐이었다. 그들은 하얀 털모자를 쓰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 옷을 입고, 들소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신은 채 뭔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지껄이고 있었다.<sup>134)</sup>

(又只見午門之內，跪著一班兒異樣的人。是個甚麼異樣的人？原來不是我中朝文獻之邦，略似人形而已。頭上包一幅白氈的長布，身上披一領左衽的衣服，腳下穿一雙犛牛皮的皮靴，口裏說幾句侏離的話。)<sup>135)</sup>

작가는 여기서 서양 사람들을 ‘대충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 사람을 ‘고상한’ 사람으로 엄연히 대조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인식에서 서양을 ‘무지와 미개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명나라 사람으로서의 우월감이기도 하다.

제72회의 ‘木骨都束國’과 제34회의 ‘瓜哇王國’ 사람들에 대한 묘사도 역시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남자들은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허리에 작은 천을 두르고 있고, 아낙들은 머리카락을 뒤통수에 묶고 정수리에 황토를 발랐습니다. 아낙들은 또 양쪽 귀에는 길쭉하게 늘어진 줄을 몇 개씩 꿰어 걸고, 목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를 차고 있는데, 거기에 단 수실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외출 할 때는 천으로 몸을 감싸고, 푸른 망사로 얼굴을 가린 채 가죽신을 신고 다닙니다.<sup>136)</sup>

(都是男子卷發四垂，腰圍稍布，婦人頭發盤在腦背後，黃漆光頂，兩耳上掛絡索數枚，項下帶一個銀圈，圈上璽珞直垂到胸前，出門則用單布兜遮身，青紗遮面，腳穿皮鞋。)<sup>137)</sup>

아주 흉악합니다. 아들이 태어나 한 살이 되면 허리에 비수를 채워주는 데, 그걸 不刺頭라고 부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부자와 가난뱅이, 신분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모두들 이 칼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 칼은 모두 질 좋은 雪花鑲鐵로 만들고, 자루에는 금이나 은, 코뿔소 뿔, 상아 등으로 귀신

134) 홍상훈, 위의 책, p.129.

135) 羅懋登, 위의 책, p.105.

136) 홍상훈, 위의 책, p.885.

137) 羅懋登, 위의 책, p.930.

얼굴을 한 사람 모양을 조각하여 장식하는데 대단히 정교합니다. 이 나라에는 하루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흉악합니다.<sup>138)</sup>

(民俗最兇惡. 大凡生子一歲, 便以匕首佩之, 名曰‘不刺頭’. 國中無老少, 無貧富, 無貴賤, 俱有此刀. 其刀俱是上等雪花鑄鐵打的, 其柄或用金銀, 或用犀角, 或用象牙, 雕刻人形鬼臉之狀, 至極精巧. 國中無日不殺人, 最兇之國也.)<sup>139)</sup>

서양 사람은 사람모양을 하고 있지만 옷차림은 아주 이상했고 몸에 장식품도 역시 흉측했다. 또한 爪哇王國은 나라의 질서가 불안정하여 하루라도 살인사건이 없는 날이 없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서양의 풍속이 야만스럽고 사회의 질서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서양인의 외모에 대해 묘사하고 나서 서양의 경제와 문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제60회에 묘사되고 있는 문자가 없는 ‘大葛蘭’과 ‘小葛蘭’ 나라에서는 통관문서와 降書를 적어 내지 못했지만 진상품을 바친 정의로 ‘용서’해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작가의 머릿속 중국과 서양 사람들은 문화수준이 하늘에서 땅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식하지만 충성심으로 그 무지함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양의 여러 면에 대한 묘사는 단순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작가의 이국에 대한 이해는 스스로 처해 있는 사회 환경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자료의 열람을 통한 이해와 사회집단의 영향 하에 만들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화민족은 자고로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문화, 질서, 무력,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중화권 이외의 작은 나라는 중국의 속국으로서 중국을 추앙해 따라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국은 대국의 행세를 행하며 미개한 작은 나라를 교화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작품의 제

138) 홍상훈, 위의 책, p.456.

139) 羅懋登, 위의 책, pp.443-444.

45회에서 오랑캐가 “저희는 불행히도 오랑캐의 나라에 태어나 농사지을 논밭도 없어서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가는 상인들의 물건을 노략질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자 鄭和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은혜가 아직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吉里地悶’은 “서양의 배들이 이곳에 정박하면 대부분 아낙네들이 배에 올라가 교역을 하는데, 성병 때문에 열에 여덟이나 아홉은 죽는다”라 하자 鄭和는 병사더러 추장을 끌고 나가 곤장 다섯 대를 치라고 명령하면서 “男女有別로 인륜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함부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sup>140)</sup>라고 서양에 존재하고 있는 문란한 성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서술이다.

함대가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서양으로부터 진상품을 받는데 모든 진상품을 다 받는 것은 아니었다. 생활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략질을 통해 얻은 물품을 조공하자 鄭和가 “의롭지 못한 물건은 받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또한 아낙네들이 정박한 상선에 올라 ‘교역’<sup>141)</sup>을 함으로써 성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것도 역시 나쁜 것이라며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중국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중국의 교화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인륜에 어긋나다”는 것은 서양 사람의 삶이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무질서하고 도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明 나라는 서양 제국을 지나면서 조공을 받고 통관문서를 받았다. 순순히 통관문서를 바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사용해 굴복시켜서 降書를 받아낸다. ‘金蓮寶象國’의 降書에서는 황제를 “하늘의 명을 받은 하늘의 아드님으로서 안으로는 중국의 군주가 되고, 밖으로 사방 이민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渤林邦’의 降書에서는 “중국은 안으로 존엄을 세우고 밖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수시로 民情을 시찰한다”고 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중국이 ‘天朝上國’의 자세로 이민족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140) 羅懋登, 위의 책, p.583 참고.

141) 여기서는 性 매매를 의미한다.

‘아들’을 훈계하듯, 거역하면 필히 군사를 동원하여 굴복하게 한다. 그리고 계속 ‘아버지’의 노릇으로 ‘자식’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듯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양 40여개 나라를 모두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위의 내용에서 작가의 사상의식 속에는 ‘華夏中心’ 의식이 박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보면 당시 중국을 ‘聖人之邦’이라 생각해 왔고, 최고 문명의 대표라 생각하여 서양의 나라 또는 미개한 지역은 중국의 문화로 교화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작품 속에서도 서양에 대한 교화활동을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

작가의 서술을 통해 중국이 서양 제국과의 교역과 교류를 진행할 때 상당한 우월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당시 중국이 ‘天朝上國’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 그 누구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때문에 서양으로 향한 원정이 가능했던 것이었고, 서양에 대한 교화와 변화를 통해 明의 문화를 현지로 전파하고 수궁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평등한 상호교류와 협력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다.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 얻어낸 결과이다. 明은 ‘교화’라는 미명 하에 영역의 확장과 인문정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3.3 서양을 향한 경로와 신마전쟁의 의미

『西洋記』는 鄭和의 함대가 서양을 위무하는 한편 보물을 찾기 위해 40여개의 나라에 도착해 상소문과 降書를 받아낸 후 항해를 이어가는 다시 출항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서양 제국 중 실존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작가가 만들어낸 나라들도 있다. 실존의 나라에서는 거의 순조롭게 降書와 상소문을 받고 통과했다. 그러나 작가의 환상에 의존해 만들어진 서양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된다. 明의 장수와 서양 장수의 전쟁, 神과 神의 전쟁, 神과 魔의 전쟁으로 다루어진다. 허구의 공간이든 실존하고 있는 공간에서든 明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降書와 상소문을 받아내고 明에 대한 충성 서약을 받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明은 서양으로

의 영역확장을 실현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우선 서양 제국을 경과하는 지리적 순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4〉 鄭和의 함대가 서양 제국을 경과한 과정

순서	나라	회수	갈등	갈등 및 해결방법
1	金蓮寶象國	22~32	있음	우승상 天補龍이 降書を 써서 투항하자고 건의를 하지만 셋째 왕자 補的力이 서양나라를 이끄는 제일 큰 나라로서 투항할 수 없다고 함. 姜忽刺는 唐英의 화살에 맞아 죽음. 姜盡牙와 姜代牙는 張柏의 낭아봉에 맞아 죽음. 姜定金은 술법으로 여러 장수를 물리치지만 張天師는 부적을 날려 술법을 무너뜨림. 姜定金은 사부인 羊角眞君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金碧峰 장로의 신통력에 제압당함. 전쟁의 실패로 降書, 상소문과 진상품을 바침.
2	賓童國	32~33	없음	국왕이 직접 降書와 상소문, 통관 문서를 지니고 배 앞으로 영접하러 옴.
3	羅斛國	33~34	있음	국왕은 직접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그러나 謝文彬은 이미 출항한 배를 쫓아가 해전을 벌였지만 결국 戰敗함.
4	爪哇國	34~45	있음	咬海乾은 唐英과 金天雷의 싸움에 졌고 張柏의 화살에 부상을 입고 도망감. 해전에 능통한 咬海乾은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의 술책으로 전몰함. 王神姑는 술책을 써서 明의 장군을 격퇴함. 金碧峰 장로는 신통력으로 王神姑를 생포하지만 돌려보냄. 王神姑는 다시 사부인 火母를 불러오지만 金碧峰 장로의 바리때에 간혀 꼼짝 못함. 다시 火母의 사부인 驪山老母를 불러오지만 金碧峰 장로와 신통력 겨루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음. 그러자 옥황상제와 관음보살은 불가와 도가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함. 驪山老母는 火母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王神姑는 여러 장군의 말발굽에 갇히게져서 고깃덩어리가 됨. 국왕과 咬海乾은 밧줄에 묶인 채 중군 막사 안에 잡혀 들어갔고 비파골에 쇠사슬을



순서	나라	회수	갈등	갈등 및 해결방법
				끼워 묶음. 降書와 토산품을 바침.
5	重迦羅	45	없음	함대를 맞이하며 토산품을 바침.
6	孫陀羅, 毘毘拖, 丹里, 圓嶠, 彭里	45	없음	함대를 맞이하며 토산품을 바침.
7	吉里地悶	45	없음	삼보태감이 중국의 문화로 오랑캐들의 야만적인 풍속을 변화시킴.
8	淳林邦	45-46	없음	삼보태감은 바다에서 노략질하는 陳祖義를 참수하고, 국왕은 降書와 조공품을 바침.
9	女人國	46-50	있음	연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王蓮英은 鄭和, 黃彪, 張柏, 唐英을 옥에 가두었고 黃鳳仙은 唐英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풀어줌. 黃鳳仙은 張天師의 도움으로 王蓮英의 수급을 베어버림. 紅蓮公主는 金碧峰 장로와의 신통력 겨루기에서 제압당하고 降書를 바침.
10	滿刺伽	50-51	없음	호두패를 본 국왕은 진상품을 바치고 조서를 받음. 金碧峰 장로는 구환석장으로 오랑캐 병사 중의 두 마리 호랑이를 찾아냈고 龍虎玄壇의 趙元帥는 호랑이를 잡아 술안주로 만듦.
11	啞魯	51	없음	국왕이 몸소 영접하러 나와서 降書를 바침.
12	阿魯	51	없음	국왕이 몸소 영접하러 나와서 상소문과 降書를 바침.
13	蘇門答刺	51	없음	明 나라는 국왕을 도와 적군 군대를 제압하고 두목인 蘇干刺를 체포함. 국왕은 친히 상소문을 올리고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14	古臨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려 옴.
15	默伽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려 옴.
16	孤兒國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려 옴.

순서	나라	회수	갈등	갈등 및 해결방법
17	勿斯里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러 옴.
18	勿斯離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러 옴.
19	吉慈尼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러 옴.
20	麻離板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러 옴.
21	黎伐國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러 옴.
22	白達國	51	없음	국왕이 중국의 함대가 蘇門答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품을 바치러 옴.
23	南淳里	51	없음	국왕은 상소문,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24	撒發國	52-59	있음	帖木兒의 술법에 明의 장군이 계속 패전함. 金碧峰 장로는 해결책으로 王明을 추천함. 王明은 비범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봉황알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隱身草를 발견하고 신력을 갖추게 됨. 帖木兒는 술법을 써서 王明과 겨루지만 끝내 王明의 칼에 맞아 죽음. 오랑캐의 호국군사인 金毛道長은 金碧峰 장로와 신통력을 겨루지만 승부가 나지 않음. 그러자 金碧峰 장로는 金毛道長의 사부인 현천상제의 眞氣를 얻어 제압함. 다시 네 명의 도장이 나타나 撒發國을 고난에 빠뜨리는데 金碧峰 장로는 撒發國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봉황알에 넣고 악운을 막아줌.
25	錫蘭國	59-60	있음	국왕은 호두패를 보고 순종하는 척 하다가 明나라 군대를 공격함. 明 나라는 역공을 펼쳐 승리하고, 국왕의 비파골에 쇠사슬을 꿰어 배에 태움. 乃奈涂는 거대한 코끼리부대로 전쟁을 걸지만 明나라 화공에 죽음을 당함.
26	溜山國	60	없음	국왕은 호두패를 보고 함대가 도착하는 대로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순서	나라	회수	갈등	갈등 및 해결방법
27	大葛蘭	60	없음	이 나라 백성들이 무지하여 문자를 몰라 상소문이 나 降書를 쓰지 못하고, 국왕 利思多是 토산품을 진상함.
28	小葛蘭	60	없음	이 나라 사람은 무지하여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상소문과 降書는 작성하지 못하고 토산품을 진상함.
29	柯枝王國	60	없음	국왕은 明의 군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포박하여 상소문, 降書, 진상품과 함께 鄭和에게 바침.
30	古俚	61	없음	조서를 읽고 도장 하나, 황금 동전 열 자루를 국왕한테 전하면서 왕으로 봉함. 국왕은 상소문,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31	金眼國	62~71	있음	明에서 호두패를 보냈지만 국왕은 降書를 바칠 수 없다고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됨. 西海蛟는 전쟁에서 金天雷의 임군당에 맞아 죽음. 盤龍三太子는 부마와 해전을 계획하여 明의 함대를 공략하지만 전패하여 자살함. 부마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함. 부마의 유언에 따라 세 도사 (金角大仙, 銀角大仙, 鹿皮大仙)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전쟁 당일 세 도사는 구름타고 사라졌고 국왕은 어쩔 수 없이 降書와 상소문을 바침. 진상품을 바치려 했으나 鄭和가 거절함. 홍라산에서 대기하고 있던 세 도사 중 金角大仙과 銀角大仙은 明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金碧峰 장로는 鹿皮大仙을 鹿皮山神으로 봉하고 홍라산을 지키게 함.
32	吸葛刺王國	72	없음	국왕은 호두패를 보고 상황과악한 후 상소문,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33	木骨都東王國	72~77	있음	木骨都東 왕국의 雲幕啤는 明의 함대에서 장수들의 실력에 탄복함. 陀羅尊者는 張天師와 金碧峰 장로의 실력에 탄복하지만 굴복하지 않음. 사부인 鏡鑿長老의 도움을 청하지만 王尙書는 계책으로 鏡鑿長老를 사로잡고 木骨都東 국왕은 항복하며 상소문과 降書를 바침.

순서	나라	회수	갈등	갈등 및 해결방법
34	竹步王國	77	없음	국왕이 직접 降書와 상소문을 바침.
35	卜刺哇王國	77	없음	국왕이 직접 降書와 상소문을 바침.
36	刺撒王國	78	없음	국왕은 친히 함대로 와서 상소문과 降書 및 진상품을 바침.
37	祖法兒國	78	없음	국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상소문,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38	忽魯謨王國	79	없음	국왕이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대한 의장을 갖추어서 직접 영접하러 나왔고 상소문, 降書와 진상품을 바침.
39	銀眼國	80-84	있음	王尙書는 계책을 세워 百里雁과 오랑캐 병사들을 죽임. 남편인 百里雁의 원수를 갚기 위한 百夫人도 王尙書의 계략에 의해 죽음을 당함. 저항하던 引蟾仙師는 본래의 모습인 하얀 소로 변하고 국왕과 관리들을 생포함.
40	阿丹王國	84-86	없음	鄭和는 책략으로 阿丹 국왕을 제압하고, 국왕은 降書, 상소문과 진상품을 바침.
41	天方國	86	없음	鄭和, 金碧峰 장로, 張天師 및 여러 장수들은 天方國의 궁궐을 방문하고 국왕은 降書, 상소문과 진상품을 바침.
42	豐都鬼國	87-93		저승에서는 수많은 귀신들이 明에 의해 억울하게 죽었다고 소송을 걸어옴. 崔관관은 生死簿를 근거로 공평하게 문서를 쓰고 金碧峰 장로는 귀신들을 제도함.

이상에서 42개국과의 교류형태에 관해 서술했다. 이중 특히 金蓮寶象國, 羅斛國, 爪哇國, 撒發國, 錫蘭國, 金眼國, 木骨都東王國, 銀眼國 등 8개국과는 평화로운 교역이 아니라 치열한 저항과 정벌로 무력적 평화를 묘사하고 있다. 해역공간에서의 전쟁이 이후 제국주의의 확산과정에서 보여지듯 매우 참혹하고 치열함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는 매우 평화로운 ‘아그레망’<sup>142)</sup> 과정과도 같이 순조롭고 화해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중 古臨,

默伽, 孤兒國, 勿斯離, 吉慈尼, 麻離板, 黎伐國, 白達國 등 나라는 함대가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상소문과 진상품을 바치러 중국의 함대로 찾아왔고 明에서도 호의적으로 답례를 했다.

이들 서양 여러 나라를 경과하는 경로를 아래의 지도에서 재확인 할 수 있다.



<지도3><sup>143)</sup>

前述 한 바와 같이 이 경로는 오늘날 실제 지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리상 존재하지 않았거나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 예를 들어 金蓮寶象國, 女人國, 撒發國, 金眼國, 銀眼國, 豊都鬼國 등은 작가의 상상적 세계관이 빚어낸 공간이다. 여기서 明은 豊都鬼國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허구로 만들어진 나라와는 神과 魔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작가는 상상적 공간에서만 ‘황당한’ 신마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상상으로 그려진 ‘황당한’ 전쟁은 작품 속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판타지를 지닌 부분이라 생각한다.

142) 오늘날 평화협정 하에 서로 외교관계를 승인하는 문서화된 형식.

143) [http://blog.sina.com.cn/s/blog\\_4cfcdf540100coky.html](http://blog.sina.com.cn/s/blog_4cfcdf540100coky.html)



작품 속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인간과 신이 공존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爪哇國의 咬海干은 王神姑와 결혼을 했다. 王神姑는 爪哇國을 도와 明과 오랫동안 저항을 했다. 明의 장수인 唐英은 女人國의 黃鳳仙과 결혼했다. 결혼 후 黃鳳仙은 明의 장수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여기서 爪哇國은 실존한 나라이고 女人國은 허구의 나라이다. 인간과 결혼한 신(요괴)은 각자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 힘껏 싸우는 ‘영웅’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서술로 보아 중국 설화의 경우, 요괴들이 등장해서 인간과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으며 요괴임을 알면서도 특별히 이질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sup>144)</sup> 그리고 明의 장수들도 요괴와의 전쟁에서 두려움 보다 용맹하게 싸우는 것으로 다루어져 있다. 때문에 작품 속 인간, 神과 요괴 사이에서 명확한 경계가 없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묘사수법은 또한 『西遊記』와 유사하다. 『西遊記』에서는 인간 唐玄奘의 인솔 하에 孫悟空, 豬八戒와 沙悟淨의 신통력에 의해 서쪽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과정은 마치 『西洋記』속 鄭和의 통솔 하에 金碧峰과 張天師의 조력에 의해 서양으로 보물을 찾으러 가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리고 가상공간의 요괴 또는 神과의 전쟁에서 明은 오랫동안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다.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물러서는 요괴나 신들이 있는 반면 끝까지 저항하는 상황도 있다. 그러나 明은 ‘범행’을 저지른 요괴들을 죽이거나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너그러운 ‘용서’와 신의 경지에 오르도록 제도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다. 이러한 서술은 가상공간이든 현실세계든 모두 明의 정벌대상이 되고 제압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것은 天朝上國의 우월감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豊都鬼國도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인데, 즉 귀신의 나라이다. 여기에서 허구의 다섯 나라 중 전쟁에서 죽은 서양 사람들이 閻羅대왕한테 明에 억울하게 죽

144) 이후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화』, 제71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5, 서울, p.5.



음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閻羅대왕은 生死簿에 따라 죽은 서양 사람들의 前生과 現生을 다시 확인하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이 중 사람들은 모두 마땅한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閻羅대왕은 金碧峰 장로한테 서신을 보내 죽은 사람들을 제도하도록 제의했다. 그러자 金碧峰 장로는 죽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귀향의 길에 오른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작가는 불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輪回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오랑캐의 죽음은 明이 亂殺한 결과가 아니라 인과응보라는 주장이다.

본장에서는 우선 『西洋記』 속 서양을 구분하는 시점과 기타 자료와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서양의 이미지에 대한 서술에서는 서양을 야만, 무질서하고 인륜도덕이 저급한 존재로 다루고 있다. 이는 明을 문명의 대국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明은 서양의 제국에 대한 교화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문정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서양의 40여개 나라를 지나면서 순순히 항복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무력을 동원해 정복한 나라도 있다. 이러한 서양의 정벌을 통해 明은 지역 확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더불어 가상의 공간인 豊都鬼國에서 오랑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 영혼을 제도하는 것을 통해 정벌의 정당성을 제시했다.

## 제 4 장 『西洋記』에 나타난 해양성

본장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한 涉海性, 교류성, 모험성 등 다양한 ‘해양성’의 특징을 『西洋記』 속 해양출정 동인, 출항준비와 선박건조 과정, 다양한 바다 체험, 모험과 전쟁 그리고 조공품 등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우선 역사 속 정화가 서양으로 출정한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1403년 燕王 朱棣는 靖難을 일으켜 京師를 점령하고 제왕의 자리를 차지한 채 永樂元年을 선포했다. 그러나 “成祖는 惠帝가 해외로 도주했다고 의심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의 부강함을 異域에 과시하고자 했다. 永樂 3년(1405) 6월, 鄭和와 그의 동료인 王景弘<sup>145)</sup>에게 서양에 사신으로 다녀오라고 명령했다. 병사 이만 칠천 팔백여 명과 많은 재물을 준비했다. 길이 44丈에 폭 18丈인 큰 배를 62척이나 건조했다. 蘇州의 劉家河에서부터 출발한 선단은 바다를 통해 福建에 이르렀고, 다시 福建의 五虎門에서 돛을 달고 출항해, 처음 도착한 곳은 占城<sup>146)</sup>이었으며, 그 뒤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천자의 조서를 낭독했고, 그 지역의 대표에게 선물을 하사했고 服從하지 않은 경우는 무력으로 위협했다(成祖疑惠帝亡海外, 欲蹤跡之, 且欲耀兵異域, 示中國富強. 永樂三年六月. 命和及其儕王景弘等通使西洋. 將士卒二萬七千八百餘人, 多賚金幣. 造大舶, 修四十四丈, 廣十八丈者六十二. 自蘇州劉家河泛海至福建, 復自福建五虎門揚帆, 首達占城, 以次遍歷諸番國, 宣天子詔, 因給賜其君長, 不服則以武懾之).”<sup>147)</sup>

燕王은 왕위를 순조롭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靖難의 변을 일으켜 왕위 쟁

145) 王景弘(1368-1398)은 福建 漳平 출신으로 洪武 시기에 환관으로 입궁했다. 역사 속에서 王景弘은 중국의 항해가이자 외교관이다. 燕王이 靖難의 변을 일으켜 정권을 쟁탈할 때 王景弘도 동참을 했다. 이렇게 王景弘은 永樂帝의 신임을 받고 鄭和와 함께 副元帥의 신분으로 서양을 일곱 번 왕복을 했다. 그 뒤 宣德九年(1434)에 王景弘은 正元帥의 신분으로 서양으로 다시 출항했다. 이렇게 王景弘은 총 여덟 번 서양을 왕복했다.

146) 占城은 1669년, 베트남의 침략으로 베트남의 속국으로 되었다가 1832년에 나라가 멸망했다.

147) 張廷玉, 위의 책, 卷一百九十二 「宦官」.

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永樂帝가 됐다. 당시 봉건왕조 시대에서는 반란의 승리를 통해 조카 建文帝<sup>148)</sup>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永樂帝를 완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永樂帝는 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양으로의 항해를 결심한다. 마침 반란에서 공을 세운 鄭和는 永樂帝의 신임을 받고 근 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서양으로 떠나게 된다.

그러나 작품의 제8회에서는 “永樂帝가 등극하여 천하를 다스리던 때라, 성인이 나타나니 만물이 우러르는 시절” 이었고 “현명한 者들을 두루 찾아 등용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있다” 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明의 盛世를 경하하기 위하여 서양의 사신들은 본국의 진상품을 바치며 明에 귀의하기를 맹세하고 문서를 바쳤다.

따라서 張天師가 등장하면서 황제에게 “서양의 이 많은 진상품 속에서 제왕의 가문에 쓰는 보물은 없다” 고 했다. 그러자 황제가 그 보물이 무엇이라고 물어보자 張天師는 ‘傳國寶’ 라고 했다. 그리고 傳國寶의 유래와 행방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張天師는 전국옥새의 유래를 神格化 하면서 그 만들어진 과정을 간곡하게 설명하자 황제는 이 전국옥새가 아주 신비롭고 무한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張天師의 설명에 따르면 楚나라 시기에는 아직 한 덩어리의 玉이었지만 훗날 秦나라가 여섯 나라를 병탄하면서 이 玉을 다시 얻게 되어 옥새로 만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옥새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부귀와 장수를 누리며 영원히 번창하리라[受命於天, 富壽永昌]” 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로부터 한 나라의 황제로써 전국옥새를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옥새의 내력과 지식에 대한 張天師의 박식함을 볼 수 있다. 또한 『史記』와 『後漢書』의 기록을 통해 옥새의 외관과 의미부여에 대해 다시 검증해 볼 수 있다.

---

148) 朱允炆(1377-1402)은 明의 제2대 황제로 연호는 建文이고, 在位 기간은 1398-1402. 永樂帝가 정난의 변을 일으켜 성공하여 황위에 등극을 하였고, 그 뒤로 건문제는 행방불명됐다.

李斯가 和氏璧을 갈아 만들고 漢나라 제왕들이 대대로 이어받은 것을 전국새라고 한다. …… 옥새의 폭은 네 치쯤 되고, 꼭대기에 다섯 마리 용이 뒤엎혀 있으며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장수를 누리며 영원히 번창하리라.’ 라고 적혀 있다.

(李斯磨和璧之作，漢諸帝世傳服之，謂傳國璽。 …… 璽方四寸，上勾交五龍，文曰，‘受命於天，既壽永昌。’)149)

옥새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장수를 누리며 영원히 번창하리라’ 라고 적혀 있고, 폭은 네 치쯤 되고 꼭대기에 다섯 마리 용이 휘감은 모양을 장식했으며 옥으로 된 몸체의 길이는 일곱 치가 되는데 용 위쪽의 모퉁이가 깨져 있었다.

(其文曰，‘受命於天，既壽永昌’，方圍四寸，上有紐文繫五龍，璫七寸管，龍上一角缺。)150)

『西洋記』 속 옥새의 외관은 폭이 네 치쯤 되는 것과 꼭대기에 다섯 마리의 용이 엮혀 있다는 묘사가 앞서 두 자료와 거의 똑같이 기술하고 있고 옥새의 한 모퉁이가 깨져 있다는 점도 『西洋記』는 『後漢書』의 기록과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옥새에 새겨진 글자 하나가 다르게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西洋記』에서는 ‘富壽永昌’ 이라고 적혀 있고 앞서 두 자료에서는 ‘既壽永昌’ 이라 적혀 있다. 『西洋記』에서는 ‘既’ 을 ‘富’ 로 바꿔 적은 것이다. 앞서 두 자료는 “하늘의 명을 받은 즉시 장수를 누리고 영원히 번창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西洋記』는 “하늘의 명을 받아 부와 장수를 동시에 누리고 영원히 번창하리라” 고 적혀 있다. 장수뿐만 아니라 부를 추가했던 것은 경제적 궁핍과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부유를 동경했을 작가의 현실적 욕망이 작품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151) 또한 논문의 앞부분인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서 萬曆帝가 재물에 많은 욕심을 갖고 있다는 서술을 통해 은유적으로 萬曆帝를 풍자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49) 司馬遷, 『史記』, 卷6, 清乾隆武英殿刻本.

150) 範曄, 『後漢書』, 卷120, 「輿服志」 30.

151) 吳花, 위의 논문, p.51.

전국옥새는 권위의 상징으로 東漢의 光武帝, 東漢의 曹操, 唐 나라의 高祖, 宋 나라의 太祖, 元 나라의 太祖가 왕위에 즉위하고 있을 때 모두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明의 太祖가 元 나라의 順帝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순제가 전국옥새를 하얀 코끼리에 실은 채 서양으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그 전국옥새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부하들을 시켜 서양으로 전국옥새를 찾으러 가려했다.

황제는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의 신통력을 믿고 정서대원수 鄭和를 조력하여 서양으로 출항하기로 정하고 대신들에게 알린다.

짐은 지금 천하의 부를 모두 소유한 천자의 몸으로서, 위로 百代 제왕의 정통성을 이어 받고 아래로 백대 제왕의 장래를 열고 있노라. 하지만 역대 제왕들께서 전한 옥새가 서양으로 흘러가 짐이 심히 근심하는 바, 마땅히 장수들을 파견하여 서양 오랑캐들을 소탕하고 옥새를 가져와야 할 것이로다.....152)

(朕近日富有四海之內，貴爲天子，上承千百代帝王之統緒，下開千百代帝王之將來。所有歷代帝王傳國璽，陷在西洋，朕甚憫焉，合行命將出師，掃蕩西洋，取其國璽。)153)

이렇게 작품 속 출항의 이유가 밝혀지면서 통술자인 鄭和는 金碧峰 장로와 張天師의 조력 하에 함께 서양을 떠난다. 전국옥새가 작품의 전편을 관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국새의 역할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의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유의미하다.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국옥새는 대대로 군주의 손에 쥐어 있었고 이는 한 나라의 군주라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기록에 따르면 鄭和가 서양을 출항하게 된 계기는 建文帝의 행방을 찾는 것과 동시에 서양을 위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작품 속에서는 전국옥새를 찾고 서양을 위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양을 위무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작품에서 작가가 옥새를 찾는다고 서술한 것은 建文帝의 행방을 추적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永樂帝가 순

152) 홍상훈, 위의 책, p.214.

153) 羅懋登, 위의 책, p.192.

차적으로 왕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建文帝의 왕위를 찬탈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로 鄭和가 서양으로 建文帝를 추적하는 것과 옥새를 찾는 것은 모두 왕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다 154)는 지적이 있다.

작품 속 옥새가 서양으로 유실됐다고 하는 것은 서양원정을 실현하기 위한 핑계이기도 하다. 이는 옥새를 찾는 미명 하에 서양 제국에 대한 정벌을 통해 영토영역의 확장, 상업무역의 시장의 확장과 인문정신 영향력의 확장을 이루기 위한 구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양으로 출정하게 되는 과정의 서술에서 다양하게 추출되어지는 해양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4.1 해양출정 동인

鄭和가 서양으로 떠나게 된 계기는 황제가 張天師한테서 대대로 전해져온 옥새가 서양으로 유출되어 분실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사를 파견하여 옥새를 찾아오도록 명을 내렸다. 이러한 명분으로 鄭和는 함대를 이끌고 서양으로 출항하게 된다. 옥새는 제9회부터 제100회까지를 잇는 실마리가 된다. “황제가 과거 北平에 주둔하고 있을 때는 만리장성 너머로 나가 오랑캐들을 무찔러 屍山血海를 이루었지만 기껏 병아리 몇 마리 쓸어버린 것쯤으로 치부했고, 백만 대군의 적군들 속에서 대장의 목을 베는 일도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듯이 태연하게 해치웠으며, 설령 하늘 문을 뒤흔들고 지옥을 무너뜨리는 일도 애들 놀이쯤으로 여겼다. 155) (朕在北平鎮守之時，到邊牆外去砍韃子，砍得他屍積如山，血流成溝，朕只當掃了幾隻雛雞兒。朕在百萬軍中取大將之首，如探囊取物，神色自如。就是饒他會搖天關，摧地府，朕也只當個兒戲一般 …… )” 156) 이 때문에 서양으로 옥새를 찾으러 가는 일 역시 아주 쉽게 생각 할 수 있었던 것이다.

鄭和의 함대가 서양으로 가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서양을 위무하는 것과 전국옥새를 찾는 것이다. 함대가 ‘淳林邦’, ‘滿刺伽’, ‘撒發國’

154) 吳花, 위의 논문, p.68 참고.

155) 홍상훈, 위의 책, p.141.

156) 羅懋登, 위의 책, p.114.



에 도착하기 전 호두패를 미리 보내서 서양에 온 목적을 밝히고 있다.

서양으로 와서 오랑캐 땅의 정치를 보살피고 옥새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패를 받은 각 나라 국왕과 장수들은 함대가 도착하면 해당 국가에 옥새의 유무를 사실대로 보고하라. 이렇게 되면 다른 사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나라에서 이 틈을 이용해 간악한 짓을 꾀하거나 따로 분쟁을 일으켜 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이를 어기면 하늘의 벌령에 따라 추호도 용서 없이 너희 소굴을 쓸어버릴 것이다. 157)

(下西洋, 安撫夷荒, 鞫問玉璽等因. 奉此牌, 仰各國國王及諸將領, 如遇寶船到日, 許從實稟玉璽有無消息, 此外別無事端. 不許各國因緣爲奸, 另生議論, 致起爭端. 敢有抗違, 動幹天憲, 一體征剿不恕, 須至牌者.)158)

함대가 도착하는 날 옥새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없을 터이니, 무력을 믿고 함부로 덤비지 말도록 하라. 감히 고의로 이를 어길 때에는 그 소굴을 모조리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159)

(如遇寶船到日, 許從實呈揭玉璽有無, 此外別無事端, 不許恃頑鬥爭. 敢有故違, 一體征剿不貸. 須至牌者.)160)

함대가 도착하면 해당 나라에 옥새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알리게 바라노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기회로 여겨 간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계책을 꾸며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바라노라. 감히 이를 어기면 온 나라를 축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노라! 161)

(如遇寶船到日, 許從實呈揭玉璽有無消息, 此外別無事端. 不許各國因緣爲奸, 另生議論, 致起爭端. 敢有故違, 一體征剿不貸.)162)

위의 호두패에 적힌 내용으로부터 보면 길으로는 서양에 온 목적을 미리 알

157) 홍상훈, 위의 책, p.590.

158) 羅懋登, 위의 책, p.585.

159) 홍상훈, 위의 책, p.647.

160) 羅懋登, 위의 책, pp.648-649.

161) 홍상훈, 위의 책, p.742.

162) 羅懋登, 위의 책, p.754.

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협박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자료에서 明이 말하고 있는 뜻에 따르면 아무 사단이 없지만 만약 거역할 낌새가 보이면 그 나라를 “쓸어버린다”, “초토화시킨다”,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협박을 한다. 또한 “서양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항상 조정을 찾아와 조공을 바쳤고, 서양은 너무 외딴 곳이라 황제의 교화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파견하여 시찰하고 속국으로 복속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서양 제국이 明에 복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서양의 정벌은 잃어버린 옥새를 찾는다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옥새는 해외 이국에 대한 明나라의 침략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기능<sup>163)</sup>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 鄭和의 함대가 서양 제국을 지나면서 순순히 항복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끝까지 저항하다 굴복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40여 개의 나라에서는 하나 같이 옥새의 행방과 소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鄭和는 몇몇 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승전을 통해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降書를 받아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鄭和의 함대는 5-6년의 시간을 걸쳐 서양의 끝까지 가게 된다. 그동안 40여 개 나라를 지나면서 오랑캐를 위무하는데 성과를 거둔 반면 보물을 찾는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완벽한 서양원정을 이루지 못했다. 비록 작품 속에서 서양을 다스리고 옥새를 찾는다는 두 가지 목적이 서양으로 떠나는 원인이 되지만, 이 중 옥새를 찾는 것이 최종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옥새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의 항해를 실패로 볼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회에서 황제는 삼보태감에게 옥새의 행방을 물어본다.

황제가 말했다.

“전국옥새는 어찌 되었는가?”

삼보태감이 대답했다.

---

163) 吳花, 위의 논문, p.70.

“도무지 소식이 묘연했사옵니다.” 164)

(萬歲爺道: “傳國璽何如?” 元帥道: “杳無消息.” )165)

옥새는 결국 찾을 수 없었다. 永樂帝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가 천명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작자의 의도였을 것이라 추정된다<sup>166</sup>). 옥새는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작품의 제9회에서 ‘하늘이 세우신 이 왕조의 황제께서 등극하실 때……’ 라는 서술을 통해 永樂帝는 천명을 받은 제왕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옥새의 부재로 永樂帝의 ‘비정통성’ 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작가의 이러한 설정은 처음부터 옥새는 결국 찾을 수 없다는 설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회에서 황제는 옥새를 찾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봤고 “찾지 못했다” 는 대답에 아무 반응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양으로 옥새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단지 서양을 정벌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 이러한 구실로 서양 40여 개국을 정벌한 결과는 서양 제국으로 영토 확장과 경제활동의 확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가 황제의 최종목표였기 때문에 옥새의 유무는 무의미했던 것이다.

## 4.2 출항 준비와 선박건조

황제는 옥새를 찾으러 서양에 출정하기로 결정하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은 선박건조 명령이었다. 황제는 서양으로 갈 때 “요괴를 물리치는 일은 천사께서 맡으실 테고, 위기와 재난에서 구원하는 일은 국사께서 맡아주십시오!” <sup>167</sup>)라고 두 사람이 함께라면 서양을 정복하고 옥새를 찾아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자 金碧峰 장로는 황제한테 서양으로 진입하는 루트와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첩에 적어 설명한다.

첫 번째 수첩에는 서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나게 될 여러 나라의 이름이 적

164) 홍상훈, 위의 책, p.1214.

165) 羅懋登, 위의 책, p.1286.

166) 吳花, 위의 논문, 2017, p.68.

167) 홍상훈, 위의 책, p.208.

혀 있었다. 두 번째 수첩에는 서양의 원정을 통솔하는 征西大元帥, 征西副元帥와 출정할 장수인 征西左右先鋒大將軍, 征西大都督, 五營大都督 등 뽑아야 할 장수들의 명칭과 인원수를 모두 수첩에 적어두었다. 세 번째 수첩에는 서양으로 갈 교통수단인 배에 대한 설명이었다. 배는 총 다섯 대열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대열에는 寶船 서른여섯 척에 길이는 ‘마흔네 丈 4 尺’ 이고 폭은 ‘열여덟 丈’ 이며 각 아홉 개의 돛대가 설치되어 있다. 두 번째 대열에는 戰船 백팔십 척으로 길이는 ‘열여덟 丈’ 이고 폭은 ‘여섯 丈 여덟 尺’ 이며 각 다섯 개의 돛대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 대열에는 坐船 삼백 척이고 길이는 ‘스물네 丈’ 로 폭은 ‘아홉 丈 4 尺’ 이며 각 여섯 개의 돛대가 설치되어 있다. 넷째 대열에는 馬船 칠백 척이고 길이는 ‘서른일곱 丈’ 로 폭은 ‘열다섯 丈’ 이며 각 여덟 개의 돛대가 설치되어 있다. 다섯째 대열에는 糧船 이백사십 척이고 길이는 ‘스물여덟 丈’ 로 폭은 ‘열두 丈’ 이며 각 일곱 개의 돛대가 설치되어 있다.<sup>168)</sup> 이상에서 서술된 준비절차 중에서도 세 번째 이후 수첩에 적시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 외관과 수량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西洋記』속 선박 구성도

진열위치	배의 종류	사이즈	수량(척)
첫째 대열	寶船	길이 44丈 4尺, 폭 18丈, 돛 9개	36
둘째 대열	戰船	길이 18丈, 폭 6丈 8尺, 돛 5개	180
셋째 대열	坐船	길이 24丈, 폭 9丈 4尺, 돛 6개	300
넷째 대열	馬船	길이 37丈, 폭 15丈, 돛 8개	700
다섯째 대열	糧船	길이 28丈, 폭 12丈, 돛 7개	240
합계			1,456

모두 다섯 대열에 총 1,456 척의 배가 그려져 있는데, 각 배의 중간에는 사방이 트인 대청 세 개와 벽과 문으로 막힌 대청 다섯 개, 그리고 사방이 트인 전각 다섯 개와 벽과 문으로 막힌 전각 일곱 개가 있었다. 또 각각의 배 위에는 삼층의 天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스물네 명의 官軍이 배치되어 낮에는 바람과 구름 같은 날씨를 살피고 밤에는 별자리를 관측하게 했다.<sup>169)</sup>

168) 羅懋登, 위의 책, pp.187-188 참고.

169) 羅懋登, 위의 책, p.188 참고.

황제는 수첩을 받아보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선단을 이끌 원정대를 구성했다. 우선은 欽天監과 誠意伯의 추천 하에 征西大元帥 鄭和를 뽑았고 兵部尙書 王아무개를 뽑았다. 이어 征西左右先鋒 두 명 뽑고, 五營大都督과 다섯 명, 四哨副都督 네 명, 지휘관 백 명과 千戶官 백오십 명, 百戶官 오백 명을 뽑았다. 또한 陰陽官 열 명, 通譯官 열 명, 醫官 백 명과 의사 서른 명을 뽑았다. 마지막으로 정예병 십만 명을 소집하고 명마 천 필을 구입했다. 정예병이 소집되는 대로 매일 훈련을 진행했다. 서양으로 출정한 인마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6〉 서양으로 출항할 인원수

직위	이름	인원수(명)
征西大元帥	鄭和	1
兵部尙書	王아무개	1
征西左先鋒	張計	1
征西右先鋒	劉蔭	1
第一營 大都督	王堂	1
第二營 大都督	黃棟梁	1
第三營 大都督	金天雷	1
第四營 大都督	王明	1
第五營 大都督	唐英	1
第一哨	黃全彦	1
第二哨	許以誠	1
第三哨	張柏	1
第四哨	吳成	1
指揮官	-	100
千戶官	-	150
百戶官	-	500
陰陽官	-	10
通譯官	-	10
醫官	-	100
의사	-	30
정예병	-	100,000
합계		100,913
*명마(필)		1,000

서양으로 출항할 인원으로 총 100,913 명을 모집했고 명마를 천 필 구입했다. 출항인원이 확정됐고 배를 건조하는 일 만 남았다. 그러나 이 많은 배를 단 시간에 건조하려면 대량의 목재와 재물이 필요했다. 황제는 옥새를 구하고 싶은 맘이 더 급했기 때문에 황궁을 짓는 공사를 멈추고 모든 재물과 목재를 배 건조하는데 쓰기로 결정했다.

조선소를 향후 배가 출항할 三汊口 근처에 설치하고 배를 건조하는 장인들을 소집했다. 그러나 목재는 龍潭江 天寧洲에 있어 조선소로 운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겨울이라 강물이 줄어들어 물길로 운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일 내로 배를 건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황제는 金碧峰 장로에게 도움을 청했고, 金碧峰 장로는 “모든 나무가 초닷새 寅時에 조선소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과연 이날 공부의 도장이 찍혀 있는 나무들이 엄청난 밀물을 따라 조선소로 떠 내려왔다.

재물과 목재가 모두 준비가 되자 배를 건조하는 공사도 시작했다. 그러나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감독을 맡고 있는 王尙書가 金碧峰 장로한테 도움을 청했다. 金碧峰 장로는 천하의 장인들을 널리 불러 모으라 알려줬다. 그러자 8개월도 되지 않는 사이에 모든 선박 건조가 완성되었다. 이는 또한 하늘의 신선인 魯班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박건조의 마지막 단계인 닻을 주조해야 했다. 金碧峰 장로는 닻의 사이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대로 주조하라”고 분부했다. 대략 상, 중, 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아홉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닻은 ‘일곱 丈 석 尺’ 길이의 자루에 ‘세 丈 두 尺’ 길이의 날, 그리고 ‘여덟 尺 다섯 寸’ 높이의 고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 닻은 ‘다섯 丈 세 尺’ 길이의 자루에 ‘두 丈 두 尺’ 길이의 날, 그리고 ‘다섯 尺 다섯 寸’ 높이의 고리가 필요하며, 세 번째 닻은 ‘네 丈 세 尺’ 길이의 자루에 ‘한 丈 두 尺’ 길이의 날, 그리고 ‘석 尺 다섯 寸’ 높이의 고리가 필요했다. 그 외의 것은 이 기초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치수를 정한다.<sup>170)</sup>

170) 羅懋登, 위의 책, p.219 참고.



장인들은 분부대로 닻을 주조해보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겨우 닻에 붙일 날만 네 개를 주조하고 고리 하나만을 만들었다. 장인들이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변명하자 鄭和는 48명의 장인들을 梟首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胡釘角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닻을 주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래섬에 천막을 하나 치고 주위 백 걸음 이내에는 누구도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자신을 부르거나 안쪽의 낚시를 살피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십사일(十日)이 지나자 胡釘角은 천막을 나와 천막을 철거하고 사십 아홉 개의 용광로를 설치하게 했다. 그리고 석탄과 철을 운반하라고 했고 이튿날 五時에 불을 붙이라 했다. 제사를 지낸 후 八卦의 방위에 따라 주문을 외우자 불길과 바람이 어우러져 밤낮으로 타올랐다. 이렇게 십사일이 지나자 모든 닻이 완성됐다.<sup>171)</sup> 선박과 닻을 주조하는 과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7〉 선박건조 과정 및 일정

품목	작업개시 시간	과정 및 일정
조선소	8월 20일	下新河 三汊口 草鞋夾에서 조선소 건축 완공.
목재조달	9월 5일 寅時	天寧洲에 있던 공부의 도장이 찍힌 목재는 양자강의 밀물을 따라 조선소로 몰려 옴.
선박 건조	9월 6일 寅時	8개월 안에 완성 됨. 즉 다음해 5월 초에 완공.
닻 건조	5월 초	일반 장인 1개월 허비. 胡釘角이 땅속에 닻 모양의 굴을 파는데 14일, 닻을 만드는데 14일 걸림, 3일 후 흙 속에서 닻을 꺼냄. 약 2개월 걸림 즉 7월 초에 완공.

위의 도표에 따르면 선박 건조 과정은 그해 9월 6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7월 초에 완공됐다. 그러나 작품에서 서양으로 출항한 시간은 永樂 5년(1407년) 5월 15일<sup>172)</sup>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작가가 시간 계산에서 오차가 생긴 듯하다.

배와 닻을 주조하는 공사가 모두 마쳐졌다. 장수 선발과 정예병의 모집도 모

171) 羅懋登, 위의 책, pp.228-231 참고.

172) 羅懋登, 위의 책, p.233.

두 끝나자 출항의 날이 정해졌다. 출항 당일 鄭和, 王尙書, 金碧峰 장로, 張天師의 함대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배는 사령부가 설치된 배였는데, ‘帥’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열 길 높이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배 앞쪽에는 몇 개의 하얀 패가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 중앙의 패에는 ‘大明國統兵招討大元帥’라고 적혀 있고 왼쪽 패에는 ‘回避’, 오른쪽 패에는 ‘肅靜’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배도 사령부가 설치된 배였는데, 역시 ‘帥’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열 길 높이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배 앞쪽에는 몇 개의 하얀 패가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 중앙의 패에는 ‘大明國統兵招討副元帥’라고 적혀 있고 왼쪽 패에는 ‘回避’, 오른쪽 패에는 ‘肅靜’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 번째는 金碧峰禪師가 마련된 배였는데 열 길 높이의 慧日旗가 세워져 있고, 배 앞쪽에는 몇 개의 하얀 패가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 중앙의 패에는 ‘大明國國師行臺’라고 적혀 있고 왼쪽 패에는 ‘南無阿彌陀佛’, 오른쪽 패에는 ‘九天應援天尊’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 번째 배는 天師府가 설치된 배였는데 열 길 높이의 七星旗가 세워져 있고, 배 앞쪽에는 몇 개의 하얀 패가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 중앙의 패에는 ‘大明國天師行臺’라고 적혀 있고 왼쪽 패에는 ‘天下鬼神免見’, 오른쪽 패에는 ‘四海龍王免朝’라고 적혀 있었다.<sup>173)</sup>(第一號是個帥府, 扯著一桿十丈長的‘帥’字旗, 船面前掛了幾面粉牌, 中間牌上寫著‘大明國統兵招討大元帥’, 左邊牌上寫著‘回避’, 右邊牌上寫著‘肅靜’. 第二號也是一個帥府, 也扯著一桿十丈長的‘帥’字旗, 船面前掛了幾面粉牌, 中間牌上寫著‘大明國統兵招討副元帥’, 左邊牌上寫著‘回避’, 右面牌上寫著‘肅靜’. 第三號是個碧峰禪寺, 也扯著十丈長的慧日旗, 船面前掛了幾面粉牌, 中間牌上寫著‘大明國國師行臺’, 左邊牌上寫著‘南無阿彌陀佛’, 右邊牌上寫著‘九天應元天尊’ 第四號是個天師府, 也扯著十丈長的七星旗, 船面前掛了幾面粉牌, 中間牌上寫著‘大明國天師行臺’, 左邊牌上寫著‘天下鬼神面見’, 右面牌上寫著‘四海龍王免朝.’)<sup>174)</sup>

출항 준비는 임의로 대충 완성된 것이 아니라 金碧峰 장로가 황제에게 바친

173) 홍상훈, 위의 책, pp.258-259.

174) 羅懋登, 위의 책, pp.237-238.

수첩의 기록에 따라 인원수, 함대의 사이즈와 닻의 사이즈 등을 엄격히 준수 하에 완성되었다. 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지만 金碧峰 장로와 신선들의 협조 하에 모두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듯 배는 인력과 신력의 협조 하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배를 주조 하는 것은 서양으로 출항하기 위한 필수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배는 사람과 바다가 접촉하는 橋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배의 이용은 사람이 해양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반응한 산물이기도 하다. 사람은 배를 이용해 바다를 넘어 이역을 탐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바다를 통해 넘어온 문화는 현지의 토종문화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가 탄생된다. 새로 탄생된 ‘혼종’ 문화는 현지에 수용되거나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배’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작품 속 배의 사이즈, 수량과 건조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항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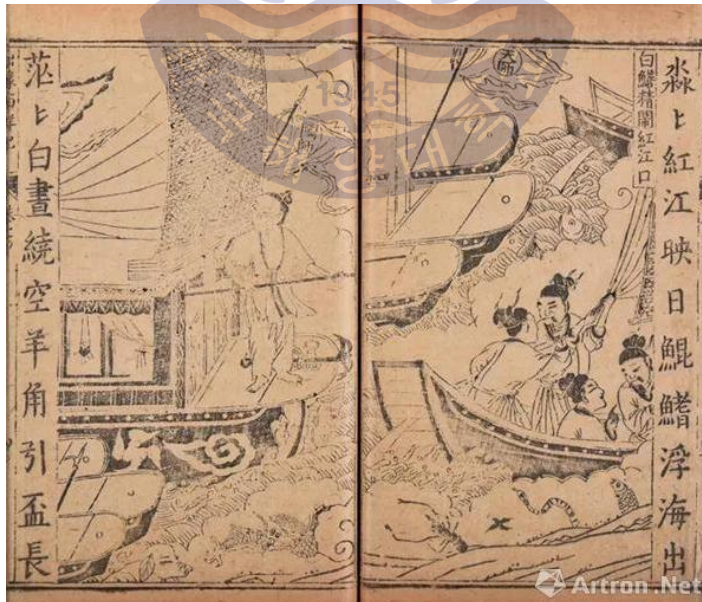
출항준비와 선박건조가 완료됨에 따라 함대는吉日을 택하여 서양으로 출항하게 된다. 이에 처음으로 항해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변화무상한 바다를 경험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 원정대의 다양한 바다체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3 다양한 바다 체험

『西洋記』 속 내용에 따르면 정화의 함대는 永樂 5년(1407년) 5월 15일에 출항을 했다. 작품에서 서양을 향한 원양항해의 모든 루트가 바다를 경유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출항하여 장강을 따라 나가서 紅江 입구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 곳을 지나면 삼백 리에 이르는 白龍江이 나타난다. 앞으로 좀 더 나가면 바다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앞으로 진입하기 힘들다. 왜냐면 앞에 팔백 리의 軟水洋이 나타나는데 軟水洋은 말 그대로 물이 연약하여 거위 깃털도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버리고 부평초 하나도 떠 있을 수 없다. 여기를 지나면 또 吸鐵嶺이 나타나는데 이곳도 지나가기 힘들다. 그것은 吸鐵嶺의 바위는 철로 된 모든 물체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함대는 침몰할 위험이 있다. 여기를 지나야 비로소 서양의 바다에 들어서게 된다. 함대는 이 많은 어려운 상황

을 결국 극복하고 서양을 향하게 된다.

함대는 三叉河에서 출발하여 紅江 어귀에 막 도착했을 때 여러 정령이 출몰해 파도를 일으켜 함대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자 張天師는 부적을 날려 紅江 입구를 지키고 있던 黑風大王을 불러 연유를 물어보자 제사만 지내주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제사가 마치자 물속의 정령들은 기뻐하며 떠났지만 하얀 드렁허리의 정령은 떠나려 하지 않았다. 張天師는 우선 紅江 어귀의 白鱧大王으로 봉하고 훗날 함대가 귀항 할 때 사당을 세워 영원히 제사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떠났다. 함대가 다시 출항하여 白龍江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나 배들이 뒤집힐 위험에 처했다. 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백룡이 횡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金碧峰 장로는 대나무 광주리에 종이를 발라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동물의 내장, 고기와 피로 속을 채워 물에 던지라고 했다. 백룡은 이것들로 배를 채우고 물러갔고, 풍랑이 가라앉아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아래 그림은 白鱧大王이 紅江 어귀에서 풍랑을 일으키는 그림이다.



〈그림2〉 풍랑을 일으키는 白鱧大王<sup>175)</sup>

175) [http://www.360doc.com/content/17/11/18/11/7872436\\_704874443.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11/18/11/7872436_704874443.shtml)

머칠을 가고 나자 함대의 병사들이 졸음을 이기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삼보태감은 혹시 무슨 睡魔가 들까 걱정이 되서 金碧峰 장로한테 물어본다. 金碧峰 장로는 “저번엔 강이었는데, 지금은 바다가 아납니까? 예로부터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담백하다.” 고 했는데, 군인들이 이 짠물을 먹으니 속이 불편해서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先前是江裏, 這如今是海裏. 自古道 : ‘海鹹河淡’, 軍人吃了這個鹹水, 故此臟腑不伏, 生出病 來).176)” 177)라고 말했다. 金碧峰 장로는 염주를 삼보태감에게 주면서 물을 뜰 때 염주를 물 위에 놓으면 소금기가 빠지고 담수로 변해 마셔도 무탈할 것이라 알려주었다. 여기를 분기점으로 보아 함대는 강에서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 軟水洋에 도착한다. 軟水洋은 말 그대로 물이 연약하여 거위 깃털도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버리고 부평초 하나도 떠 있을 수 없다.178) 때문에 함대는 인력으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자 삼보태감은 金碧峰 장로께 도움을 청하러 갔고, 金碧峰 장로는 용왕에게 부탁하여 팔백리의 부드러운 물을 모두 바리때에 넣고 단단한 물을 빌려와 채워 넣고 나서야 함대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179) 얼마 지나지 않아 호위병이 달려와 吸鐵嶺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吸鐵嶺은 금속을 빨아들이는 지역으로 함대에 박혀 있는 못, 닳, 무기, 철로 만든 모든 물체를 빨아들여 배를 침몰하게 할 수 있다. 金碧峰 장로는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하자 서른여섯 하늘 병사가 내려와 배에 실려 있던 쇠뿔과 무기들을 모두 서양 바다 입구까지 날라 놓았고, 서해 용왕더러 물에 사는 모든 짐승을 소집하여 함대를 서양 바다의 입구로 날라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할 사이 배는 이미 안전하게 서양 바다의 입구에 도착했다. 이 시점으로부터 더 나가면 서양 바다로 진입하게 된다. 서양 바다로 들어오자마자 바다에서 모진 광풍과 험난한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 삼보태감과 王尙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했다. “하늘의 신들이 보우해주시면 明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원히 향을 피우고 등불을 피워

176) 羅懋登, 위의 책, p.265.

177) 홍상훈, 위의 책, p.283.

178) 羅懋登, 위의 책, p.116 참고.

179) 羅懋登, 위의 책, p.278 참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나이다.” 라고 하자 하늘에서 손에 붉은 등불을 든 飛天宮의 주인이 호통을 치는 바람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sup>180)</sup>

이상의 항해 경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8〉 함대가 淡水를 지나는 과정

지역		경과	해결 과정
강	三汊河	출항	-
	紅江	정령들과 드렁허리 정령이 파도를 일으켜 함대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제사를 지내자 정령들은 떠남. 드렁허리 정령을 紅江 어귀의 白鱧大王으로 봉하고 훗날 함대가 귀항 할 때 사당을 세워 영원히 제사를 받을 수 있게 약속함.
	白龍江	사람을 잡아먹는 백룡	대나무 광주리에 종이를 발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속에 동물의 내장, 고기와 피로 채워 넣음. 강으로 던져 백룡이 배불리 먹자 떠남.
바다	바다 진입	병사들이 수마에 걸린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줄리고 있다.	병사들이 강에서 바다로 들어오자 마시는 물이 적용이 안됨. 金碧峰 장로가 염주를 건네주며 물을 뜰 때 넣으면 염수가 담수로 변해 사람들이 먹어도 탈이 없음.
	軟水洋	물이 연약해서 깃털도 바다 밑으로 가라 앉는다. 함대가 침몰 위험이 있다.	金碧峰 장로는 바리때에 부드러운 물을 담고 단단한 물로 바다를 채워 함대를 무사히 통과하게 함.
	吸鐵嶺	철로 된 모든 물체를 빨아 들인다. 함대가 침몰 위험이 있다.	하늘 장수들은 무기와 닳을 옮겨가고 바다 속 짐승들이 함대를 옮김.
	서양 바다	심한 바람과 파도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鄭和와 張天師가 기도하자 天飛宮이 내려와 호통을 치자 바다가 다시 조용해짐.

이상과 같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의 험난함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신통력에 기대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180) 羅懋登, 위의 책, pp.283-284 참고.



있다. 여기서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함대는 三江河로부터 출항하여 강에서 바다로 접어들고 서양 바다로 진입했다. 가는 지역마다 고난을 겪었지만 金碧峰 장로의 협조로 무탈하게 경과할 수 있었다. 작은 귀신들의 방해와 金碧峰 장로의 신통력으로 제압되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무미건조한 항해에 활력을 주입하고 취미성을 가했다.

그리고, 함대가 서양 40여 개의 나라를 정벌하고 명으로 귀항하는 과정도 흥미롭다. 함대는 서양의 끝자락인 鄴都鬼國에서 명으로 귀항의 길에 들어선다. 귀항의 길에는 밤낮으로 淸風과 明月의 보살핌으로 한동안 순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信風童이 바람의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風婆娘이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 거센 풍랑을 일게 했다. 그러자 명나라의 劉谷賢이라는 병사가 바다에 빠져버렸다. 이에 鹿皮大仙은 風婆娘를 제압하고 佗羅尊者는 信風童을 제압해 함대로 압송했다. 그리고 碧水神魚는 바다에 떨어진 劉谷賢을 구해 함대로 돌려보냈다. 여기서 鹿皮大仙, 佗羅尊者와 碧水神魚은 모두 명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귀신들이다. 이들은 결국 명에 항복하고 金碧峰에 의해 제도를 받아 현지의 신으로 봉해졌다. 함대가 명으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과 고난을 겪자 바로 중지한다. 이는 귀신에서 신으로 제도를 받는데 대한 답례이자 함대를 향한 충성심을 표출한 행위였다.

함대는 계속 명으로 향했고 거의 명에 다 왔을 때 白鱧大王은 紅江 어귀에서 도사로 변해 함대로 올라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상황을 알아본 張天師는 “당시 제가(張天師) 칙서를 하나 써서 임시로 紅江 어귀의 白鱧大王에 봉해주면서, 함대가 돌아올 때 황제 폐하께 아뢰어서 정식으로 칙서를 내려주고, 사당을 세워서 영원히 제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sup>181)</sup> 라고 하자 鄭和는 “황제폐하께 상주하여 봉호를 내리겠다” 는 말을 하는 즉시 白鱧大王은 바로 물러섰다. 그리고 여러 정령이나 신들이 기다린 듯 줄줄이 함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지가 여기 계셔서 알현하러 왔습니다.”<sup>182)</sup> “저희는 이미 옥황상제의 칙명을 받아 이곳에서 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계

181) 홍상훈, 위의 책, p.1184.

182) 홍상훈, 위의 책, p.1189.

의 제왕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기에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sup>183)</sup>라고 했다. 白鱗大王은 임시로 紅江 어귀의 신으로 책봉되었지만 황제의 인정을 받은 정식적인 칙서를 요구했고, 四海의 여러 신들은 옥황상제의 책봉을 받았지만 인간 세계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모두 함대로 몰려왔던 것이다. 이는 서양 제국의 인간뿐만 아니라 四海의 모든 신들도 明의 황제에 귀속하는 충성심을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술로 서양원정은 서양 제국 내지 바다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鄭和의 함대는 토지 영역의 확장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明에 대한 이역의 충성심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明의 용맹한 장수들의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처음 바다를 접한 사람은 미지세계에 대한 공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모험을 통한 성공의 희열이 더 크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용맹하게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 明의 장수가 탐험을 통한 성공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4 모험과 전쟁

작품에서 출항을 소란스럽고 장대하게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바다로 내보냈다. 제18회에서 張天師의 樂舞生과 도사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부러 알리지 않고 술법을 부려 출항했다고 하지만, 이는 鄭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두려운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함대는 강에서부터 출항하여 바다로 들어서는 과정이다. 강에서 바다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인상과 심정을 아래의 시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今朝入南海	오늘 아침 남해에 들어서니
海闊不可臨	드넓은 바다 서 있기도 힘들구나.
茫茫失方面	아득하게 방향도 모르겠고
混混如凝陰	음기가 뭉친 듯 혼탁하기 그지없구나.

183) 홍상훈, 위의 책, p.1196.

雲山相出沒	산더미 같은 구름 나타났다 사라지고
天地互浮沈	하늘과 땅이 서로 떠올랐다 가라앉는구나.
萬里無涯際	만 리 너머까지 끝이 없으니
雲何測廣深	넓이와 깊이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朝波自盈縮	조수와 파도 저절로 차 줄어드니
安得會虛心 <sup>184)</sup>	어쩌면 마음 비울 수 있을까? <sup>185)</sup>

기나긴 세월을 통해 서역을 다녀와야 하는 항해는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떠난다 하지만 처음으로 출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레면서 두렵고, 환희와 공포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바다는 신비롭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은 항상 미지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도전과 개척의 천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개방되어 있는 바다 공간은 개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의 변화무상한 날씨로 인해 위험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이는 바다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심리다. 모험이란 미지와 위험이 존재한 사물에 대한 도전이다. 즉 도박과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탐험과정을 통해 성공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동경하지만 감히 도전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이다. 이 중명 나라 시기의 鄭和가 그 예이다. 鄭和의 일곱 번 서양원정으로 동남연해에서 출발해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까지의 해상 루트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 제국과의 외교교섭을 통해 단절되어 있는 해상경제를 자극했다. 鄭和의 서양원정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시 작품 속으로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 공을 세워 불후의 명성을 이루려는’ 포부를 안고 출항을 하게 된다. 이 포부는 출항할 원동력이고 끝까지 해쳐나갈 수 있는 정신력의 지주가 된다. 바다 탐험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만큼 뜻밖의 희열을 안겨주는 것이 매력이다. 그러나 바다를 통한 서양원정은 모험인 만큼

184) 羅懋登, 위의 책, p.263.

185) 홍상훈, 위의 책, p.281.

순탄할 수만은 없다. 미지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서양으로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심정도 보인다.

明 나라를 떠나 서양으로 향하는 길은 늘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吸鐵嶺을 지날 때 鄭和는 근심에 쌓여 “폐하를 위해 힘쓰고 明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공을 세워 불후의 명성을 날리고 싶었다.” 고 하지만 “가는 길이 이렇게 풍랑이 심하고 위험하여 날마다 놀라고 걱정하며 고생하게 될 줄을 짐작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출항 후 처음으로 풍랑을 겪으면서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무섭기만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바다에 몸을 묻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바다에서 풍랑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작가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사람들이 낯선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모험을 통해 공을 세워 불후의 명성을 날리기 위한 모순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서양으로 계속 나간다.

작품 속 대표 인물인 鄭和의 개인적 성공은 서양으로 출항한 모든 장수와 병사들의 성공과 같다. 때문에 鄭和가 바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모험 성공을 통해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 모순적인 심리를 지녔던 것은 함대의 모든 사람의 희망과 염원에 다름 아니다.

작가는 작품 속 몇 명의 병사와 장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서양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 성공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제15회에서 鄭和가 처음으로 등장해 “대원수로서 서양으로 출항하라는 어명을 받고 황제의 복에 힘입어 바다에 나가 공을 세우고 만 리 천하에 위세를 떨치겠노라” 고 자신만만하게 맹세를 했다. 또 제21회에서 鄭和는 임명장을 받던 날에 “그저 폐하를 위하여 힘쓰고 우리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공을 세워 불후의 명성을 날리게 되기만을 바랐다” 고 기대하며 서양으로 떠나게 된다. 여기서 나라의 위세를 널리 알리려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성공도 강조하며 입신양명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작품 속 몇 명의 병사와 장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서양을 향한 두려움과 성공을 갈망하고 있는 내심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 李海와 王明을 예로 들어 보자.

李海는 水軍右衛에 소속된 병사이고 출항한지 얼마 안 되어 백룡이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다에 떨어졌다. 바닷가로 떠밀려간 李海가 깨어나 사방을 둘러보지만 망망대해의 수평선만 보일 뿐이었다. 다시 함대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종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절망으로 휩싸인 李海는 고향, 가족, 친구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여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생각에 몹시 우울했다. 그러나 우연히 어미 원숭이와 네 마리의 원숭이를 만나게 된다. 어미 원숭이는 나중에 함대가 明으로 돌아올 때 李海를 다시 배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한다. 잠깐 동안 좌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앞날을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목숨을 네 마리의 원숭이에게 맡겨본다.

산발치의 바위에 한동안 생활하고 있는 李海는 매일 아침 산꼭대기에서 나는 천둥소리에 잠을 깬다. 그러자 원숭이 요정은 그 소리를 낸 큰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초지종 설명했다. 그러나 李海는 큰 구렁이의 머리에 박혀있는 夜明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서양에 가지 못했지만 夜明珠를 폐하에게 진상하면 고관대작에 봉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李海는 치밀한 계획으로 夜明珠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원숭이 요정은 탄복하는 동시에 겁을 먹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서 몇 백 년을 살면서 큰 구렁이를 처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개 중국인 병사가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구렁이를 죽이고 夜明珠를 얻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보다 능력이 뛰어난 원숭이 요정이지만 중국 사람의 능력에 탄복하고 성인군자로 생각한다. 출항으로부터 서양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곤란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장군 및 병사들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서양의 끝까지 쫓아간다. 이는 성공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애국 감정이 마음 속 깊은 구석에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97회에서 어미 원숭이는 李海를 다시 明 나라 함대로 데려다주었고 100회에서 황제께 夜明珠를 진상하여 벼슬과 금은의 상을 후하게 받았다.



작품 속에서 李海는 유일하게 서양을 갔다 오지 않고도 공을 세워 고관대작에 진급한 인물이기 때문에 필자는 의도적으로 소개해 보았다.

王明은 원래 南京 龍灘左衛巡邏에 소속된 병졸이었다. 함대가 ‘撒發國’에 도착할 때 王明은 봉황알을 찾아오라는 명을 받았다. 그런데 봉황알을 찾으러 가는 길에 의외로 ‘隱身草’라는 보물을 얻게 된다. 이 보물을 손에 쥐면 몸이 투명하게 변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다. 金碧峰 장로가 이 보물을 보고 “잘 간수하도록 하게. 자네가 가문을 일으키고, 조상을 빛내고, 처자식에게 음덕을 베풀며 황금 허리띠를 차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이 풀에 달려 있네.” 王明은 앞으로 공을 세워 고관대작에 봉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했다.

王明은 ‘撒發國’과의 전쟁에서 隱身草를 손에 들고 帖木兒이라는 서양의 장수를 감쪽같이 죽이고 큰 공을 세웠다. 또한 王明은 隱身草를 들고 신선인 척하고 ‘古俚王國’으로 미리 탐문하러 들어가 古俚 국왕의 신임을 얻고 서신을 전해 明 나라 함대가 서양으로 온 연유를 설명하자 古俚 국왕은 바로 降書, 상소문과 진상품을 준비하여 바치기로 했다. 王明은 隱身草를 이용해 향로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살의 모양으로 만들어 ‘祖法兒國’ 국왕에게 앞으로 며칠 이내 明 나라 함대가 도착하기 때문에 미리 상소문, 降書와 진상품을 준비하라고 분부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왕은 보살이 현신하여 조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王明은 隱身草의 신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지략으로 서양 제국에 도착하여 호두패를 전달하거나 보살로 변장해 예언의 형식으로 明이 온 취지를 알리고 여러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王明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모두 후에 明으로 다시 돌아가 벼슬과 상을 받기 위한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비로운 바다는 여러 기회가 주어져 사람들이富를 추구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明 나라 후기 자본주의의 맹아로 시민계층이 갈수록 강대해 졌다. 상업적 이익의 자극으로 시민계층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 경제면에서 부유해 지는 것과 정치면의 신분상승을 희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통치계급들의 압박과 배제를 받았다. 또한 해금정책은 시민계층으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상상과 갈망을 자극했다. 바다라는 공간은 여러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계층의 노력을 통해 꿈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우연적이거나 재난을 겪는 상황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된다.<sup>186)</sup>

작품 속 바다는 무궁한 가능성과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모험과 우연의 상황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 때문에 꿈의 실현과 입신양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여기서 李海와 王明의 모험을 통한 개인의 인생성공을 다루고 있지만 나아가 明 나라가 서양 제국으로 영토 확장, 경제활동의 확장과 인문정신 영향력의 확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으로의 항해 루트는 탐험이자 개척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면 明의 함대가 서양 제국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서양이라는 공간은 늘 미지의 대상이 된다. 서양의 40여 제국을 정복하는 과정이 영토의 확장 과정이라 볼 수 있고 물물교환(조공품과 답례품)을 통한 경제범위의 확장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明의 문명과 강대함을 서양에게 알리는 과정을 인문정신 영향력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탐험을 통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회에서 공로에 따라 상을 내리는 부분에서 황제는 친히 王明과 李海에게 벼슬, 금과 은을 하사하도록 명령했다. 李海와 王明의 성공담은 작품 속의 전형적인 예였다.

서양 제국의 정벌에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용맹한 장수와 병사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미지 세계에 대한 탐구정신과 탐험하고자하는 정신이 밀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정벌이 가능했다. 서양 40여 제국을 정벌하는 동시에 물물교환의 장도 펼쳐지게 된다. 즉 조공과 답례의 절차다. 이는 외역과의 교류 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로써 서양 제국과 해양교역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경제영역의 확장

---

186) 劉香玉, 위의 논문, p.27.

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 서양 제국에서 얻은 ‘전리품’인 조공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5 해양 물산 : 조공물

『西洋記』에 드러난 출항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현대적 의미로 볼 때 항해의 최대 목표는 물류와 교역이다. 당시 鄭和 함대는 귀항하면서 너무나 많은 희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주로 조공품의 형태로 입수된 교역품 중에서 당시의 교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긴다. 본 절에서는 조공품을 살펴보려고 한다.

明 나라의 함대는 서양 제국을 통과하면서 진상품을 받게 되고 또 적당히 상응하는 답례를 한다. 서양의 제국은 보통 지역과 기후의 특징에 따라 본국에서 출산되는 토산품을 진상품으로 바쳤다. 서양의 진상품 종목과 明의 답례품을 모두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9〉 서양의 해양성 진상품과 明의 답례품 일람

순서	서양 나라	조공품	明의 답례
1	金蓮寶象國	寶母, 海鏡, 大火珠, 澄水珠, 千步草 등	靑瓷 접시, 모시 실, 능라비단, 燒錄珍珠, 부채
2	賓童國	龍眼을 장식한 술잔, 봉황 꼬리를 장식한 부채, 珊瑚로 만든 베개, 奇南香	가슴에 짐승 문양이 수놓고 옷깃이 둥근 장삼 한 벌
3	羅斛國	하얀 코끼리, 하얀 사자, 한얀 쥐, 하얀 거북이, 羅斛香, 降眞香, 沉香, 장미 즙.	비단으로 만든 흉배(胸背)
4	爪哇國	溫涼狀, 玉髓香, 頻伽鳥, 붉은 앵무새, 하얀 앵무새, 하얀 사슴 육포 등	—
5	重迦羅	羚羊, 앵무새, 木棉, 야자, 海鹽 등	折巾 한 개, 海靑한 벌, 장화, 양말
6	孫陀羅, 琵琶拖, 丹里,	표범 가죽, 사슴 가죽, 영양의 뿔, 玳瑁, 燒珠, 오색비단, 印花	—

	圓嶠, 彭里	布	
7	吉里地悶	—	—
8	淳林邦	神鹿, 鶴頂鳥, 火鷄, 珊瑚, 金銀香	관복, 말안장,
9	女人國	—	모자, 허리띠, 옷,笏, 신발.
10	滿刺伽	진주, 花錫, 黃速香, 火鷄, 검은곰, 흰 사슴, 波羅密, 검은 원숭이	—
11	啞魯	—	—
12	阿魯	—	—
13	蘇門答刺	水珠, 象牙, 活禱蛇, 胡羊, 薔薇水, 龍涎香 등.	—
14	古臨	駭鷄犀, 용뇌향	—
15	默伽	다이아몬드 반지, 摩勒金環	—
16	孤兒國	稍割牛, 龍腦香	—
17	勿斯里	火蠶綿	—
18	勿斯離	奄摩勒(과일), 바라밀	—
19	吉慈尼	龍涎香	—
20	麻離板	兜羅綿, 서양비단, 얇은 천	—
21	黎伐國	흰 설탕, 吉貝, 賓鐵	—
22	白達國	금화, 은화, 오색의 옥, 夜光壁, 하얀 유리	—
23	南淳里	狻猊	—
24	撒發國	—	—
25	錫蘭國	—	—
26	溜山國	은화, 바다조개, 靑鴉呼, 강降眞香, 상어고기 포 등.	모자, 허리띠, 도포, 笏
27	大葛蘭	금화, 오색 비단, 후추, 야자, 溜魚, 빈랑 등.	두건, 의복, 도포, 笏
28	小葛蘭	금화, 은화, 황소, 청양, 후추, 사향, 등	중국의 의관과 도포, 笏, 장화
29	柯枝王國	금불상, 은화, 진주, 珊瑚珠, 후추 등.	의관, 허리띠, 도포, 笏
30	古俚	馬價珠, 草上飛, 검은 나귀, 서역 비단, 芸輝	—

31	金眼國	—	은으로 만든 꽃 오색 비단
32	吸葛刺王國	方美玉, 圓美玉, 마노, 진주, 낙타, 얼룩말 등.	—
33	木骨都東王國	옥으로 만든 불상, 玉圭, 옥 베개, 猫眼石, 馬哈獸, 얼룩말, 사자, 수정, 용연향 등	모자, 허리띠, 도포, 笏
34	竹步王國	위와 동일	위와 동일
35	卜刺哇王國	위와 동일	위와 동일
36	刺撒王國	고래 눈알, 魴魚수염, 낙타, 龍涎香, 乳香, 인물화가 그려진 사기 주발 등.	의관, 허리띠, 도포, 笏, 장화, 버선
37	祖法兒國	옥 불상, 눈 표범, 얼룩말, 타조, 汗血馬, 龍涎香 등.	도포, 笏, 의관, 허리띠, 가죽장화, 번선
38	忽魯謨王國	사자, 기린, 草上飛, 馬哈獸, 타조, 玉壺, 珊瑚, 猫眼石, 큰 진주, 수정으로 만든 그릇, 등.	—
39	銀眼國	—	—
40	阿丹王國	遊仙枕, 묘안석, 玳瑁, 대합조개의 껍질, 기린, 사자, 낙타, 龍腦香 등.	중국의 토산품
41	天方國	天方圖, 보석, 진주, 珊瑚, 降眞香, 기린, 사자, 타조, 낙타, 명마 등.	—
42	鄴都鬼國	—	—

‘金蓮寶象國’에서 진상한 모든 진상품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다. 이 중에서 ‘海鏡’은 중국의 대합조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껍질은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다 거울이라고 한다. 澄水珠는 직경이 한 치 정도 되는데 흐린 물에 담그면 그 물이 즉시 맑아지게 하는 진주다. ‘賓童國’의 珊瑚로 만든 베개는 배고 자면 밤에 영험한 꿈을 꾸어서, 기도하는 대로 길흉화복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된다. ‘羅斛國’의 하얀 거북이는 몸뚱이 하얀 색이고 다리가 여섯 개 달렸다. ‘蘇門答刺’의 수주는 행군하다 물이 부족할 때 이 수주를 흙 속에 넣어두면 저절로 물이 나온다. ‘溜山國’에는 바다조개가 산처럼 쌓여 있

는데 조개살이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 상어고기 포는 덩어리 채 말린 것으로 담백하고 맛있다. ‘柯枝王國’의 珊瑚珠는 장인이 직접 구슬 모양으로 가공하여 광을 내고 무게에 따라 값을 매긴다. ‘刺撒王國’에서는 고래 눈알과 방어 수염을 진상했는데 방어 수염은 비녀나 귀걸이로 쓸 수 있고 아주 비싼 물건이다. ‘天方國’에서는 진주와 珊瑚를 진상했다. 이들 진상품을 품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양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표10〉 해양과 연관된 진상품

해양 동물	어류	玳瑁, 溜魚
	패류	海鏡, 바다 조개, 대합조개의 껍질
해양 식물		珊瑚
해양 광물		澄水珠, 진주, 水珠, 수정, 燒珠,
기타 가공품		珊瑚로 만든 베개, 海鹽, 상어고기 포, 珊瑚珠, 고래 눈알, 魴魚수염, 수정으로 만든 그릇, 龍涎香

여기서 서양 바다에서 나는 진상품들을 정리해 보면 매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서양 제국은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 바다 물품이 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없는 지역도 있다. 전쟁을 통한 투항 또는 자발적으로 투항한 나라는 모두 진상품을 들고 함대로 가서 진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삼보태감은 명의 토산품이나 의관, 허리띠, 도포, 장화 등을 답례로 한다. 서양 제국은 명으로부터 거의 비슷한 물품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상품이 될 수 있다. 명이 서양에서 받은 진상품들은 대부분은 명 나라에서 보기 드문 물품이다. 물건이 희귀하면 가치가 증폭되는 것처럼 서양과 명은 모두 현지에서 볼 수 없던 물품을 매우 의미 있게 교환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국의 풍습, 기후, 생계수단과 토산품 등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고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이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화한 새로운 해양문화가 탄생되고 이는 현지상황에 따라 수용되거나 배제가 된다. 함대에서 이루어지는 조공무역을 걸음으로는 진상과 답례로 보이겠지만 이는 문물교환을 통한 상호 간 문화 교류이기도 하다. 함대는 이러한 문화와 문물을 다시 명으로 가져온다. 문

화와 문물을 현지로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역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동시에 이역과의 교류와 교역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항해를 통해 해양세계 각국과의 조공무역을 개선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어떻게 보면 함대에서 진행되는 진상과 답례는 물물 교환을 통한 해상교역의 단초라 볼 수 있다.

바다라는 공간은 끝이 없고 신비로우며 무궁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비롯해 인류로 하여금 해양을 생명 본능의 대상물로,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하게 한다. 또한 해양은 인류 생명의 근원지로 사람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한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해양을 탐구해 온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상루트, 바다 자원, 魚源과 광석 등을 발굴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용해 왔다. 바다는 무궁한 자원의 생산지이자 원천이고 인류는 그러한 자원을 개척하고 소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와 바다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 의존의 관계이다.

본장에서는 해양출정 동인, 출항준비와 선박건조 과정, 다양한 바다체험, 해양모험 그리고 조공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西洋記』에 들어있는 ‘해양성’을 추출했다. 우선 해양출정동인에서 서양으로 옥새를 찾으러 간다는 미명하에 서양 40여 나라를 정벌했다. 이러한 정벌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항전의 준비와 배를 주조해야 했다. 배는 육지-바다-육지의 왕래를 가능케 했다. 배라는 이동공간은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이다. 또한 현지의 풍토지리에 의존해 생산해낸 토산품은 문물의 교환이나 교역을 통한 경제의 이익도 함께 창출해 냈다. 경제영역의 확장으로 해상교역을 가능케 만들었고 내륙과 바다의 교류와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바다의 서술과 바다체험을 통한 서술을 통해 해양이라는 자연공간의 광대함, 변화무쌍함, 거대한 에너지, 자유분방함, 무궁한 신비감<sup>187)</sup>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바다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187) 曲金良 저, 김태만 외 역, 위의 책, p.58.



결국 모험을 택하게 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작품 속 사람들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바다탐험의 길에 들어선다. 바닷물은 유하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공포와 죽음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다탐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이는 탐험을 통한 새로운 문명과 문물의 발굴에 대한 희열과 매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걸쳐 서양 제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공품을 받게 된다. 그리고 明에서도 답례를 한다. 비록 영리를 전제로 한 거래는 아니지만 공적인 장을 통한 물물교환과 상품교류이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해상교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열어두는데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외역으로의 경제 영역의 확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조공품들은 배라는 매체를 통해 바다를 넘어 다시 明으로 들어오게 된다. 여러 가지 신기한 서양 문물들은 明 나라 사람들에게 서양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넓혔고 현지와 서양이 교류와 교역의 가능성을 자극시켰다. 반면 서양도 明의 ‘교화’와 ‘훈계’를 통해 明의 문명을 성공적으로 서양에 전파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明과 서양은 각각 새로운 해양문화가 탄생하고 현지에 수용되거나 배제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또는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될 수도 있다. 明은 서양 정벌에서 영토의 확장, 경제 영역의 확장과 인문정신의 확장 등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때문에 『西洋記』는 해양에 대한 인류의 모험과 신비 그리고 인문교류의 열망을 담아낸 소설은 아닐까.

## 제 5 장 결론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西洋記』를 ‘神魔小説’의 범주로 연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西洋記』를 ‘해양소설’의 범주로 간주하여 작품 속 ‘해양성’이 들어있는 요소들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서론에서 기존연구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해양문학의 개념에 대한 범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양성’의 특징으로 섭해성, 복사성, 모험성 등을 해양소설을 구성하는 큰 틀로 정하고 작품 속 출항 준비와 선박 건조, 다양한 바다 체험, 모험과 전쟁 그리고 해양 산물인 조공품 등의 내용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선 작품 속 주인공에 대해 분석해봤다. 鄭和의 성격을 다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鄭和는 항해 초기에 겁쟁이로부터 갈수록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통솔자로 변하는 인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鄭和를 비롯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해본 바다, 즉 바다 탐험에 대한 심리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개척하려는 도전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鄭和의 서양원정을 통해 새로운 해상루트의 개척과 이역과의 교역을 가능케 한 것이 가장 성공한 부분이다. 그리고 張天師와 金碧峰 장로를 서술하는데 처음에는 대립의 관계, 신통력 겨루기에서 張天師가 劣勢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황제의 부탁으로 함께 출항하고 이 와중에 서양 제국의 도사나 정령을 다스리는데 金碧峰 장로의 법력에 탄복하는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작가가 불가에 더욱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西洋記』에 나타난 세계 인식에서 작가가 서양의 지역에 대한 범주, 천조대국 明의 이미지와 서양을 향한 항로와 이동경로에 대해 검토를 해봤다. 작가가 서양 제국에 대한 분기점은 交趾國을 기점으로 이 지역의 남쪽에서부터 인도양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을 서양나라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과 鄭和의 원정을 기록하고 있는 『西洋番國志』와 『瀛涯勝覽』에서 말하고 있는 서양의 범주는 달랐다. 사전에서는 文萊國을 기점으로 지역의 남쪽에서 인도양의

서쪽에 인접한 나라들을 서양나라로 보고 있다. 『西洋番國志』와 『瀛涯勝覽』에서는 南淳里國의 서북쪽을 서양으로 보고 있다. 작가는 서양의 범주에 대한 구분에서 기록과 차이가 나지만 작품은 실화가 아니므로 진실성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明 나라의 시각에서 서양을 바라봤을 때 서양인은 사람의 형상을 갖췄을 뿐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인류에 어긋나는 일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등의 서술을 통해 작가 내지 당시 다수의 明 나라 사람들은 그 시기까지 중화중심사상을 지니고 있어 주변의 오랑캐 내지 교화가 미치지 못한 서양 사람들을 교화하고 明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심보가 보인다. 작가의 서술을 통해 중국이 서양 제국과의 교역과 교류를 진행할 때 상당한 우월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시 중국이 ‘天朝上國’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 그 누구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서양으로 향한 원정이 가능했던 것이었고, 서양에 대한 교화와 변화를 통해 明의 문화를 현지로 전파하고 수궁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평등한 상호교류와 협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이고 강제적 행위였다.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 얻어낸 결과이다. 明은 ‘교화’의 미명 하에 지역의 확장과 인문정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작품 속 서양으로 출항한 과정에서 경과한 나라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분석해 봤다. 鄭和의 함대는 바다를 통해 서양 제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몇몇 나라를 통과하는데 몇 년 동안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저항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루는 동안 일반인과 일반인의 전쟁과 신과 신이 신통력을 겨루는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결국 明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 여기서 神과 요괴에 대한 서술에서 보면 인간과 神(또는 요괴)은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明 나라 또는 서양의 제국을 위해 용맹하게 싸우고 각 나라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반면 상대국에게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明에게 있어서 인간이든 요괴든 모두 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다. 서양정벌이 모두 승리로 결말

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明의 천하무적이라는 심리와 天朝上國의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양의 정벌을 통해 明은 지역 확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더불어 가상의 공간인 豊都鬼國에서 오랑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 영혼을 제도하는 것을 통해 정벌의 정당성을 제시했다.

『西洋記』에 나타난 해양성에서 해양출정 동인, 출항준비와 선박건조 과정, 다양한 바다체험, 해양모험 그리고 조공물을 통해 작품 속에 들어있는 ‘해양성’을 도출해 봤다. 서양의 출정 동인은 서양을 위무하는 것과 옥새를 찾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겉보기에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옥새를 찾는 미명하에 서양에 대한 정벌이라는 주장이다. 옥새를 찾는 구실로 서양 40여 제국을 정벌한 결과는 서양 제국으로 영토 확장과 경제활동의 확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황제의 최종목표였기 때문에 작품 속 옥새의 유무는 무의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양의 원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출항을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원정에 필요한 장수, 병사, 의사와 통역관 등의 선발 및 인원수까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도 아주 흥미롭다. 金碧峰 장로가 미리 작성해 둔 선박의 외형, 치수와 개수에 맞추어 주조했다. 닻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또한 하늘의 신선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완성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서 출항을 하게 되는데 바다에 대한 설명도 다양했다. 출항하자마자 함대가 바다로 바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강을 통해 바다 입구로 들어가고 좀 더 나아가 비로소 서양의 바다로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 바다 신령의 저항으로 힘겹게 항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金碧峰의 협조로 끝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서양 제국으로 들어간다.

작품 속 장수와 병사들이 탐험을 통한 성공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李海와 王明이다. 李海는 출항 초기 바다에 떨어진 이유로 서양을 가지 못했지만 뛰어난 지략과 용감함으로 夜明珠를 얻어 함대가 귀항하기를 기다린다. 작가는 끝에서 李海가 함대를 다시 타고 明으로 돌아가 夜明珠를 진상

하여 상과 벼슬을 받는 것을 온전하게 서술했다. 작가는 이러한 표현 수법을 통해 작품에 취미성을 더 한 동시에 이야기의 일관성을 보존했다. 또한 王明은 서양으로 가는 와중에 저항하는 서양 제국과 전쟁을 치루면서 공을 세우고 明으로 돌아온 후 입신양명에 대한 성공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서양원정은 함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첫 경험이었다. 즉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첫 경험하는 것이다. 바다는 미지의 세계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동반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왕 탐험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차라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데 목숨을 걸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서양의 40여 제국을 정벌하면서 明이 받았던 진상품에 대한 정리도 해봤다. 순순히 항복한 나라와 저항하다 항복한 나라의 국왕들은 모두 친히 진상품을 준비하고 함대로 降書와 진상품을 바친다. 그리고 明에서도 답례를 한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진상과 하사의 관계이지만 일종의 문물교환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모든 바다교역은 함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를 이용한 이동을 통해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의 풍토 지리에 의존해 생산해낸 토산품은 문물의 교환이나 교역을 통한 경제의 이익도 함께 창출해 냈다. 경제영역의 확장으로 해상교역을 가능케 만들었고 내륙과 바다의 교류와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바다의 서술과 해양체험을 통한 서술을 통해 해양이라는 자연 공간의 광대함, 변화무쌍함, 거대한 에너지, 자유분방함, 무궁한 신비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 속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바다탐험의 길에 들어선다. 바닷물은 유하지만 사람에게 공포와 죽음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다탐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은 탐험을 통한 새로운 문명과 문물의 발굴에 대한 희열과 매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작품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해 왔다. 작품 속 해양출정 동인, 출항 준비와 선박건조, 서양에 대한 인식, 이동경로, 다양한 바다체험, 해



양과 연관된 조공품 및 모험과 위기의 공간으로 다루어진 바다 등 해양성을 지니고 있는 내용들을 도출했다. 해양성을 띠고 있는 문화를 해양문화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양문화는 인류가 해양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이용 및 해양을 통해 창조해낸 정신적·행위적·사회적·물질적 산물이다.<sup>188)</sup> 해양문화는 이역 이동과 혼종을 통해 새로운 해양문화의 탄생과 현지에 수용 등의 본토문화에 변화를 가져다준다. 작품 속 서양 제국을 實과 虛로 구분하여 작가는 虛의 공간을 통해 바다에 대한 이해와 환상을 다루고 있다. 또한 조공품을 통한 해상교역은 서양의 문화를 明으로 전달하는 과정과, 明의 답례를 통한 서양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를 매개로 明과 서양은 교류와 교역하는 동시에 상대에 의한 문화의 변화로 보완하고 수용하며 자기화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롭게 발전된 해양문명이 탄생된다. 작품 속 풍부한 해양성의 내용을 통해 『西洋記』를 해양작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 서양 제국을 실제공간과 작가가 만들어진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明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공간이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 신과 신 사이의 전쟁과 신과 요괴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루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는 황당하기 끝이 없는 신마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미건조한 서양원정에 흥미로운 조미료를 가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인간과 신은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은 신마작품이기도 하고 판타지작품이기도 한 동시에 해양문학작품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연구한바와 같이 『西洋記』는 해양소설로서의 풍부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모험적인 해양소설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시론적 논문일 뿐이다. 향후 더욱 풍부한 『西洋記』 연구를 희망한다.

---

188) 김태만, 위의 책, p.50 참고.



## 참고문헌

### 1. 단행본

- [明] 羅懋登 著, 陸樹崙·竺少華 校訂,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上海古籍出版社, 1985, 上海.
- [明] 羅懋登 著, 홍상훈 譯,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미출간 원고)
- [西漢] 司馬遷, 『史記』.
- [南朝·宋] 範曄, 『後漢書』.
- [明] 蹇義, 『明仁宗實錄』.
- [明] 鞏珍著, 向達校注, 『西洋番國志』, 中華書局, 2000, 北京.
- [明] 羅貫中, 『三國演義』, 人民文學出版社, 1953, 北京.
- [明] 馬歡著, 萬明校注, 『明鈔本『瀛涯勝覽』校注』, 海軍出版社, 2005, 北京.
- [明] 費信, 『星差勝覽』.
- [明] 嚴從簡, 『殊域周咨錄』, 中華書局, 2000, 北京.
- [明] 吳承恩, 『西遊記』, 華夏出版社, 1996, 北京.
- [明] 袁忠徹, 『古今識鑿』.
- [清] 傅維麟, 『明書』.
- [清] 張廷玉, 『明史』.
- [清] 黃文暘, 『曲海總目提要』, 人民文學出版社, 1959, 北京.
- 金陵唐氏富春堂六卷本 『新刻出像增補搜神記』, 國家圖書館文獻縮微中心藏, 1986.
- 魯迅, 『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2005, 北京.
- 林耀德, 『海是地球的第一個名字』, 號角出版社, 1987, 臺灣.
- 孫景峰·李金玉, 『正說明朝三百年』,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5, 北京.
- 鄭鶴聲·鄭一鈞, 『鄭和下西洋資料匯編』上冊, 齊魯書社, 1980, 濟南.
- 趙君堯, 『天問·警世—中國古代海洋文學』, 海洋出版社, 2009, 北京.
- 곡금량 著, 김태만·안승웅·최낙민 譯, 『마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부산.
- 구모룡, 『해양문화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부산.
- 구모룡, 『해양풍경』, 산지니, 2013, 부산.
- 김태만·장현정, 『철학이 있는 도시, 영혼이 있는 기업』, 호밀밭, 2016, 부산.
- 민관동·김명신 편저,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 학고방, 2003, 경기도.
- 옥태권, 『해양작품의 이해』, 전망, 2006, 부산.

조규익·최영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서울.

黃乙文, 『해양문학소요』, 전망, 2001, 부산.

黃乙文, 『해양問學의 길』, 전망, 2007, 부산.

『성곡논총』 12집, 성곡학술재단, 1981, 서울.

## 2. 학위논문

歐陽文, 「『西洋記』의形式研究」, 江西師範大學, 석사논문, 2005, 江西.

鄧 珊,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稱謂詞研究」, 浙江財經大學學, 석사논문, 2014, 浙江.

劉香玉, 「『西洋記』研究」, 首都師範大學校, 석사논문, 2009, 北京.

王飛華,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中的語氣詞研究」, 四川師範大學, 석사논문, 2002, 四川.

張 麗,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程度副詞研究」, 四川師範大學, 석사논문, 2009, 四川.

蔣麗娟,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研究」, 蘇州大學, 석사논문, 2008, 蘇州.

張火慶, 「三寶太監下西洋記研究」, 東吳大學中研所, 박사논문, 1992, 臺灣.

吳 花, 「한·중 고전작품의 해양체험담 비교 연구 — 『太原誌』와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7, 경기도.

尹致富, 「韓國海洋文學研究 - 漂海類作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서울.

## 3. 일반논문

唐 琰, 「海洋迷思—『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與『鏡花緣』海洋觀念的比較研究」, 『明清小說研究』, 2006, 江蘇.

劉紅林, 「『三談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神魔化淺談」, 『明清小說研究』, 第77期, 2005, 江蘇.

劉紅林, 「『三談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主角談」, 『明清小說研究』, 第81期, 2006, 江蘇.

林延清, 「李太后與張居正改革」, 『南開學報』, 第五期, 2005, 天津.

孫 勤, 「明清時期中國與中英美海洋文學作品的比較研究」, 『教育教學論壇』, 2015, 上海.

宋文娟, 「中國海洋文學研究概貌與趨向」, 『語文學刊』, 2012, 寧波.

王榮國, 「宋代海洋性神靈信仰的廟宇」, 『福建文博』, 2012, 福建.

曾玲琴·張 亮, 「屈辱與空白: 西方探險類海洋文學敲擊中國」, 『文教資料』, 2012, 南京.

鄒振環, 「『西洋記』의刊刻與明清海防危機中的‘鄭和記憶」」, 安徽大學學報第3期, 2011, 安徽.

包遵彭, 「論三寶太監下西洋記演義與天后故事的影響」, 『幼師學報』, 國家圖書館藏, 1981, 臺灣.

김태만, 「동방 오디세이, 정화(鄭和)의 바다」, 『해양과 문학』, 제19호, 전망, 2016, 부산.

- 남송우, 「한·중 해양문화론 논의의 현황과 방향성 모색」, 『동북아문화연구』, 제47집, 동북아시아학회, 2016, 부산.
- 신정호, 「한중 해양문화연구 서설」,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광주.
- 신정호, 「한중 해양문화 비교연구 서설 - 시론적 접근」, 『도서문화』, 제40집, 2012, 목포.
- 윤정화·김태만, 「『삼보태감서양기통속연의(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에 투영된 역사와 시대 의식」, 『동북아문화연구』, 제47집, 2016, 부산.
- 윤치부, 「해양문화연구」, 건국대대학원, 1992, 서울.
- 이후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화』71,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5, 서울.
-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 표해가(漂海歌)를 중심으로」, 『省谷論叢』, 第12輯, 省谷學術文化財團, 1981, 서울.
- 최영호,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 『지평의 문학』, 1993년 하반기호, 부산.
- 홍상훈, 「중화(中華)의 자족적 나들이」, 『中國小說研究會報』,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순천.
- 홍상훈, 「『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의 詩文引用 및 變容樣相」, 『中國文學』, 제79집, 2014.05, 서울.

#### 4. 기타 자료

- 閻崇年, 「明亡清興十六年第二講 : ‘萬歷怠政’」, 央視網, 2006.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6%91>  
<https://baike.baidu.com/item/%E8%A5%BF%E6%B4%8B/79893?fr=aladdin>  
<https://goo.gl/images/wM5NiR>  
[http://www.gucn.com/Info\\_KnowLedgeList\\_Show.asp?Id=75801](http://www.gucn.com/Info_KnowLedgeList_Show.asp?Id=75801)  
[http://blog.sina.com.cn/s/blog\\_4cfcdf540100coky.html](http://blog.sina.com.cn/s/blog_4cfcdf540100coky.html)  
[http://www.360doc.com/content/17/11/18/11/7872436\\_704874443.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11/18/11/7872436_704874443.shtml)